

『러시아·유라시아 연구』는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학회지로서 러시아 및 유라시아의 문학, 어학, 문화, 정치, 경제, 지역학 등 전반에 관한 연구논문, 서평 등을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논문투고 및 편집과 관련한 모든 문의 사항은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편집위원회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전화: 053-950-7301

·홈페이지: ires.co.kr ·온라인 논문투고: ires-journal.or.kr

·이메일: iresknu@gmail.com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인문한국진흥관 420호

Russian & Eurasian Studies is published twice a year by Institute of Russian & Eurasian Studies. The Journal is dedicated to the academic papers and reviews about Russian and Eurasian literature, language, culture, politics, economics, regional studies and etc.

Contribution and other editorial matters should be addressed to the editor of the journal.

Institute of Russian & Eurasian Studies

·Tel: 053-950-7301

·Homepage: ires.co.kr ·Contribution address: ires-journal.or.kr

·E-mail: iresknu@gmail.com

·Address: 420, Humanities Korea Bldg, 80, Daehak-ro, Buk-gu, Daegu

러시아 | 유라시아 | 연구

Russian & Eurasian Studies

Vol. 11. Apr. 2024

ISSN 2671-6054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 Eurasian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편집위원회 ■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연구소

편집위원장 _김민아(경북대, 러시아문화)

편집간사 _정지윤(경북대, 러시아어학)

편집위원 _권경준(성균관대, 러시아어학), 김정일(경북대, 러시아어학)
김태욱(충북대, 러시아문학), 서광진(경북대, 러시아문학)
이강은(경북대, 러시아문학), 이기주(안양대, 러시아문학)
이선우(전북대, 러시아정치), 홍택규(한림대, 러시아어학)
박노자(오슬로대, 한국사)
노나카 수수무(사이타마 대학, 러시아문학)
아나톨리 아프락신(상트-페테르부르크대, 철학)
유리 스메르친(쿠반국립대, 동양학)

■ *Russian & Eurasian Studies* Editors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hief Editor _Kim Minn Ah(KNU)

Managing Editors _Jeong, Ji Yoon

Editors _Kwon Kyong Joon(SKKU), Kim Jung Il(KNU)
Kim Tae Ok(Chungbuk N.U.), Seo Kwang Jin(KNU)
Lee Kang Eun(KNU), Lee Ki Ju(AYU)
Lee Sun Woo(Jeonbuk N.U.),
Hong Taek Gyu(Hallym U.), Park No Ja(Oslo U.)
Nonaka Susumu(Saitama University)
Anatoliy Apraksin(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Yuri Smertin(Kuban State University)

러시아 & 유라시아 연구

목차

| 문학 Literature

체홉의 장막극 『벚꽃 동산』에서 사물과 말의 기능 1 김 무 겸

레르몬토프의 서사시 『악마』의 주인공 형상 연구 19 이 명 현

| 어학 Language

러시아어 조사 Неужели와 Разве 의미기능 고찰 45 백 경 희

A Cognitive Approach: Informational Status of Boundaries 65 최 하 늘
and Non-Boundaries in Russian Word Order

러시아어 SJA 동사구문 논항구조와 사건 구조 연구: 95 하 주 애
비대격동사구문과 SJA 동사구문을 중심으로

| 부록 Appendix

연구소 규정 127

편집 규정 132

투고 지침 136

연구윤리 규정 142

Russian & Eurasian Studies

Contents

| Literature

The Functions of Objects and Words in Chekhov's Drama <i>The Cherry Orchard</i>	1	Kim, Mu Gyeom
--	---	---------------

A Study on the Main Character of Lermontov's Poem <i>The Demon</i>	19	Yi, Myoung Hyoun
---	----	------------------

| Language

A Study on the Semantic Functions of the Russian Particles 'Neudzeli' and 'Razve'	45	Back, Kyung Hee
--	----	-----------------

A Cognitive Approach: The Informational Status of Boundaries and Non-Boundaries in Russian Word Order	65	Choi, Ha Neul
--	----	---------------

On Argument Structures and Event Structures of Russian SJA Verb Constructions: Unaccusative Verb Constructions and SJA Verb Constructions	95	Ha, Ju Ae
--	----	-----------

| Appendix

Institute Regulations 127

Editorial Regulations 132

Contribution Guide 136

Regulations for Researchers 142

체홉의 장막극 『벚꽃 동산』에서 사물과 말의 기능

김 무 겸*

국문 초록

본고는 체홉의 드라마 『벚꽃 동산』의 성격 규정을 둘러싼 논쟁(희극 대 비극)이 무대화를 필요로 하는 드라마 장르의 본질에서 기원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분석의 대상을 극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무대화했을 때 기능하는 사물과 말에 둬으로써 체홉 드라마의 희비극성의 기원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벚꽃 동산』에 등장하는 사물과 말은 본유적인 기능의 수행 여부에 따라 기능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로 이분될 수 있다. 무대에서 본유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 사물은 즉물성으로 드러나고, 드라마 전개에 내적 불일치와 모순을 만들어내며 희극성을 만들어낸다. 반면, 본유적인 기능을 하는 사물은 등장인물의 심리에 영향을 끼치며 드라마의 비극적 정조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한다.

또한 전언 기능이 축소된 말은 소음으로 드러나며 드라마 전개의 내적 논리를 흐트러트리므로, 주요 사건과의 모순과 불일치를 조장하며 희극성을 낳는다. 반면, 등장인물의 내적 상태에 부합하는 소리는 드라마의 비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비극적인 세계와 희극적인 세계가 공존하는 체홉의 드라마 『벚꽃 동산』의 전체성은 사물과 말을 조명함으로써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주제어 : 체홉, 『벚꽃 동산』, 사물, 말, 즉물성, 소음, 소리, 희극성, 비극성

I. 서론

『벚꽃 동산』은 체홉의 4대 장막극에서 창작 시기상 가장 나중에 나온 드라마이다. 작가의 창작사에서 개인의 죽음은 창작의 종결을 의미하지만 그것

* 모스크바 국립대 박사과정, zbssl1212@naver.com

이 곧 작가의 창작에서의 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벚꽃 동산』이 창작적 결산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벚꽃 동산』의 연출을 둘러싼 채홉의 개인적인 정념-불만 이면에 『갈매기』를 구상할 때부터 실현시키고자 한 고집스런 예술적 신념이 최종적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 연출에 관한 채홉의 불만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있었다. 1903년 릴리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채홉은 “곳곳에 파르스가 있는 희극이 나왔다”라고 쓰며 자신의 드라마의 성격을 희극이라고 정의 내렸는데, 그녀의 남편이자 드라마 연출을 맡은 스타니슬랍스키는 채홉의 드라마가 “희극도 보드빌도 아니고 마지막 장에서 더 좋은 삶으로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라도 이 극은 비극이다”¹⁾라고 쓰며 정면 반박한 것이다. 초연 후인 1904년 4월 10일, 크니페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채홉은 연출가들이 자신의 드라마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단첸코와 스타니슬라프스키는 드라마에서 내가 쓴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들이 단 한번도 주의 깊게 읽지 않았다는 말을 해 줄 필요가 있어.”²⁾ 드라마 연출을 맡은 스타니슬랍스키와 단첸코는 채홉과는 다르게 드라마-텍스트를 해석했고, 비극적 파토스를 강조하는 이들의 공연은 드라마의 희극적 성격을 염두에 두고 창작한 채홉의 심기를 자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극은 드라마투르그의 상연 의도에 맞추어야 한다”는 채홉의 발언과 별개로 연출자들이 그의 드라마를 다르게 해석했고, 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은 드라마라는 장르의 본원적 문제에서 기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드라마는 어떤 장르인가. 드라마는 공연되고 보여지는 예술 형식이며, 보여지는 대상은 단 하나, 행위이다.³⁾ 프로로프는 장르로서의 드라마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 바 있다. “드라마는 연극을 위해 쓰이고 공연된다. 이것

1) 김규중, 『극작가 채호프의 희곡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아사, 2009, 222쪽에서 재인용.

2) 위의 책, 223쪽.

3) 아리스토텔레스는 드라마의 어원적 기원(dran = 행위)을 추적하면서 드라마는 행위의 모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천병희 옮김, 문예출판사, 2002, 56쪽. 기실, 대사 없는 드라마(무언극)은 있어도, 행위 없는 드라마는 없다. 마틴 에슬린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드라마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드라마를 드라마로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말의 범위를 넘어 그 밖에 있는 요소로서 그것은 행동으로 눈에 보여질 수 있어야 하며 실연을 통하여 작가의 개념을 온전한 가치로 제공해야 한다” 마틴 에슬린, 『드라마의 해부학』, 한양대학교 출판원, 1972, 17쪽.

이 드라마의 종적(родовая) 특징이다. 문학창작의 종으로서 드라마는 예술 체계 안에 있으며, 다른 이웃 종들(эпос, лирика)과 예술 형식들(연극, 음악, 영화, 그림 등)과 함께 다양한 역사적 단계에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한다.”⁴⁾ 프로로프의 드라마 정의의 요는, 드라마는 무대 위에 상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서사시도, 서정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연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러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공연되지 않으면 안 되며, 공연이 드라마의 필요조건이 된다.

다시 체홉의 갈등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드라마투르그-체홉과 연출자-스타니슬랍스키의 갈등 즉, 드라마-텍스트의 창조자와 공연의 창조자 사이에 발생한 불화는 사실 드라마라는 장르의 본원적 특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드라마-텍스트는 하나이지만 그것이 공연되기 위해서는 연출자가 개입되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드라마를 둘러싸고 사공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드라마-텍스트가 스타니슬랍스키의 해석에 따라 비극으로만 연출되어야만 할 필요도 없다. “드라마 장르는 자신의 형상을 바꾸어나갈 수 있다”⁵⁾는 예술인의 지적은 극-텍스트가 연출자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공연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겨냥한 말이다. 스타니슬랍스키는 희극이나 비극으로 공연될 수 있는 잠재적인 극-텍스트를 두고 비극적으로 연출했을 뿐이다.

상술한 드라마 장르의 특징 때문에 소설을 독해하는 방식으로는 드라마를 독해하는 것은 드라마의 본질인 종합성을 간과하기 쉽다. 드라마의 세계는 어떠한가. 여기에는 글 텍스트를 대신해서 인물들이 대화를 통해 반응하는 육체가 있다. 소설은 독자가 읽고 싶을 때 언제나 책을 펼칠 수 있고 그것의 존재는 물리적인 손실의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영원하다고 할 수 있지만, 드라마가 자신의 존재를 현현할 때는 공연되는 순간 한번 뿐이며, 드라마가 다시 살아 나가기 위해서는 배우와 연출, 무대공간 등등을 요구해야한다. 따라서 드라마는 무대화 작업을 위한 특수한 장치들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장르에 비해 더 많은 조건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텍스트가 발화되기 위해서는 배우를 필요로 한다. 또한 그 배우를 비추는 조명이나 공간적 특성을 지시하는 배경, 음향 등의 무대 장치가 필

4) Фролов В. Судьбы жанров драматургии, М.: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1979, С. 11.
5) 마틴 예술린(1972), 43쪽.

요하다. 앙리 구이에가 드라마를 ‘여러 예술의 총합’이라고 정의 내렸을 때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이다.⁶⁾ 같은 작품이라도 공연이 다르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작품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드라마는 소설보다 더 다양한 계기가 산재해 있고, 일원적 해석의 가능성을 넘어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연은 그것을 조정하는 연출가의 의도마다, 그리고 공연 순간의 배우의 연기력마다 관객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극에 통상적인 해석의 잣대를 들이밀어 의미를 꼬집어내는 작업이 유효하다면 그것은 일회적인 공연에 한정되어야만 할 것이다.⁷⁾ 그러므로 어떤 한 드라마의 의미적 일반론 꼬집어내는 작업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드라마에서 인물의 성격은 어떠한지, 주제론은 어떠한지와 같은 텍스트 한정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종합예술-『벚꽃 동산』에 배치된 사물과 배경, 말소리 그리고 말소리 외의 음향의 기능을 조망하고자 한다. 범박하게 말하자면 극-텍스트에서 이 장치들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추적하는 것이 글의 목표이다.

II. 본론

체홉 드라마에서 말과 사물들은 자신에게 본유적인 기능⁸⁾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드라마를 둘러싼 문제의 핵심은 본유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 사물들

6) 앙리 구이에, 『연극의 본질』, 집문당, 1992, 31쪽. 구이에에는 극 텍스트를 ‘잠재적인 유희’로, 그것을 공연화 하는 연출자를 ‘공연의 시인’으로 명명한다.

7) 소설과 드라마의 언어는 성격이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다. 소설의 언어가 일차적으로 지시적이고, 한정된 세계의 표현을 지향한다면, 배우의 언어(몸짓, 말)는 지시적이지 않으며 말 이상의 무엇을 표현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연극은 소설에 비해 정보의 공백이 크다. 마틴 에슬린은 소설과 드라마를 비교하며 “혼자서 읽도록 설계되어 있는 문학이란 드라마보다 훨씬 더 직선적이며 훨씬 더 선형적이며 훨씬 더 단일 차원적이다. 드라마는 표현과 의미 양자를 포용하는 다층구조를 가지면서 체험의 수용자인 관객들에게 해석의 책임과 부담을 안겨주는 객관성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는 인생 그 자체와 같다.” 마틴 에슬린(1972), 146쪽.

8) 등장인물의 행동을 추동하는 사물, 가령 권총은 트레플레프의 자살이라는 행위를 보낸다. 죽임을 당한 갈매기는 트레플레프의 병리를 지시하며 복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등장한다는 데 있다. 체홉 드라마의 사물은 기능의 부합 여부에 따라 이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연출자-스타니슬랍스키가 체홉 드라마를 전통극의 연장선에서 바라보고 비극이라고 해석하는 지점이며, 후자의 경우 드라마투르그-체홉이 드라마를 희극이라고 부르며 "파르스가 있다"고 말한 바로 지점이다.

II.1. 사물

II.1.1. 본유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 사물

무대가 올라가면 관객의 눈앞에 보이는 공간적 배경은 ‘어린이 방’이다. 그리고 이 공간에 두 어른, 두냐샤와 로빠힌이 등장한다.⁹⁾ 그들이 각각 들고 있는 것은 촛불과 책이다. 등장인물 손에 쥐어진 첫 사물들은 모두 본래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어둠을 비추는 촛불은 맨 처음에 두냐샤가 바람을 불어 끄는 것으로 그 기능이 순식간에 소멸한다. 관객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사물의 본유적 기능의 종결이다. 뒤를 이어 로빠힌의 책도 기능하지 않는 소도구로 전락한다. 책은 지식인의 표징으로서 그 지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으나, 로빠힌의 책은 소유자의 지적인 면모를 지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반대 인물임은 “책을 읽어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읽다가 잠이나 들지”라고 하는 자기 고백에서 드러난다.

본유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 두 사물은 즉물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인물형상의 성격을 드러내지도, 사건에 필연적 계기도 되지 못하며, 순수한 무

9) 어린이 방으로 사람들이 모여 들지만 실제 어린아이는 없다. 장소와 구성원의 불일치는 웃음의 계기이다. 등장인물은 보기와 달리 어린아이와 같기도 하다. 가령 류보비가 ‘이제 나는 어린애가 된 거야’라며 자신을 어린아이와 동일시하는 것, 그리고 뒤이어 영지가 팔릴 처지임에도 어린애처럼 울며 관망하는 모습은 희극적이다. 이는 어른의 규범 내지 이상과 맞지 않는 행동에서 오는 희극성이라 할 수 있다. 블라지미르 브로쯔는 ‘다름의 희극성’을 연구하며 사회의 이상이나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 희극성의 기원이 될 수 있다고 밝힌다. “한 민족 전체와 같은 대규모 집단 뿐 아니라 한 도시나 한 지역, 시골, 더 나아가 한 반의 학생들 같은 소규모 집단들도 모두 부득이하게 지켜야 하는 도덕적이고 외양적인 이상향을 포함하는 관습적 규칙들을 가지고 있다. 관습적 규칙들을 위반하는 것은 곧 집단적 이상향이나 삶의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위반은 곧 결함이 된다. 이러한 사실의 발견은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블라지미르 브로쯔, 『희극성과 웃음』, 정막래 옮김, 나남, 2010, 83-84쪽.

게라는 물성만을 지닌 소품으로 등장한다. 다르게 말하면 두 사물은 드라마 전개에 있어 잉여적이다. 이와같이 즉물적인 사물들은 드라마 곳곳에 등장한다. 두냐샤와 로빠힌의 대화를 바로 뒤이어 등장하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에빠호도프, 꽃다발을 들고 들어온다. 그는 조끼를 입고, 매우 뼈격거리는 소리를 내는, 깨끗하게 닦인 구두를 신고 있다. 꽃다발을 떨어뜨린다.

에빠호도프 (꽃다발을 집어 든다) 식당에 꽃으라고 정원사가 주더군요. (두냐샤에게 꽃다발을 건네준다)

로빠힌 꼬바스를 마시고 싶군

두냐샤 예¹⁰⁾

꽃다발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사물의 본래 기능과는 상관없다. 에빠호도프의 대사를 쫓다보면 꽃다발이 본래 식당의 한구석을 장식할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의 말이 진정성 있는지 아니면 에빠호도프가 자기가 처한 민망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 말인지는 불분명하다. 중요한 건 꽃다발의 기능 수행은 전적으로 건네받은 두냐샤에게 달렸지만, 그녀는 꽃이 예쁘다든지(장식으로서의 기능), 가져다 놓겠다는 식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대화 상황에서 그녀가 대답하는 말은 에빠호도프의 말이 아니라 로빠힌이 꼬바스를 마시고 싶다, 꼬바스를 가져오라는 말이다. 더군다나 꽃다발이 식당의 한구석에 꽃혀서 장식이라는 본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드라마 중에서 보여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꽃다발은 촛불이나 책이 그러한 것처럼 즉물적 사물로 격하된다.

드라마에는 자신의 본유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은 사물들의 연쇄로 가득하다. 샤를로따가 오른쪽 어깨에 걸친 라이프츨이나 에빠호도프의 권총은 드라마에서 쓰이지 않을뿐더러 샤를로따나 에빠호도프의 성격의 어떤 특징을 지시하지도 않는다. 사물의 이름도 잉여적이다. 가령 3막에서 연미복을 입은 피르스가 쟁반에 든 물의 종류는 광천수(сельтерская вода)이다.

10) 안톤 체호프, 『희곡선집: 벚꽃 동산』, 오종우 옮김, 열린책들, 2009, 200-201쪽. 본고에서 인용되는 텍스트는 이 판본에 의거하고, 향후 인용 시에는 괄호 안에 간단히 쪽수만 표기할 것이다.

그것이 광천수일 필요도 없고, 다른 음료라고 해도 하등 상관없다.¹¹⁾ 샤를로따가 자신의 근본 없음에 대해 말하면서 오이를 씹어대는 장면도 잉여적이다. 음식이 오이가 아니어도 되며, 그것이 샤를로따가 처한 상황이나 말의 내용과 관련 있지도 않다. 가예프가 무의식적으로 삼키는 얼음사탕이나 로빠힌이 마시는 꼬바스는 상황과 전혀 상관없다.

그러나 사물의 즉물성이 소도구나 장치로서 무대에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시 말해 사물로서는 본유적인 기능을 하지 않지만, 그것이 예술 세계에 들어옴으로써 특수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즉물적인 사물은 주로 드라마의 희극성에 봉사한다. 뽀로뽀가 분석하듯, 희극성의 주된 계기가 상황과의 불일치나 모순이라고 한다면, 즉물적인 사물들은 일관적인 드라마 전개에 일탈을 종용하며 불일치와 모순을 만들어낸다. 가령 4막에서 짐을 싸고 떠나는 장면에서 바라가 우산을 꺼내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은 그동안 머물러왔던 벚꽃 동산과 오래된 집을 떠나는 비극적인 정조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우산을 꺼내는 그녀의 행위가 ‘마치 누굴 때리려고 치켜드는 듯’해서 로빠힌을 놀라게 만들고 이로부터 희극성이 나온다. 우산은 로빠힌에게 비를 맞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사물이 아니라 로빠힌에게 자신을 혼낼 도구로 비친다. 비극적인 분위기와 맞지 않게 등장하는 즉물적인 우산은 극 중 상황에 희극성을 부여한다.

즉물적인 사물들은 드라마에서 단순히 양적으로 많이 등장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에서 등장인물을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욕망과 관련하여 지배하는 쪽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다. 가령 가예프는 책장이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주었다고 말한다.

가예프 그래... 물론 사물이지만..... (책장을 어루만진다) 귀중하고 존경스러운 책장이여! 너의 존재를 찬양하나니, 너는 백 년이 넘게 선과 정의의 빛나는 이상을 향해 매진해 왔구나. 유익을 향한 네 침묵의 호소는 백 년이 흘러도 약해지지 않았고 우리 세대에게 활기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신념을 심어 주었으며 선의 이상과 공공의 자각을 가르쳐 주었도다. (211)

11) 광천수인 것을 관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병 주위로 광천수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상상해보라. 과도한 표현성으로부터 희극적인 효과가 생긴다.

징게르만의 정확한 관찰처럼 물건은 인간의 욕망을 지배하는 능동인으로 드러난다. 사물은 인간의 몸과 하나가 되어버린다.¹²⁾ 로빠힌과 바라의 약혼식 축하주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샴페인은 야사의 뱃속으로 들어가며, 뻘시치크는 오랜만에 만난 류보비에게 개구리 요리는 어땠냐고 물어본다. 또한 백점토가 발견되어 돈을 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뻘시치크가 요청하는 것은 물이며 그것을 마셔버린다. 이들은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지며 이 사실은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먹을 것에 집착하고 있는 행동으로 드러난다. 식욕(사물)에 지배당해 버린 인간의 모습은 희극성의 원인이 된다.¹³⁾

II.1.2. 본유적인 기능을 하는 사물

체홉 드라마가 전통극에서처럼 중심적 주인공이 부재하며 중요한 하나의 사건과 슈제트를 중심으로 드라마가 전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특징이다. 가령 『갈매기』에서 트레플레프의 서사만큼 트리고린과 니나, 아르카지나의 삼각관계도 같은 강도의 조명을 받고 있으며, 극 중 중요한 사건인 트레플레프의 자살은 정작 무대 뒤에서 일어난다. 징게르만이 햄릿 드라마와 체홉 드라마를 비교 분석한 다음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셰익스피어에게 햄릿은 이상하고, 특징적인 인간이며, 광기에 도달하는 극 중 유일한 존재이다. 한편 체홉에게 트레플레프는 자신의 어머니에게만 이상하게 보인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 인간의 사명에 관한 숙고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은 한 사람, 햄릿의 삶의 소명인 반면, 체홉에게 그것은 모든 평범한 인텔리의 작업이다.”¹⁴⁾

중심적 사건의 발생에 있어서 무대 위에서 소요되는 장치가 기능하는지의 여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햄릿』에서 극적 장치인 ‘독을 바른 칼’

12) 징게르만 “체홉 드라마에서 물질적 세태의 정신으로의 침투는 생리적인 모티프로 표현된다. 일상적 주인공들에게서 영적 단초가 사라지면서, 그들의 일상적 요구가 집적된 몸이 확장되고, 중요한 지위를 획득한다. 관념과 자연, 미와 유리된 인간, 일상과 하나가 된 인간은 자신의 몸과 일체가 된다.” ‘사람들은 사물과 관계하고 놀지만 가끔 사물이 그들을 놀릿감으로 삼는다.’

13) 빠로빠는 먹는 행위가 유머문학과 풍자문학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하면서 먹는 것을 희극적으로 묘사한 러시아 작가로 체홉을 꼽는다.

14) 징게르만은 체홉 드라마의 특징이 모든 등장인물이 똑같이 주목받고, 말을 하는 권리를 가지는 민주성에 있다고 말한다. 또한 전통극과는 달리 사건을 정반대의 성격으로 전환시키는 사태의 급변이 아니라 분위기의 전환에 있다고 지적한다.

은 햄릿과 레어티즈 그리고 클로디어스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며, 사건(죽음)의 계기로서 사물의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 한편, 위에서 살펴보았듯 체홉 드라마에 등장하는 많은 사물들은 본유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다. 체홉 드라마에서 슈제트가 극적인 사건으로 치닫지 못하고, 흐름이 옆으로 세는 이유 중 하나가 사물의 기능하지 않음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벚꽃 동산』에서 모든 사물이 제 본유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때 본유적인 기능을 하는 사물은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이분하여 드러내거나 체홉 드라마의 비극적 정조, ‘삶의 에너지가 고갈된 지친 분위기’ 즉, 드라마의 비극적인 분위기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한다.

등장인물 중에서 로빠힌은 벚꽃 동산의 매각으로 치닫는 시간의 진행 속에서 유일하게 급박함을 인지하고, 날짜가 곧 다가온다는 사실의 급박함을 느끼는 유일한 인물이다. “결심해야 합니다.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8월 22일에 벚꽃 동산이 팔릴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나 ‘당장’, ‘떠날 때가 됐으니’ 등 시간적 표지에 해당하는 말은 등장인물 중 로빠힌만 사용하며, 이러한 사실은 그가 유일하게 ‘시간적인’ 인물임을 지시한다. 이러한 로빠힌의 특징적인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극 중 내내 시계를 쳐다본다(‘시계를 보고’)는 것이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기능과 로빠힌이 시간에 쫓기고 급한 성격을 지시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반대로 ‘시계 없음’은 발전이나 성장, 혹은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 없음을 지시한다. 나머지 등장인물들의 행위의 결과로 어떤 것도 파괴되거나 만들어지지 못한다. 벚꽃 동산이 팔릴 예정이라는, 1막에서 공지된 운명은 그대로 집행된다. 그들은 현재에 없고 과거에만 있기 때문에 현재를 개선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이처럼 시계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현재형의 인간 로빠힌과 나머지 과거의 인간들로 이분한다. 물론 시계라는 장치가 극 중에서 일어나는 결정적인 사건(벚꽃 동산의 매각)에 직접적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곧 로빠힌의 정서와 대사를 통해 다가올 파국의 시간을 지시하고, 분위기를 전환시키는데 기여한다. 체홉 드라마에서는 전통극과는 달리 사건보다는 분위기에 방점에 찍혀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시계는 분위기를 전환시킴으로서 드라마 전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막의 배경에는 어떤 사물이 위치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무덤이나 낡은 예배당 등 낭만주의 작품에서 비극적인 정조를 강화시키는 사물들이 등장

한다.

들판. 오랫동안 방치된, 낡고 굵은 예배당. 그 옆에 우물과 낡은 벤치와 예전에는 묘비였으리라 짐작되는 커다란 돌이 있다. 가예프의 영지로 통하는 길이 보인다. ... 멀리 전신주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보다 더 멀리 지평선 위에 대도시가 희미하게 보인다. 그러나 대도시는 아주 맑게 갠 날에만 보인다. 해가 곧 지려고 한다. (220)

가예프의 영지로 통하는 길이 보이는 곳에는 낡고 굵은 예배당과 묘비가 자리한다. '80년대의 사람'인 가예프가 벚꽃 동산이 팔려나가는 것을 관망하며,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이나 결말에서 벚꽃 동산의 나무가 배어짐으로서 과거 시대의 종결이 고해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낡은 예배당과 묘비는 인물의 실존을 지시하며 최종적 사건의 복선을 담당한다. 또한 공간 자체도 분리되고 있다. '아주 맑게 갠 날 날에만 보이'지만 '해가 곧 지려고 하는' 극 중 시간은 대도시와 등장인물들이 위치한 영지를 완전히 분리시키는데, 이는 그들의 공간이 역동적으로 발전해 가는 현재의 공간, 곧 대도시와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지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유적인 기능을 하는 사물들은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유적인 기능을 하며 상징의 역할을 도맡는 사물들은 드라마 전체의 비극적인 파토스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II.2. 소리

II.2.1. 소음으로서의 말

야콥슨의 언어의 커뮤니케이션 모형 중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전언(message)이다. 전언은 개념의 내용과 세계와의 의미론적 관계를 조성하며, 언어(기호)의 기능을 구성한다.¹⁵⁾ 전언의 의미가 반드시 언어적으로 구성될 필요도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 의미를 가질 필요는 있다. 이때 『벚꽃 동산』에서 발화되는 인물들의 말(기호)은 전언의 기능이 축소되어 있는 것처럼

15) 로만 야콥슨·모리스 할레, 『언어의 토대: 구조기능주의 입문』, 박여성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9, 119쪽.

보인다. 이와 더불어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 언어전달에 관여하는 요소 중 하나인 맥락(context)이 등장인물들의 말에서 부재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하여 극 중에서 부실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노출되는 것이다. 대화의 수신자는 발화자의 말을 안 듣거나 이해하지 못하며, 그 결과 발화자는 독백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극 중의 표지가 ‘사이(пайза)’다. 4막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로빠힌과 바라의 대화를 보라.

로빠힌 뭘 찾고 있죠?

바라 내가 직접 챙겨 놓고도 생각이 안 나는군요.

사이.

로빠힌 이제 당신은 어디로 갈 겁니까, 바르바라 미하일로브나?

바라 저 말인가요? 라굴린 댁에..... 그 집 일을 돌봐 주기로 했어요..... 가정부 일을 맡이죠.

로빠힌 야슈네보로 가는군요? 70베르스파 떨어진 곳이죠.

사이

로빠힌 그럼 이 집에서의 생활도 끝나는군요.....

바라 (짐을 들춰 보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트렁크 속에 넣었을까.....? 그래요, 이 집에서의 생활은 끝나는 거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263-263)

이 장면은 둘 사이에 약혼식이 물 건너가고, 벚꽃 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바라가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하는 와중에 일어난 대화이다. 바라의 심란한 심경은 물건을 챙겨놓고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찾는 행동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바라의 행동에 로빠힌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¹⁶⁾ 그래서 로빠힌은 바라에게 행선지를 묻는 것이다. 이 대사 가운데에 자리

16) 로빠힌이 한 말, “매일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매일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벚꽃 동산도 땅도 별장 용지로 임대해야 합니다”에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등장인물의 모습이 응축적으로 나타난다. 극 중에서 대화의 수신자는 발신자가 없는 양 반응하기도 한다.

한 것이 ‘사이’인데 2-3초 간의 정적은 로빠힌이 바라를 도와주는 동작으로 채워지지 않는, 행위와 말이 멈춰있는 시간이다. ‘사이’를 두고 대화가 엇나가는 상황이 노출된다. 발음되는 소리 자체 외에 이 둘 사이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발화자인 로빠힌의 말은 근본적으로 맥락이 없는 잉여적인 말이기 때문이다. 그 뒤를 이어 로빠힌이 ‘이 집에서의 생활도 끝나는군요’라고 하는 말도 극 중 맥락에서 잉여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연한 말이기 때문이다.

인용된 대화에서 어떤 비극적 분위기나 바라의 복잡한 심경을 감지할 수 있다면, 그 지점은 유효한 대사의 내용이 아니라 행위로부터이다. 다시 말해 이 장면의 묘미는 말이 순수한 사물처럼 떠돈다는 것과 그 사이에서 바라가 짐을 들춰보는 행위이며, 여기에 비극적인 상황과 바라의 심란한 심경이 자리한다. 이런 맥락에서 로날드 헤이먼은 『벚꽃 동산』을 읽는 독자가 관심을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변화나 분위기라고 말했던 것이다.¹⁷⁾

극 중에서 말의 전언 기능이 축소되었음은 예뻘호도프의 말에서 회화적으로 드러난다. 그의 장광설(“오늘 아침만 해도 잠에서 깨어나 보니 내 가슴 위에 커다랗고 무시무시한 거미가 올라와 있지 않겠어요.....이만한. (두 손으로 크기를 나타내 보인다) 크바스라도 마시려고 하면 컵에 바퀴벌레같이 혐오스러운 게 있단 말입니다.” (222))은 대화의 맥락에서 벗어나 있으며, 의미도 없다. 오히려 맥락과 관계없이 말을 많이 하는 그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비친다. 로빠힌과 바라의 대화 상황에서 그러하듯, 버클리를 읽어보았냐는 그의 헛소리는 ‘사이’로 둘러싸여 있다.

등장인물들의 헛소리는 로트만의 정의에서 ‘소음(шум)’과 가깝다. 연구자에 따르면 무질서나 엔트로피에 해당하는 “소음은 정보를 안 들리게 한다. 그것은 모든 형태의 파괴(청각적 방해에 의한 목소리의 소음화, 기계적 원인에 의한 책들의 파괴, 검열자의 방해에 의한 책들의 왜곡 등)이다.”¹⁸⁾ 벚꽃 동산에서 유용한 정보, 가령 로빠힌의 경매 소식은 주위 등장인물들의 소음과 계속해서 섞이며 방해받고 있다.¹⁹⁾ 내용이 텅 빈 혹은 언술로서

17) 로날드 헤이먼, 『희곡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만수 옮김, 현대미학사, 1995, 131-134쪽.

18) 유리 로트만, 『예술 텍스트의 구조』, 유재천 옮김, 고려원, 1991, 119쪽.

19) 로트만은 예술 체계 안에 자리잡을 때 정보로 변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치

의 역할을 하지 않는 말은 곧 기능하지 않는 사물에 다름아니게 되며, 물질이 된다.

극 중에서 말이 똑같이 반복되곤 하는데, 이러한 말의 반복적인 발화²⁰⁾는 말이 의미론적인 지배력을 잃어버리고 뜻 없는 소음, 혹은 물질로서의 말로 굴절되게끔 종용한다. 가령 빠시치크의 말은 소음에 근접한다. 파리에서 돌아온 류보비에게 갑자기 저당물에 대한 이자 240루블을 달라고 요청한 빠시치크는 3막에서도 류보비와 왈츠를 추면서 180루블만 빌려 달라고 요청한다. 빠시치크의 돈벽은 벚꽃 동산이 팔리고, 가예프가 사람들이 떠나는 와중에도 드러난다. 이처럼 드라마가 진행되는 내내 빠시치크는 상황과 관계 없는 돈 얘기를 반복해서 꺼낸다. 숫자에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다. 관객에게 들리는 것은 숫자가 발음되는 소리 자체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체홉이 말의 전언 기능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를 두고 박현섭은 체홉이 뜻 없는 소리의 극적 가능성을 자각하고 의식적으로 사용했던 최초의 러시아 작가라고 정의 내리면서 벚꽃 동산에서 관객이 즐겨야 하는 것은 극적 모티프보다는 "그 모티프를 핑계로 하여 사람과 사물이 내는 소리의 유희인지도 모른다"²¹⁾고 쓴다. 이 소음들은 중요한 정보를 흐트러트리고, 주요 사건과의 모순과 불일치를 조장하며 희극성을 낳는다. 다음 장에서는 자체가 물질인 소리, 말소리도 아닌 음향의 기능에 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II.2.1. 비극성을 구축하는 소리

근본적으로 비언술적인 소리는 양적으로 체홉 드라마를 매우고 있다. 샤를로따가 오이를 씹는 소리, 가예프가 입에서 사탕 굴리는 소리 등 사람이 내는 소리를 비롯해 기타 소리, 유대인 악단의 음악 소리, 마차가 짐을 끄는 소리 등 사물이 내는 드라마 곳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소리들은 드라

지 않는다. 체홉 드라마에서 소음은 대화되지 않음이라는 극 중 상황을 관객에게 전달한다.

20) 로트만은 똑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될 때 생기는 심리적 효과가 의미론적 의의를 약화라고 보았다. 유리 로트만(1991), 135쪽.

21) 박현섭, 『『벚꽃 동산』에서의 소리에 관하여』,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1집, 1995, 269쪽.

마에 특별한 정서를 조장하거나 사건 혹은 분위기의 계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소음 중에서 인물 사이의 말보다 더 큰 의미론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소리가 있다. 그것은 '줄 끊어지는 소리'다. 이 줄 끊어지는 소리는 일상을 수놓는 다른 소음들과는 달리 드라마의 비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것은 일상의 소음과 헛소리 사이에 투입하고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불길함을 느끼게 만든다.

모두, 생각에 깊이 잠겨 앉아 있다. 정적. 피르스의 웅얼거리는 소리만 들린다. 그때 갑자기, 마치 하늘에서 울리듯 멀리서부터 줄 끊어지는 소리가 구슬피 울리고 나서 잦아든다.

류보비 안드레예브나 무슨 소리지?

로빠힌 글썽요. 어디 멀리 광산에서 양철통이라도 떨어졌나 봅니다. 어딘지 먼 곳 같군요.

가예프 어찌면 어떤 새가..... 황새 같은 새가.....

프로피모프 아니면 올빼미일지도 모르죠.....

류보비 안드레예브나 (몸서리친다) 어쩐지 기분이 나빠 (232)

‘어디 멀리’서 들려오는 이 소리 이후로 피르스는 농노 해방이라는 불행에 대해서 말하고, 류보비는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한 자리에 모였던 등장인물들은 동산을 하나 둘씩 떠난다. 2막의 주된 내용이 동산에 모여서 헛소리를 떠드며 노는 것이라고 한다면, 줄 끊는 소리는 이 놀이를 중단하고 인물들을 해산한다.

줄 끊는 소리는 드라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소리이기도 하다. 이 소리는 구슬피 우는 소리라고 지시되어 있으며, 벚꽃 동산이 도끼질 당하는 소리와 함께 울리며 비극적인 심상을 강화한다.

마치 하늘에서 울리듯 멀리서부터 줄 끊어지는 소리가 구슬피 울리고 나서 잦아든다. 정적. 동산 멀리서 나무에 도끼질하는 소리가 들릴 뿐이다. (268)

체홉 드라마에서 사건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바뀌는 계기는 이와 같은 식으로 음향인 것으로 드러나며 주로 비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III. 결론

본고는 체홉의 드라마 『벚꽃 동산』의 말과 사물들을 조명하면서 그 기능이 드라마의 희극성 내지 비극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분석했다. 말과 사물은 본유적인 기능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분될 수 있었고, 각각 드라마의 비극적인 분위기와 희극적인 분위기 구축에 기여했다.

하나의 극-텍스트는 본래 희극으로도, 비극으로도 연출될 수 있고 이 특징이 드라마라는 장르를 정의한다. 그러나 체홉의 드라마 『벚꽃 동산』은 본유적으로 비극적인 세계와 희극적인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체홉 드라마의 전체성을 증거한다. 말과 사물들은 희극적이거나 비극적인 분위기 어느 한 상태에 치우치게 만들지 않고, 공존하여 화음을 내게 만들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구이에 양리, 『연극의 본질』, 집문당, 1992.
2. 김규종, 『극작가 체호프의 희곡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아사, 2009.
3. 로트만 유리, 『예술 텍스트의 구조』, 유재천 옮김, 고려원, 1991.
4. 박현섭, 『『벚꽃 동산』에서의 소리에 관하여』,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1집, 1995.
5. 뿌로뿌 블라지미르, 『희극성과 웃음』, 정막래 옮김, 나남, 2010.
6.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천병희 옮김, 문예출판사, 2002.
7. 야콥슨 로만·모리스 할레, 『언어의 토대: 구조기능주의 입문』, 박여성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9.
8. 에슬린 마틴, 『드라마의 해부학』, 한양대학교 출판원, 1972.
9. 체호프 안톤, 『희곡선집: 벚꽃 동산』, 오종우 옮김, 열린책들, 2009.
10. 헤이먼 로날드, 『희곡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만수 옮김, 현대미술사, 1995.
11. Зингерман Б. И. *Театр Чехова и его мировое значение*, М.: Наука, 1988.
12. Чехов А. П. *Пол. соб. соч. и пис. в 30-ти томах*, Т. 13. М.: Наука, 1986.
13. Фролов В. *Судьбы жанров драматургии*, М.: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1979.

Abstract

The Functions of Objects and Words in Chekhov's Drama *The Cherry Orchard*

Kim, Mu Gyeom
(Moscow State University)

This paper lies in the premise that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characterization of Chekhov's drama *The Cherry Orchard* originates from the nature of the drama genre that requires staging. Therefore, in this paper the origin of the tragicomedy of Chekhov's drama will be reconstructed by placing the object of analysis not on the drama-text itself but on the objects and words that function when staged.

Objects and words that appear in *The Cherry Orchard* can be divided into those that have a function and those that do not,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perform their inherent function. Objects that do not have an inherent function on stage are revealed as pure objectivity, creating internal inconsistencies and contradictions in the development of the drama, creating comedy. On the other hand, objects with inherent functions affect the psychology of the characters and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tragic mood of the drama.

In addition, words with a reduced message function are revealed as noise, disrupting the internal logic of the drama's development, promoting contradictions and inconsistencies with major events, and creating comedy. On the other hand, sounds that correspond to the characters' internal states create a tragic atmosphere in the drama.

The wholeness of Chekhov's drama *The Cherry Orchard*, in which the tragic world and the comic world coexist, is revealed only by illuminating objects and words.

Key words : Chekhov, *The Cherry Orchard*, Object, Word, Objectivity,
Noise, Sound

레르몬토프의 서사시 『악마』의 주인공 형상 연구

이 명 현*

국문 초록

서사시 『악마』는 소년 시절에 구상하여 10년 동안 개작을 거듭한, 시인 레르몬토프의 평생의 역작이다. 원고의 개작이 거듭되면서 주인공 악마의 형상도 여러 차례 변모하였고, 최종적으로 그것은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인간적인 특성과 사탄의 정체성을 함께 지니게 되었다. 『악마』의 주인공은 사악하고 잔혹하며 간교한 영혼, 그리스도교적 사탄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 독자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그들을 매혹시키는 비상한 아름다움과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악마 형상의 지배소라고 할 수 있는 ‘슬픔’과 ‘추방’의 모티프를 통해서 악마의 인간적인 면, 특히 감정이 발현된다. 한편 우주적인 규모의 운신과 초월적인 권능에 의해서 타락 천사-사탄으로서의 정체성이 강조된다. 천국에서 추방된 악마는 고향-천상에 대한 그리움과 고독, 권태로 괴로워한다. 그는 그루지야 처녀 타마라와의 사랑을 통한 갱생을 시도하지만, 악의 창조자, 죽음의 화신으로서의 숙명으로 인하여 그의 소망은 좌절된다. 그는 타마라의 사랑을 얻어내자마자 파괴자의 본성에 의해 의도치 않게 그녀를 죽이고 만다. 희망도 사랑도 없이 홀로 남는 악마의 결말은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합당하지만, 미학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에서는 깊은 비극적 울림을 남긴다. 레르몬토프를 평생토록 놓아주지 않았던 악마의 형상은 자신의 창조자인 시인과 닮아있다. 천상에서 추방되어 카프카즈에서 배회하는 악마의 모습에는 카프카즈와 얽혀있는 레르몬토프의 전기적, 문학적 삶이 투영되어 있으며, 그가 구사하는 언어는 시인의 언어와 닮았다. 인간적이면서 초월적인 아름다움의 보유자인 악마의 아름다움은 무엇보다도 그가 쏟아내는 말의 아름다움이다. 사악하고 간교하지만, 너무나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그의 모습에서 독자들은 러시아 고유의 악마 형상을 접할 수 있다.

주제어 : 레르몬토프, 악마, 낭만주의 서사시, 카프카즈, 슬픔, 추방, 사탄

*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부교수, 3wall@korea.ac.kr

I. 서론

레르몬토프(М. Ю. Лермонтов)의 서사시-포에마 『악마(Демон)』는 그가 만 15세의 소년이었던 1829년부터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1839년까지 집필과 수정을 거듭하며 공을 들였던, 말 그대로 평생의 역작이었다. 그는 12년이라는 짧은 창작 생애 동안 미완성 작품을 포함하여 30편에 가까운 서사시를 남겼지만, 그중에서 『악마』 만큼 오래 매달리고 애착을 보였던 작품은 없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작을 거듭한 결과 8개의 본(本)이 남았고¹⁾, 레르몬토프 사후 한 세기가 넘는 기간에 이 서사시에 대한 비평의 상당 부분은 어느 버전을 원본으로 삼을 것이냐, 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어진 논쟁들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첨예했던 쟁점은 6차본인 이른바 ‘로푸히나 사본(список Лопухиной, лопухинская редакция)’²⁾과 8차본인 ‘필로소포프 사본(список Философова)’³⁾ 중 어느 것이 더 진정한 작가의 구상이냐, 라는 문제였다.⁴⁾

마지막 8차본에 덧붙여졌던, 검열과 고위층의 취향을 고려한 개작이라는 오명⁵⁾이 결국에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걷히고, 오늘날 독자들은 작가가

- 1) 『악마』는 작가 생전에 출간되지 않았기에 ‘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8종의 본(редакция)을 ‘1차본’, ‘2차본’ 등으로 칭하고자 한다.
- 2) 1838년 9월 8일로 날짜가 표기된, 작가가 연모한 여인 바르바라 로푸히나(В. А. Лопухина)에게 헌정한 원고로서 이 6차본을 시인은 공식적으로 출간하고자 준비했었다. 6, 7, 8차본은 필사본으로 널리 유포되었으며, 사본 작성자들은 자신의 사본에 더 좋은 부분들을 모으기 위해 종종 서로 다른 이본(異本)들을 짜집기하였다. 관련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Докусов А. “Поэма М. Ю. Лермонтова «Демон» (К вопросу об идейной концепции и основном тексте поэмы)”,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 4 (1960), С. 111-112; Журавлева А. И. *Лермонтов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 проблемы поэтики*, (Москва : Прогресс-Традиция, 2002), С. 157-158.
- 3) 1839년 2월에 황후를 비롯한 고위 인사들의 관심과 요청으로 『악마』의 원고가 궁정에 보내졌는데, 그 직전에 레르몬토프는 최종적으로 작품을 수정하였다. 시인이 마지막으로 수정한 원고를 그의 친척 필로소포프(А. И. Философов)가 필사하여 궁정에 제출하였고,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았다. 필로소포프에 의해서 1856년에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서사시의 러시아어판 출간이 최초로 성사되었다.
- 4) 『악마』의 1-8차본 원고들을 비교한 국내 연구로는 김정환, 『레르몬토프의 「데몬」 판본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 5) 실제로 레르몬토프는 검열을 의식하여 몇몇 시행을 삭제하였으나, 최종본 개작의 주된 동인은 작가의 새로운 구상과 사상이었다. 최종본에서 이루어진 주요 수정

1839년에 마지막으로 개작한 텍스트를 그의 최종적인 구상으로 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1839년에 레르мон토프가 『악마』 집필을 중단한 후에 ‘열정들의 노골적인 언어’와 ‘영웅적인 거인주의 시학’에 작별을 고하긴 했지만, 서사시의 마지막 원고가 그에게 악마 테마의 폐막은 아니었다.⁶⁾ 마지막 판본은 최후의 것으로 판명났을 뿐 서사시 창작의 진정한 완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⁷⁾ 주라블료바(А. И. Журавлева)의 지적대로 너무나 많은 의미적 층위들과 시인에게 절실하게 중요한 이념들, 그의 창작을 관류하는 모티프들, 애호하는 형상들이 통합되어 있었기에, 『악마』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열려 있는, 오래도록 지속된 과정이었다.⁸⁾

오랜 시간 동안 원고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형상 역시 변모를 거듭해 왔고, 최종본으로 갈수록 그것의 심오하고 복잡한 성격은 강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주인공 악마는 다분히 모순적이고, 다면적이며, 인간적이면서도 사탄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중요한 것은, 레르мон토프 창작의 주된 경향으로, 주인공의 형상이 작품의 강력한 지배소이자 구심이라는 사실이다. 악마의 형상에 대한 논의는 서사시 전체에 대한 비평과 거의 맞먹는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작품의 종교적, 형이상학적, 심리적, 미학적 층위는 모두 주인공의 해당 면면들과 직결된다. 본 논문은 작품 속에서 주제론과 철학 및 미학의 차원에서 심대한 비중을 차지하며 구성의 강력한 중심축으로 작용하는 주인공 악마의 형상을 분석함으로써 서사시 『악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악마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대립하는 인본주의적인 관점과 종교적-신화적 관점,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에서 악마의 형상을 고찰함으로써 해당 시각이 주인공에 관한 논의에서 대립하기보다는 양립해야 함을 확인할 것이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악마와 타마라 간에 오가는 독신(瀆神)적인 대화의 삭제; 타마라 사후의 얼굴에서 악마로부터 받은 영향의 흔적 삭제; 악마와 천사의 최후 투쟁과 전자의 패배라는 피날레의 장면 부기; 주인공 악마의 타마라를 상대로 한 발화 증대. Миллер О. В. “К истории изучения поэмы М. Ю. Лермонтова «Демон»: полемические заметки”, *Stephanos*. № 5 (13), 2015, С. 174-175 참조.

6) Найдич Э. Э., Роднянская И. Б. “Демон”, *Лермонтов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Москва :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81), с. 132.

7) Журавлева А. И. *Лермонтов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 проблемы поэтики*, С. 159.

8) Там же.

II. 본론

II.1. ‘슬픈 악마’, ‘추방의 영혼’

리드(R. Reid)는 레르몬토프 사후부터 20세기 후반까지, 벨린스키의 인본주의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접근법에서 출발하는,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악마 형상에 대한 비평의 큰 줄기들을 추적하면서 해당 경향들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먼저 소비에트 시대에 특히 주를 이루었던 『악마』에 대한 사회심리학적이고 알레고리적인 해석의 전통을 살핀다. 그러한 해석의 골자는 주인공 악마가 레르몬토프가 속한 세대의 특징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의 형상은 당대의 사회적 삶 속에서 상처 입은 불만스러운 사람들의 집합체를 구현하고 있으며, 레르몬토프는 자신의 주인공을 통해 무엇보다도 자기 세대의 저항적 분위기를 표현하였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악마와 신의 관계는 사회적 불의와 전제주의에 대한 알레고리일 뿐이라고 비평가는 지적한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현실의 측면에서만 궁극적으로 설명 가능한. 사회심리학적 접근은 결국 포에마의 사상과 시학을 손상시킨다는 게 리드의 입장이다.⁹⁾ 그가 문제삼은 또 다른 비평적 경향은 악마에 대한 철학적 접근으로 선과 악, 천상과 지상, 찰나와 영원, 천국과 지옥 등등 수많은 이율배반으로 구축된 악마의 발화와 형상을 헤겔적인 변증법의 상징적인 변형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리드에 따르면, 이러한 시각은 주인공의 정체성을 추상화하고 그를 철학적 대변인으로 전락시킨다.¹⁰⁾ 마지막으로 상기되는 비평적 관점은 메레쥬코프스키(Д. С. Мережковский)를 위시한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접근이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악마가 악의 근원인 사탄이나, 아니면 악의 산물이나 등등의 문제이며, 그러한 논의의 틀 안에서 악마는 악의 본질 혹은 현상의 의인화에 불과하다.

비평가의 이러한 비판적 논의의 바탕에는 악마를 그 어떤 사상이나 심리, 본질이나 현상의 알레고리가 아니라 영적인 개성으로 봐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고유한 영혼과 자아를 지닌, 하나의 독립된 주체, 즉 개성

9) Reid, R. "Lermontov's Demon: A Question of Identity",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60, No. 2, Apr., 1982, pp. 192-193.

10) Ibid., p. 194.

으로 접근할 때 악마 형상에서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인간적인 특성들이다. 에이헨바움(Б. М. Эйхенбаум)은 악마와 관련된 슈제트가 유럽문학에서 러시아의 토양으로 옮겨온 후, 그것은 밀턴 스타일의 종교적 서사시들과의 연관성을 잃게 되면서 신학적, 철학적 특성이 희석되고 훨씬 더 ‘원초적인 것’이 되었다고 본다.¹¹⁾ 그러한 슈제트의 러시아적인 변모 과정은 결국 악마 캐릭터의 보다 더 진전된 ‘인간화’를 동반한다. 레르мон토프의 서사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악마의 인간적인 면모는 서사시의 첫 행 — “Печальный демон, дух из гнания(슬픈 악마, 추방의 영혼)(I-I)”¹²⁾에서부터 제시된다. 악마에 대한 정의의 내리는 이 첫 행은 1829년 초고에 쓰인 이후 가장 완성도가 낮은 4차 본을 제외하고는 모든 원고에서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슬픈’, ‘추방’이라는 두 단어는 악마의 형상과 성격을 규정하는 지배소로서.¹³⁾ 특히 첫 번째 속성은 레르мон토프의 주인공을 유럽과 러시아의 문학적 선조들이 창조해낸 악마의 계열¹⁴⁾에서 제외시킨다.¹⁵⁾ ‘슬픈’ 모습은 레르мон토프의 악

11) Эйхенбаум Б. М. *Лермонтов: Опыт историко-литературной оценки* (Л.: Гос. и зд-во, 1924), С. 93-94. URL: <http://feb-web.ru/feb/lermont/critics/eich24/eich24.html> (검색일: 2023.11.30.)

12) 이하 『악마』의 원문 인용은 Лермонтов М. Ю. “Демон”,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4-х томах*, 2-е изд., Т. 2 (Л.: Наука, 1980)에 근거한다. 번역은 인용자의 것이며, 미하일 레르мон토프, 『악마』, 『우리 시대의 영웅』, 문석우 옮김 (서울: 한길사, 1991)을 참조하였다. 인용문 끝에 해당 부와 장을 괄호 안에 표기하기로 한다.

13) Журавлева А. И. *Лермонтов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 проблемы поэтики*, С. 159.

14) 『악마』의 문학적 원천으로 거론되는 유럽과 러시아의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밀턴(John Milton)의 서사시 『실낙원(Paradise Lost)』(1667), 클롭슈토크(Friedrich Gottlieb Klopstock)의 서사시 『구세주(Messias)』(1822), 바이런(George Gordon Byron)의 종교극 『카인(Cain)』(1821)과 『Heaven and Earth(천상과 지상)』(1821), 토마스 무어(Thomas Moore)의 서사시 『천사들의 사랑(The Loves of the Angels)』(1822), 드 비니(Alfred de Vigny)의 서사시 『엘로아, 혹은 천사들의 누이(Éloa, ou la Sœur des anges)』(1824), 주콥스키(В. Жуковский)의 변안시(클롭슈토크의 『구세주』의 두 번째 노래를 변안한 것) 『압바도나(Аббадона)』(1814), 푸시킨의 서정시 「악마(Демон)』(1823)과 「천사(Ангел)』(1827), 포돌린스키(А. И. Подолинский)의 서사시 『디프와 페리(Див и Пери)』(1827) 등등. 앞에서 언급했지만, 비평가들 중에서는 에이헨바움 같이 신학적인 층위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밀턴의 서사시와 레르мон토프의 『악마』 간의 연계를 부정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후대의 연구자들은 그의 서사시에서 밀턴적 층위의 중요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버전이 바빠에 따라 『실낙원』으로 직접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디테일들이

마를 성서적 원형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자질로서,¹⁶⁾ 독자들
로 하여금 슬픔의 감정을 품고 악마를 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악마 자
신이 슬픔을 느끼는 ‘인간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킨다.¹⁷⁾

실제로 악마는 주로 강렬한, 때론 미묘한 감정을 느끼는 캐릭터로
등장하며, 슈제트 전개의 동력 역시 그에게서 일어나는 극적인 감정의
발현과 변화이다. 1부에서 그는 결혼 피로연에서 춤을 추는 그루지야 여인
타마라(Тамара)를 보자마자 걱정애 사로잡히고[И Демон видел...На
мгновенье/Неизъяснимое волнение/В себе почувствовал он вдруг,(마침내
악마는 보았다.... 일순간/형언할 수 없는 걱정애/돌연 느꼈고.)(I-9)],
그에게서 절멸해버린 듯했던 감정이 되살아난다[Прикованный незримой
силой,/Он с новой грустью стал знаком;/В нем чувство вдруг
заговорило/Родным когда-то языком(보이지 않는 힘에 꼼짝없이
사로잡힌/그는 새로운 우수를 느끼게 되었다./갑자기 그의 내면에서
감정이/한때의 모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I-9)]. 그리고 2부에서 마침내
타마라가 있는 수도원으로 찾아간 그는 그녀의 독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려움’을 느끼며, ‘눈물’을 흘린다. 해당 장면에서 악마의 감정적 파장은
다시 한번 도약한다.

Тоску любви, ее волнение/Постигнул Демон в первый раз;/Он
хочет в страхе удалиться.../Его крыло не шевелится!/И, чудо! из

풍부하다고 지적되어 왔으며, 그러한 고찰은 밀턴과 클롭슈토크 류의 종교적
서사시의 전통에 『악마』가 편입되어 있음을 언급하게 해준다. Коровин В. Л. “О
библейских мотивах в лермонтовском «Демоне» в связи с его творческой историей
(от Байрона - к Мильтону)”, *Литературоведческий журнал* № 35 (2014), С. 20.

15) Николаева Е. Г. “«Печаль» / «Грусть» в поэме М. Ю. Лермонтова «Демон»”,
*Культура и образование: научно-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журнал вузов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 3(26) (2017), С. 45.

16) Там же.

17) 러시아적인 맥락에서 ‘슬픔’ 혹은 ‘우수’의 정서와 악마 형상의 연계는
푸시킨의 시 「악마」에서 연원한다고 볼 수 있다. 푸시킨의 다음 시행들을 보자:
“Часы надежд и наслаждений/Тоской внезапной осенью,/Тогда какой-то злобный
гений/Стал тайно навещать меня./Печальны были наши встречи(희망과 기쁨의
시절에/갑작스런 애수의 그림자를 던지며/그때 그 어떤 악의 화신이/남몰래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다./우리의 만남은 슬펐다.)” Пушкин А. С. *Сочинения в 3-х тт.*
Т. 1 (М.: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85), С. 296.

померкших глаз/Слеза тяжелая катится...

사랑의 우수, 그녀의 걱정을/악마는 처음으로 감지하였다./그는 두려움 속에서 물러나려 하는데.../그의 날개는 꿈쩍도 안 한다!/그런데 기적이다! 꺼져가던 눈에서/고통에 찬 눈물이 흘러내린다...(II-7)

여기서 악마의 두려움과 눈물은 타마라에 대한 연민의 발로임을 주목해야 한다. 이미 1부의 종결부에서 타마라의 꿈에 나타난 그는 남편을 잃고 절망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애수(тоска)에 연민으로 반응한다[И взор его с такой любовью,/Так грустно на нее смотрел,/Как будто он об ней жалел(지극한 사랑 담긴 눈길에/그녀를 가엾게 여기는 듯/너무도 슬프게 바라보았다)(I-16)].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간 그녀 앞에 또다시 그가 “두 눈에 슬픔을 가득 담고서” 꿈속의 환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지극한 연민은 악마의 눈물의 진정성을 말해주며, 눈물은 솟구치는 걱정 of 진실함의 증거이다.¹⁸⁾ 연민에서 비롯된 슬픔과 눈물은 깊이 잠들어 있던 악마의 윤리적 자아가 중요하고 깨어남을 의미한다. 이제 “사랑할 준비가 된” 그는 “선(добро)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그녀의 방에 들어간다.

악마의 감정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그의 말-발화이다. 에이헨바움이 지적하듯이, 그것은 ‘감정적 레토릭’으로 특징지어진다.

『악마』의 말에는 푸시킨의 포에마를 남다르게 만드는 간절함도 예리한 정확성도 없으나, 러시아 시의 고전주의 시대의 잔재에서 생겨난 게 분명한 감정적 수사의 광채가 있다. 레르мон토프는 마치 그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듯한 공식들로 쓴다. (...)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감정적 효과이다. 그는 마치 의미론적인 혹은 통사

18) 니콜라예바(Е. Г. Николаева)는 레르мон토프의 악마가 흘리는 눈물을 드 비니의 서사시 『엘로아 혹은 천사들의 누이』에서 천국에서 추방된 사탄이 천사 엘로아 앞에서 흘리는 눈물과 비교한다. 후자는 유혹자의 거짓된 눈물이었지만, 예수의 눈물에서 태어난 천사 엘로아에게 경악과 연민을 불러일으켰고, 그녀로 하여금 사랑으로 추방자를 구원하고자 그와 함께 지옥으로 향하게 만든다. 사탄의 눈물은 가식적이었지만 엘로아의 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은 깊고 순결했다. 그러한 연민으로서의 사랑을 구현한 드 비니를 레르мон토프는 자신의 선조라고 칭한 바 있다. Николаева Е. Г. “«Печаль» / «Грусть» в поэме М. Ю. Лермонтова «Демон»”, С. 43, 49. 드 비니의 서사시에 관해서는 도미니크 랭세, 『프랑스 19세기 시』, 강성욱, 황현산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59-60쪽을 참조하라.

론적인 디테일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전체로부터 인상만을 찾고자 하는, 발빠른 독자들을 예정하고 있는 듯하다. 단어들과 어구의 의미론적인 토대는 흐려지기 시작한다. 그 대신 그것들의 선언적인 (음성적이고 감정적인) 뉘앙스가 미증유의 섬광으로 번쩍이기 시작한다.¹⁹⁾

감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레르мон토프는 틀에 박힌 모티프와 서정적 공식 및 클리셰의 남용을 주저하지 않는다.²⁰⁾ 대표적인 예로 19세기 러시아 문학에서 아주 흔하게 다뤄진 ‘사랑을 통한 갱생’의 모티프를 꼽을 수 있다. “온갖 종류의 서정적 공식과 반정립으로 포화되어 있는”,²¹⁾ 타마라에게 쏟아놓는 악마의 말은 형식상으로만 대화일 뿐 사실상 열렬한 고백이자, 웅변이고 선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 ‘자신의 전사(前史)’, ‘사랑의 고백’, ‘맹세와 유혹’으로 이루어진 그의 발화 가운데 감정적인 깊이와 진정성이 남다른 부분은 과장된 맹세와 간교한 유혹의 말들보다는 진솔한 고백의 말들이다. 무엇보다도 끝없는 고독과 권태,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 사랑과 연민을 통해서 갱생하고자 하는 열망의 토로가 그 에 해당한다.

О! выслушай — из сожаленья!/Меня добру и небесам/Ты
возвратить могла бы словом./Твоей любви святым покровом/Одетый,
я предстал бы там,/Как новый ангел в блеске новом;

오! 연민을 품고서 들어보아라!/너는 말 한마디로 나를/선과 천
상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나는 네 사랑의 성스러운 덮개를/쓰고서
거기에 나타날 것이다,/새로운 광휘를 두른 새로운 천사처럼.
(II-10)

19) Эйхенбаум Б. М. *Лермонтов: Опыт историко-литературной оценки*, С. 97.

20) 에이헨바움에 따르면, 악마의 말은 감정적인 반정립과 반복과 병치, 리듬-어조의 에너지로써 힘을 발휘하는 공식들에 의해 움직인다. 시행의 멜로디와 선율의 치밀한 조직 또한 특징적이다. 가령 Невыразимое смятенье, Неотразимую мечтой, Не человеческой слезой, Несокрушимый мавзолей, Невыносимого мученья, Недостигаемых утех와 같은, 유사한 형태와 구문의 어구가 반복되면서 일정한 리듬이 창출되는데, 그것은 의미론을 흐리게 하고 감성적-음성적-선율적 인상에 집중하게끔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Там же, С. 97-101을 보라.

21) Там же, С. 98.

Я отрекся от старой мести,/Я отрекся от гордых дум;/Отныне
яд коварной лести/Ничей уж не встревожит ум;/Хочу я с небом
примириться,/Хочу любить, хочу молиться,/Хочу я веровать добру.

나는 오랜 복수를 단념했고/오만한 상념들을 버렸다./지금부터
교활한 아첨의 독은/그 누구의 이성도 불안케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천상과 화해하고 싶고,/사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선을
믿고 싶다.(II-10)

두 번째 인용문에서 ‘хочу’는 주인공 악마의 전형적인 화법대로, 네 차례 반복되는데, 여기서는 반복을 통해 갱생에의 강한 열망과 지향, 의지가 표명된다. 그러한 열망이 강조된 만큼이나 그것의 좌절은 더 짙은 비극성을 띠게 된다.

이제 악마 형상의 두 번째 지배소인 ‘추방’의 모티프에 대해 살펴보자. ‘추방’은 명백히 낭만주의적인 코드로서 ‘동방 이야기(Восточная повесть)’²²⁾라는 부제와 “그의 드높은 이마에는/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И на челе его высоком/Не отразилось ничего,)”라는, 푸시킨의 『카프카즈의 포로(Кавказский пленник)』에서 가져온 I부 3장의 마지막 행들²³⁾과 함께 즉각적으로 주인공 악마를 낭만주의 시학의 틀 안에서 이해하도록 이끈다. 그런데 여기서 상기해야 할 것은 ‘추방’과 관련된 낭만주의의 일반적인 맥락이 아니라 레르мон토프적인 낭만주의의 맥락이다. 레르мон토프의 악마는 천국에서 추방된, 타락한 천사 사탄과 마찬가지로 오만하고, 사악하고 간교하며, 지능이 뛰어나고, 강대한 권력과 지배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전자와 달리, 본원적인 고향이었던 천국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으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사탄 역시 추방된 자로서 괴로워하지만, 그것은 퇴출되고 소외된 자로서의 자신의

22) 이 부제는 근동지역(튀르키예)이 공간적 배경이 되는 바이런의 연작 서사시의 명칭 ‘Eastern Tales’에서 따온 것이다. 『이단자(The Giaour)』, 『아비도스의 신부(Bride of Abydos)』, 『해적(Corsair)』 등 1813~1816년에 발표된 서사시들이 해당 연작에 속한다. 『악마』에서 매복한 오세트인들의 습격, 한밤중에 벌어지는 주인공의 여주인공 방문, 관 속의 죽은 여주인공에 대한 장황한 묘사, 여주인공의 매장 장면 묘사, 구달 집안의 유적과 여주인공의 무덤에 대한 최종적 서술 등은 바이런의 ‘동방 이야기’에 빚진 대목들이다. Shaw Joseph Thomas, “Lermontov’s Demon: An eastern tale”, *Bulletin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Slavic and East European Languages*, Vol. 8, No. 3 (March 15, 1951), p. 42.

23) Эйхенбаум Б. М. *Лермонтов: Опыт историко-литературной оценки*, С. 94-95.

처지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인간이 자신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사실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에서 비롯된다.²⁴⁾ 반면에 레르몬토프의 악마는 인간의 지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이 천국에 속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로 괴로워한다. 서사시는 바로 그 시절에 대한 추억으로 시작된다.

Печальный Демон, дух изгнания,/Летал над грешною землей,/И лучших дней воспоминанья/Пред ним теснились толпой;/Тех дней, когда в жилище света/Блистал он, чистый херувим,/Когда бегущая комета/Улыбкой ласковой привета/Любила поменяться с ним,/(...)/И много, много... и всего/Припомнить не имел он силы!

슬픈 악마, 추방의 영혼은/죄 많은 지상 위를 날아다녔고,/좋았던 날들의 기억이/그의 눈앞에 무리 지어 몰려들었다./빛의 거처에서/순결한 지품천사,/그가 빛났던 시절,/질주하는 혜성이/다정한 미소로 그와/인사 나누기를 즐기던 때,/(...)/그밖에도 또 수많은 것들... 그 모든 것을/기억해낼 기력이 없었다! (I-1)

되돌아갈 수 없는 이상세계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 — 이는 레르몬토프의 낭만주의를 관류하는 주된 테마 중 하나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의 서정시 「천사(Ангел)」(1831)가 그러한 테마가 구현된 대표작이다. 거기서 서정적 자아인 ‘어린 영혼’은 천사에 의해 천상에서 ‘비애와 눈물의 세상’인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천상에서 들었던 천사의 노랫소리가 그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는다. 그리하여 “신비한 갈망으로 가득 찬 채” “영혼은

24) 사탄의 이야기가 기록된 구약의 외경 『아담과 하와의 생애』에는 다음과 같은 사탄의 분노 가득한 탄식이 나온다: “오 아담아! 내 모든 적개심과 질투와 슬픔이 너로 인한 것이다! 너 때문에 내가 쫓겨났으며 하늘의 천사들 사이에서 누리던 나의 영광을 박탈당했다. 바로 너 때문에 땅 위로 내쫓겼다!” 결국 사탄은 자신들이 영광을 상실한 데 대한 복수심과 질투심으로 하와를 기만하여 인간이 낙원에서 쫓겨나게 만든다: 송혜경, 『사탄, 악마가 된 고발자』(서울: 한남서서연구소, 2019), 57쪽. 밀턴의 『실낙원』에서도 사탄은 1권에서는 자신들의 힘으로 “분리된 제국”을 만들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선포하지만, 4권에서는 천국의 공동체에서 격리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절망하고 탄식한다: 서홍원, 「성찬과 탐욕 사이에서 — 사탄의 파문과 밀턴의 우주관」, 『인문언어』 제24권 1호(2022), 77쪽을 보라. 『실낙원』 외에도 밀턴의 동시대 종교 문학에서 사탄의 절망이 묘사되고 있다. 관련하여 권영탁, 「사탄의 반역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본 밀턴의 예술성」, 『동서비교문학저널』 57 (가을 2021), 41-43쪽을 참조하라.

오래도록 세상에서 괴로워했다.”²⁵⁾ 기억 속에는 남아 있으나 결코 다시 들을 수 없는 그 노래는 천상으로 다시는 복귀할 수 없는 어린 영혼에게 영원히 위로받을 수 없는 비애와 해소되지 않는 그리움을 숙명처럼 안겨 준다. 서사시의 주인공인 추방당한 영혼이 다름 아닌 ‘슬픈’ 악마인 이유 역시 동일하다. 천국에 대한 기억은 ‘어린 영혼’에게도 그랬듯이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Я шумно мчался в облаках,/Чтобы в толпе стихий мятежной/Сердечный ропот заглушить,/Спасти от думы неизбежной/И незабвенное забыть! (나는 구름 속을 요란하게 질주했다,/반란의 자연력의 무리 속에서/마음의 설레임 가라앉히고자/집요한 상념에서 벗어나고자,/그리고 잊지 못하는 것 잊고자!)(II-10)].

추방당한 악마의 슬픔과 고통의 또 다른 원인은 고립과 소외이다. 그는 하느님의 저주가 이루어지자마자 자연으로부터 버림받고[Лишь только божие проклятье/Исполнилось, с того же дня/Природы жаркие объятья/Навек остыли для меня;(하느님의 저주가/이루어지자마자, 그날부터/자연의 뜨거운 포옹은/나에게서 영원히 식어버렸다)(II-10)], 예전에는 동료들이었던 별들과, 함께 추방된 천사들로부터도 소외된다[(...) прежними друзьями,/Я был отвергнут; как Эдем,/Мир для меня стал глух и нем(옛 친구들에 의해서/난 배척당했다. 에덴처럼/세상은 나에게 공허하고 적막해졌다)(II-10)].

『악마』에서 추방의 테마는 필멸의 여인과의 사랑을 통한 영적 갱생의 시도와 실패라는 슈제를 통해서 변주된다. 타마라는 악마의 눈에 띄자마자 그에게 ‘옛 동료들’과 ‘예전의 행복한 꿈’, 천상에 가득했던 ‘사랑, 선, 아름다움’을 상기시킨다. 그렇게 천국과 천사들을 떠올리게 만든 그녀를 악마는 ‘내 지상의 천사(ангел мой земной)’라고 부른다. 타마라는 ‘천사들의 누이’인 드 비니의 엘로아를 닮은 캐릭터로서, 악마를 ‘간교한 영혼(дух лукавы

25) 시 전문은 다음과 같다: По небу полуночи ангел летел/И тихую песню он пел;/И месяц, и звезды, и тучи толпой/Внимали той песне святой./Он пел о блаженстве безгрешных духов/Под кущами райских садов;/О боге великом он пел, и хвала/Его непритворна была./Он душу младую в объятиях нес/Для мира печали и слез,/И звук его песни в душе молодой/Остался — без слов, но живой/И долго на свете томила она,/Желанием чудным полна;/И звуков небес заменить не могли/Ей скучные песни земли. Лермонтов М. Ю.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4-х томах*, 2-е изд., Т. 1 (Л.: “Наука”, 1980), С. 49.

й)’이라고 칭하면서 경계하고 두려워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수난자(страдалец)’로 여기고 연민을 표한다. 신에게 저주받고 천국에서 추방당했으며, 동료들로부터 배척당한 악마는 그녀로 인해 사랑과 교감에의 원초적인 열망에 사로잡힌다. 그러한 그의 형상은 사탄적이기보다는 인간적이다.

악마의 사랑을 받아들이자마자 타마라는 죽고 만다. 그녀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수호천사와의 마지막 대결에서 악마는 패배한다. 갱생의 유일무이한 가능성을 잃은 악마는 또다시 예전처럼 적막한 우주 속에 ‘희망도 사랑도 없이’ 외톨이로 남는다. 타마라의 죽음은 그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으며,²⁶⁾ 그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 그에게 주어진 파괴자의 역할에 의한 것이었다.²⁷⁾ 주라블료바의 정당한 지적대로, 서사시의 피날레에서 악마는 극복할 수 없는 운명의 힘, 그 자신보다 훨씬 강력한 힘의 희생물이 된다.²⁸⁾ 그러한 점에서 악마는 레르몬토프의 낭만주의가 일관되게 제기하는 인간-실존의 궁극적인 문제, 운명의 테마를 구현한다.

II.2. ‘사악한 영’, ‘지옥의 영’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서사시 원고가 수정되어 감에 따라 주인공 악마의 모습도 바뀌었다. 대체로 그러한 변화는 인간적 속성의 증폭보다는 악의 창조자로서의 악마의 실체를 드러내는 쪽으로 진행되었다..²⁹⁾ 결정적인 전환은 6차본에서 이루어졌다. 초기본에서는 신비한 아름다움이 주를 이루었던 악마의 형상이 1838년 9월, 카프카즈 유형에서 돌아온 후 개작한 6차본 이후로 ‘엄청난 위력’과 ‘극도의 오만함’을 지닌 캐릭터로 변모한다.³⁰⁾ 해당본 이후 악마의 형상은 성서적인 사탄-악령의 모습에 근접하게 된다. 같

26) 초기본에서는 악마가 자신이 아니라 천사를 사랑하는 타마라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녀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실행에 옮긴다. 6차본에서부터 타마라의 죽음은 그가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그려진다.

27) Найдич Э. Э. Роднянская И. Б. “Демон”, С. 131.

28) Журавлева А. И. *Лермонтов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 проблемы поэтики*, С. 172.

29) Reid, R. “Lermontov’s Demon: A Question of Identity”, p. 198.

30) Докусов А. “Поэма М. Ю. Лермонтова «Демон» (К вопросу об идейной концепции и основном тексте поэмы)”, С. 111.

은 해 12월에는 작가가 자기 자신을 악마와 노골적으로 동일시하는 시행들을 수반하며, 헌정 대상에 대한 내밀한 고백이 담긴 헌사가 삭제되는데,³¹⁾ 이는 원고가 시인 자신과 주인공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쪽으로 진화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종적으로 악마는 작가 자신과 동시대인들의 초상을 반영하면서도 진정한 악령의 면면을 갖추게 된다.

인간이 아닌 ‘악한 영’으로서의 정체성은 무엇보다도 그의 공간적인 운신과 외모에서 두드러진다. 무한한 천공을 날아다니는 악마의 모습은 초월적 존재로서의 위용을 광대한 규모로 구현한다. 그의 공간 운행은 ‘영원한 안개’가 맴도는 ‘홀뿌려진 천체들의 공간’에서부터 그루지야의 산악지대까지 천문학적인 영역을 넘나든다. “러시아 시에서 공간, 높이, 비행의 위력, 비범하게 자유로운 공간적 상상력이 레르мон토프의 경우보다 더 명료하게 표현된 예는 없을 것이다”³²⁾라는 주라블료바의 진술은 고공과 카프카즈의 설산을 배경으로 한 악마의 비상 장면에 대한 매우 적절한 비평이다.

Синело предо мной пространство;/Я видел брачное
убранство/Светил, знакомых мне давно.../Они текли в венцах из
злата;/(...)/И стал бродить, как метеор,/(...)/И в страхе я, взмахнув
крылами,/Помчался (...)/(...)/Отрывок тучи громовой,/В лазурной
вышине чернея,/Один, нигде пристать не смея,/Летит без цели и
следа,/(...)/И скрылся я в ущельях гор;/И стал бродить, как
метеор,/(...)/В борьбе с могучим ураганом,/Как часто, подымая
прах,/Одетый молнией и туманом,/Я шумно мчался в облаках,
내 앞에서 공간이 푸르게 보였다./나는 오래전부터 익숙한 별들

31) 헌사의 다음 시행을 보라: “Как демон, хладный и суровый,/Я в мире веселился
злом...(냉정하고 준엄한 악마처럼,/나는 세상에서 악행으로 즐거워했소).”
Коровин В. Л. “О библейских мотивах в лермонтовском «Демоне» в связи с
его творческой историей: (от Байрона - к Мильтону)”, С. 21에서 재인용.

32) Журавлева А. И. *Лермонтов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 проблемы поэтики*, С. 16
4. 주라블료바는 또한 다음과 같이 악마의 비상에 대해 논평한다: “레르мон토프
의 악마는 추방당했다. 처음에 제시되는 이러한 모종의 절대적인 추방은 천국에
서 지옥으로의 추방이 아니라 유기적인 신의 세계질서로부터 허공으로의, 우주의
무한한 공간으로의 추방이다. 이로부터 서사시에는 우주의 시각적 퍼스펙티브로서의
심연, 별들의 카오스가 항상 존재하고, 하나의 바리안트에서 다른 바리안트로 갈수록
궁기, 바람-돌풍, 먹구름과 구름으로 이루어진 이리저리 뛰어나는 풍경의
촉감이 강해지고, 공간의 느낌, 날개와 비상의 느낌이 점점 더 커진다.” Там же, С. 162.

의/결혼식 장신구를 보았다.../그것들은 금관을 쓰고 줄지어 운행했다./(...)/그러고서 두려움 속에 나는 날개를 흔들고는/날아갔다./(...)/(...)/번개 치는 먹구름 한 조각/하늘 높은 곳에서 거무스름해지면,/혼자서, 그 어디에도 감히 머물 줄 모른 채,/목적도 자취도 없이 날아간다./(...)/나는 산의 협곡 속에 숨었다./그리고 유성처럼 배회하기 시작했다./(...)/강력한 태풍과의 전투에서/먼지를 일으키며, 얼마나 자주/번개와 안개에 휩싸인 채/나는 구름 속을 요란하게 질주했는지, (II-10)

이러한 초자연적인 공간 이동의 묘사는 카프카즈가 시인에게 남긴 인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카프카즈의 자연과 민속은 시인의 이념-미학적 체계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개성에 대한 관념에 영향을 끼쳤으며, 종교적-철학적 관념에도 영향을 주었다.³³⁾ 초월자로서의 악마 형상이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험준한 산과 협곡, 거센 강물이 펼쳐지는 유형지의 자연이 레르몬토프에게 불어 넣어준 상상력과 영감 덕분이었다.

한편 악마의 외모는 물리적인 구체성이 결여하기에 신비로움과 초월성이 부각된다. 언급되는 그의 형체의 일부는 이마, 곱슬머리, 날개에 국한되는데 그것들의 묘사는 전혀 구체적이지 않으며, 날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회적이다. 이들보다 더 부각되는 것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 비상한 눈길 혹은 눈초리, 그리고 그를 에워싸고 있는 안개이다.³⁴⁾ 그에 더해서 그의 자태에서 강조되는 것은 아름다움이다.

Пришлец туманный и немой,/Красой блистая неземной,/К ее склонился изголовью;/И взор его с такой любовью,/Так грустно

33) Коновалова А. Е. “Тема рока в кавказских поэмах Лермонтова”, *Литературоведческий журнал*, No. 20(2005), С. 16. 레르몬토프의 작품 가운데 카프카즈를 테마 혹은 배경으로 다룬 것들에 관해서는 문석우, 『레르몬토프의 문학에서 카프카즈 테마』, 『세계문학비교연구』, 48, 2014, 392-394쪽을 참조하라.

34) 다음의 해설을 참조할 것: “악마의 형상은 전체적으로 눈썹 만큼도 구체적이지 않으며, 그에 대한 유일한 묘사(안개에 휩싸인 말 없는 외래자...)는 그의 육신 없음과 형용 불가능성을 강조한다. 초기 본 중 하나에서는 악마의 검은 눈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그런 다음 그 디테일은 사라진다. 남는 것은 그의 눈이 아니라, 단검처럼 거역할 수 없는 시선이다”. Журавлева А. И. *Лермонтов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 проблемы поэтики*, С. 172.

на нее смотрел./Как будто он об ней жалел.

안개에 휩싸인 무언의 방문객이/초월적인 아름다움을 빔내며/그녀의 머리맡으로 고개를 수그렸다./지극한 사랑 담긴 눈길이/그녀를 가엾게 여기는 듯/너무도 슬프게 바라보았다.(I-16)

Сиял он тихо, как звезда;

그는 별처럼 조용히 빛났다.(II-2)

육신의 물성이 소거된 악마의 외형은 사악한 영적 존재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리고 사악함, 간교함, 잔혹함과 어울리지 않는 그의 아름답고 슬픈 형상은 그의 악령으로서의 자질을 역설적으로 부각시킨다.

그가 사랑에 의한 갱생을 통해 악령으로서의 정체성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이미 서사시의 초반부에서 부정된다. 춤을 추는 타마라를 보자마자 잊었던 감정과 ‘모국어’의 소생을 느끼는 악마는 유혹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듯이 보인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지는, “갱생의 징후였을까?/간교한 유혹의 말을/생각해낼 수가 없었다./잊을 수 있을까? 신은 망각을 허락하지 않았는데.../그는 잊지 못할 터이다!...(То был ли признак возрождения?/Он слов коварных искушенья/Найти в уме своем не мог.../Забыть? — забвенья не дал бог:/Да он и не взял бы забвенья!..)(I-9)”라는 시행은 그러한 기대에 일찌감치 회의적으로 답한다. 실제로 그는 ‘갱생의 징후’를 보인 후 즉시 타마라의 신랑을 죽여버린다. 피로연으로 향하던 신랑은 악마로 인해 미혹에 빠져 길가의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풍속을 무시했고[Его коварною мечтою/Лукавый Демон возмушал(간교한 악마가 교활한 꿈으로/신랑을 어지럽혔던 것이다)(I-11)], 그런 다음 약탈자 오세트인들에 의해 살해된다. 그러니까 악마의 사랑은 이기적인 욕망과 시기, 죄행에 기반한 것으로 애초부터 그것은 구원과 고향-천상으로의 복귀를 기약할 수 없었다.

악마는 타마라의 신랑을 죽인 후 그녀에게 ‘신비하고 새로운 음성’으로 나타나는데, 그의 영향력은 그녀에게서 뜨거운 정념 혹은 욕정을 유발한다[Восторга пыл — ничто в сравненье./Все чувства в ней кипели вдруг;/Душа рвала свои оковы,/Огонь по жилам пробегал,(환희의 열기 —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다./갑자기 온갖 감정이 끓어올랐다./영혼이 자신의 족쇄를 끊어버렸고,/핏줄 따라 불길이 퍼져갔다)(I-16)]. 악마의 출현으로 정념에 사로잡힌 이후로 타마라는 ‘죄 많은 여인(грешница)’으로 규정되고, 그녀의 생각과 몽상에는 ‘죄스러운(грешный, преступный)’, ‘부도덕한(беззаконный)’이라는 수식어가 달린다. 또한 악마 역시 ‘사악한 영(злой дух)’, ‘부정한 영(дух порочный)’이라고 규정된다. 악마가 그녀에게 출현한 순간부터 서술자는 그리스도교의 규범(canon)을 이념적인 시점으로 취하게 된다. 타마라 역시 해당 규범에 따라 악마를 ‘간교한 영혼(дух лукавый)’, ‘적(враг)’³⁵⁾이라고 칭하고, 자신을 ‘사악한 독의 희생양(жертва злой отравы)’으로 여기면서 속죄와 구원을 바라며 수도원으로 들어간다.³⁶⁾ 그리고 악마가 타마라를 만나러 수도원에 찾아오는 것은 ‘잔혹한 음모(умысел жестокой)’에 따른 것이라고 서술된다. 여기서 악마와 타마라의 관계와 둘의 운명은 이미 예고된다. 그는 그녀에게 간교한 유혹자, 잔혹한 가학자가 될 것이었다.

악마의 사악하고 불손하며 무시무시한 본성은 천사와의 대결에서 강렬하게 부각된다. 타마라의 독방에서 벌어진 첫 번째 대결에서 악마는 ‘부정한 영’으로의 정체성, 사악한 권능을 확연하게 드러내며 천사를 위압하고, 천공으로 내친다.

Ему в ответ/Злой дух коварно усмехнулся;/Зарделся ревностью
взгляд;/И вновь в душе его проснулся/Старинной ненависти
яд./Она моя! — сказал он грозно, —/(...)/Здесь я владею и
люблю!

그에 대한 응답으로/악한 영은 간교하게 웃었다./질투로 눈길
불타올랐다./또다시 그의 마음속에/해묵은 증오의 독이 깨어났다./

35) 사탄-악마는 인간과 하느님의 적이라는 관념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이념에 부합한다.

36) 라이드의 지적대로 ‘죄’에 대한 규범적 관점은 레르몬토프 서사시의 외부에 속한다. ‘죄 많은’, ‘죄인’이라는 단어의 정신과 뉘앙스는 서술자와 독자들이 타마라와 악마에게서 느끼는 동정심에 거스른다. 여기서 종교적 규범은 슈제트 전개를 위해서 외부로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선입견들이 악마의 정체성의 심리적 혹은 인본주의적 해석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Reid, R. “Lermontov’s Demon: A Question of Identity”, p. 203, 210 참조.

“그녀는 내 것이다! - 그가 준엄하게 말했다./(...)여기서 나는 지배하고 사랑한다! (II-9)

두 번째이자 마지막 대결의 장소는 천사가 타마라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있는 고궁이다. 해당 장면에서 악마는 마침내 ‘지옥의 영’으로 명명되며, 서술자는 죽음과 파괴, 증오의 화신인 그의 끔찍한 모습을 강도 높은 어조로 묘사한다.

(...) — как вдруг,/Свободный путь пересекая,/Взвился из бездны адский дух./Он был могущ, как вихорь шумный,/Блистал, как молнии струя,/И гордо в дерзости безумной/Он говорит: “Она моя!”/(...)Но, боже! — кто б его узнал?/Каким смотрел он злобным взглядом,/Как полон был смертельным ядом/Вражды, не знающей конца, —/И веяло могильным хладом/От неподвижного лица.

(...) 그때 갑자기/자유로운 길 가로막으며/지옥의 영이 심연에서 떨어들었다./그는 요란한 돌풍처럼 위력적이고,/분출하는 번갯불처럼 빛났다./극도로 불손한 그는 오만하게/말한다. “그녀는 내 것이다!”/(...)그러나, 맏소사! 누가 그를 알아보겠는가?/그 얼마나 사악한 눈초리로 바라보고,/끝 모르는 적의의 치명적인 독으로/그 얼마나 가득 차 있으며,/미동 없는 얼굴에서/그 얼마나 무덤의 냉기가 떠돌았던가. (II-16)

그러나 세계의 모든 악의 창조자, 기만적인 유혹자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극적으로 노출되는 대목은 악마가 타마라 앞에서 유장한 언설을 늘어놓는 II부의 10장이다.³⁷⁾ 다른 장들에 비해서 분량이 수 배가 되는 해당 장은 악마의 탁월한 언변으로 독자들을 압도한다. 악마는 자신을 정의하고[Я тот, чей взор надежду губит;/Я тот, кого никто не любит;/Я бич рабов моих земных,/Я царь познания и свободы,/Я враг небес, я зло природы(나는 그 눈초리로 희망을 없애버리는 자,/나는 그 누구도 사랑해

37) 악마의 성격을 강화하고 확대함에 있어 타마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은 주목을 끈다. 남녀주인공의 대화 장면에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악마에 의해 좌우되는 타마라와 악마를 심문하여 그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게 하려는 타마라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악마 자신이 흥미롭게 대비된다. Ibid., p. 198.

주지 않는 자,/나는 지상의 내 노예들의 채찍,/나는 지식과 자유의 제왕,/나는 천상의 적, 나는 자연의 악)(II-10)], 타마라에게 사랑을 고백하며[Я раб твой, — я тебя люблю!/(...)/Мой рай, мой ад в твоих очах./Люблю тебя нездешней страстью(나는 너의 노예, 나는 너를 사랑한다!/(...)/네 눈동자 속에 나의 천국, 나의 지옥이 있다./지상의 것이 아닌 열정으로 너를 사랑한다)(II-10)], 인간 존재의 하찮음과 지상에서의 삶의 불완전함을 폭로한다[Без сожаленья, без участия/Смотреть на землю станешь ты,/Где нет ни истинного счастья,/Ни долговечной красоты,/Где преступленья лишь да казни,/Где страсти мелкой только жить(아쉬움도 없이, 동정도 없이/너는 지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진정한 행복이란 없으며,/항구한 아름다움도 없는 곳,/오직 죄와 처형만 있고,/하찮은 열정만이 살 수 있는 곳)(II-10)].

장중한 웅변조와 선언조의 발화는 맹세의 말(‘Клянусь’ речь)에서 절정을 이룬다. 악마는 일련의 낭만주의적 안티테제 위에 구축된 맹세의 수사학으로 자신의 감정의 초월적인 강도와 규모,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자신의 권능을 과시하고, 극단적인 과장법으로 유혹한다. 사실상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창조주의 권좌 위에 올려놓는다.

Клянусь я первым днем творенья,/Клянусь его последним днем,/Клянусь позором преступленья/И вечной правды торжеством./Клянусь паденья горькой мукой,/Победы краткою мечтой;/(...)/Клянуся небом я и адом,/Земной святыней и тобой,/Клянусь твоим последним взглядом,/Твоею первою слезой;/(...)/Клянуся небом я и адом,/Земной святыней и тобой, /(...)/Клянусь блаженством и страданьем,/(...)/Тебя я, вольный сын эфира,/Возьму в надзвездные края;/И будешь ты царицей мира,/Подруга первая моя;/(...)/И для тебя с звезды восточной/Сорву венец я золотой;/(...)/Лучом румяного заката/Твой стан, как лентой, обовью;/(...)/Я дам тебе все, все земное —/Люби меня!..

창조의 첫날을 걸고 맹세한다./창조의 마지막 날을 걸고 맹세한다./죄행의 치욕과/영원한 진실의 축전을 걸고 맹세한다./타락의 쓰라린 고통과/승리의 백일몽을 걸고 맹세한다./(..)/천국과 지옥,/지상

의 성물과 너를 걸고 맹세한다./(...)지복과 고통을 걸고 맹세한다./(...)천공의 자유로운 아들인 나는 너를/하늘의 끝까지 데려갈 것이다./나의 첫 번째 애인인/너는 세계의 여제가 될 것이다./(...)너를 위해 동방의 별에서/금관을 따다 주겠다./(...)붉은 석양의 빛 줄기를/리본처럼 너의 허리에 감아주겠다./(...)너에게 모든 것, 지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나를 사랑해다오! (II-10)

타마라에게 사랑을 얻어내고자 내뱉는 맹세에서 신의 영예를 탐하는 오만한 반란자의 진면목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그는 창조주를 참칭하고, 창조주가 인간에게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한 것처럼 타마라에게 사랑을 요구한다. 이렇게 서사시의 종결부에서 주인공의 형상은 그리스도교의 악마론에 상응하는 교리적 특성을 명백히 구현한다. 여기서 속죄와 회개가 불가하듯 용서와 갱생도 불가하다.³⁸⁾ ‘죄 많은’ 타마라의 아름다움, 연민과 사랑은 그를 대속해주고 구원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잔혹한 대가를 치르고’ ‘자신의 의혹을 속죄’한 그녀의 영혼은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얻는다. 사탄이 그러하듯 레르мон토프의 악마는 신의 징벌, 타락을 면치 못하고 ‘슬픈 악마’, ‘추방의 영혼’, ‘사악한 영혼’으로 영원히 남게 된다.³⁹⁾

III. 결론을 대신하여: 시인과 악마

“오만한 악마는 내가 살아있는 한 나에게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И гордый демон не отстанет./Пока живу я, от меня...)”라고 1831년에 탈고한 시 「나의 악마(Мой демон)」에서 시인은 예언했다.⁴⁰⁾ 그의 직감대로 악마의 형상은 평생토록 그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서사시 『악마』의 집필을 그만둔 후에도 시인의 악마에 대한 묘사는 계속되었다. 1839년 서사시 원고를 손에서 놓은 후 쓴 운문 이야기 『아이들을 위한 동화(Сказка для детей)』

38) Коровин В. Л. “О библейских мотивах в лермонтовском «Демоне» в связи с его творческой историей: (от Байрона - к Мильтону)”, С. 28.

39) Вацуру В. Э. “Поэмы М. Ю. Лермонтова”, С. 530.

40) Найдич Э. Спор о "Демоне", Он же, *Этюды о Лермонтове* (СПб.: Худож. лит., 1994), С. 164. URL: <https://feb-web.ru/feb/lermont/critics/nay/nay-164-.html>(검색일: 2024.2.5.)

에서 그는 “나의 젊은 지성을 종종 당황케 했다/강력한 형상이: 또 다른 환영 사이에서/차르처럼, 말 없고 오만한 그가/그토록 매혹적이고 달콤한 아름다움으로 빛났다./그것은 무서웠다(Мой юный ум, бывало, возмущал/Могучий образ; меж иных видений/Как царь, немой и гордый, он сиял/Такой волшебносладкой красотой/Что было страшно...)”⁴¹⁾라고 악마와의 오랜 인연을 전한다.

레르мон토프에게 이토록 각별했던 테마이자 영감의 원천이었던 악마는 그의 분신이자, 예술적 원리로 빚어낸 피조물이기도 했다. 이점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대목은 『악마』에 관하여 레르мон토프가 오도예프스키(В. Ф. Одоевский)와 나눈 대화이다.

“말해주세요, 미하일 유리에비치,” - 오도예프스키 공작이 물었다. - “당신의 악마는 누구를 본뜬 거요?” “나 자신이요, 공작,” - 시인이 농담하듯 대답하였다. - “정말이지 알아보지 못하십니까?” - “하지만 당신은 그런 무서운 반항아, 음울한 유혹자와 닮지 않았어요.” 공작은 믿을 수 없다는 투로 반박했다. “정말입니다, 공작,” 시인은 껄껄 웃었다. “나는 내 악마보다 더 나쁩니다.” 이러한 답변은 공작을 당혹감에 빠뜨렸다. 그의 말을 믿어야 할까, 혹은 아이러니한 응답으로 여기고 웃어야 할까. 이 농담은 그러나 모두의 웃음으로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포에마 『악마』가 자전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거론할 수 있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했다.⁴²⁾

19세기의 비평가들은 대체로 레르мон토프의 『악마』에 진지한 신학적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주인공의 모습에서 작가의 초상을 발견하는 데 주된 관심을 보였다.⁴³⁾ 『악마』를 신학적인 차원에서 논하고자 했던 메레주콥스키 역시 악마의 비극은 시인 자신의 비극의 투영이며, 천상과 화해하고 싶다는 악마의 고백은 레르мон토프 자신의 고백이고, 사랑의 힘에 대한 믿음은 추상적인 형이상학이 아니라 레르мон토프의 실제적인 개인적 체험이다, 라고 주장하였다.⁴⁴⁾

41) Лермонтов М. Ю.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4-х томах*, 2-е изд., Т. 2, С. 427.

42) М. Ю. Лермонтов в воспоминаниях современников, М., 1989. С. 205-206.

Коровин В. Л. “О библейских мотивах в лермонтовском «Демоне» в связи с его творческой историей: (от Байрона - к Мильтону)”, С. 32에서 재인용.

43) Там же, С. 19 참조.

단지 악마만이 아니라 레르мон토프의 창작 전반에서 그의 서정-서사적 주인공이 시인 자신과의 닮은꼴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며, 악마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다. 시인의 거울상-분신인 악마는 시인의 언어를 구사한다. 앞서 확인했듯이 악마의 말은 삼라만상의 온갖 이미지들과 수사적 장치들을 내장하고 있으며, 거기 담긴 화자의 의도나 도덕적 고결함과는 무관하게 순전히 음악성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한다. 맹세의 말에서 악마는 오로지 그러한 시의 힘만으로 타마라를 설복한다.⁴⁵⁾ 그러한 그의 말은 서사시의 예술적 정점을 이룬다.

악마는 악의 구현체이며 인간과 창조주의 주요 적임이 분명하지만, 그에게는 사탄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심리, 그리고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아름다움이 공존한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은 무엇보다도 그가 구사하는 ‘시인의 말’의 아름다움이다. 레르мон토프가 창조해낸 악마의 독창성은 바로 이 점에 있다.

안타깝게도 레르мон토프의 창작의 길은 그가 서사시의 영역에서 새로운 발견의 문턱에 섰을 때 중단되고 말았지만,⁴⁶⁾ 그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낭만적이고 비극적이며 아름다운, 러시아적인 악마의 항구히 살아 숨쉬는 형상을 전세계 독자들의 가슴에 아로새겨놓았다.

44) Мережковский Д. С. “М. Ю. Лермонтов. Поэт сверхчеловечества”, М. Ю. Лермонтов: *pro et contra* : Личность и творчество Михаила Лермонтова в оценке русских мыслителей и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СПб.: Изд-во Русского христианского гуманитарного ин-та, 2002), С. 371. Николаева Е. Г. “«Печаль» / «Грусть» в поэме М. Ю. Лермонтова «Демон»”, С. 51에서 재인용.

45) Reid, R. “Lermontov’s Demon: A Question of Identity”, p. 206.

46) Вацуро В. Э. “Поэмы М. Ю. Лермонтова”, С. 531.

참고문헌

1. 권영탁, 「사탄의 반역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본 밀턴의 예술성」, 『동서비교문학저널』 57 가을, 2021.
2. 김정한, 『레르몬토프의 「데몬」 판본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3. 도미니크 랭세, 『프랑스 19세기 시』, 강성욱, 황현산 옮김,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4. 레르몬토프, 「악마」, 『우리 시대의 영웅』, 문석우 옮김. 서울: 한길사, 1991.
5. 문석우, 「레르몬토프의 문학에서 카프카즈 테마」, 『세계문학비교연구』 48, 2014.
6. 서홍원, 「성찬과 탐욕 사이에서 – 사탄의 과문과 밀턴의 우주관」, 『인문언어』 24(1), 2022.
7. 송혜경, 『사탄, 악마가 된 고발자』, 서울: 한남성서연구소, 2019.
8. Вацуро В. Э. “Поэмы М. Ю. Лермонтова”, Лермонтов М. Ю.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4 т.*, Т. 2, Л.: Наука, 1980.
9. Докусов А. “Поэма М. Ю. Лермонтова «Демон» (К вопросу об идейной концепции и основном тексте поэмы)”,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 4(1960).
10. Журавлева А. И. *Лермонтов в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 проблемы поэтики*, Москва : Прогресс-Традиция, 2002.
11. Коровин В. Л. “О библейских мотивах в лермонтовском «Демоне» в связи с его творческой историей: (от Байрона - к Мильтону)”, *Литературоведческий журнал*, № 35, 2014.
12. Лермонтов М. Ю.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4-х томах*, 2-е изд., Т. 1, 2, Л.: “Наука”, 1980.
13. 밀лер О. В. “К истории изучения поэмы М. Ю. Лермонтова «Демон»: полемические заметки”, *Stephanos*. № 5 (13), 2015.
14. Найдич Э. Э. “Спор о “Демоне””, Он же, *Этюды о Лермонтове*, СПб.: Худож. лит., 1994), С. 164. URL: <https://feb-web.ru/feb/lermont/critics/nay/nay-164.htm> (검색일: 2024.2.5.)

15. Найдич Э. Э., Роднянская И. Б. “Демон”, *Лермонтов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Москва :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81.
16. Николаева Е. Г. “«Печаль» / «Грусть» в поэме М. Ю. Лермонтова «Демон»”, *Культура и образование: научно-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журнал вузов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 3(26) (2017).
17. Пушкин А. С. *Сочинения в 3-х тт.*, Т. 1, М.: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85.
18. Эйхенбаум Б. М. *Лермонтов: Опыт историко-литературной оценки*, Л.: Гос. изд-во, 1924, URL: <http://feb-web.ru/feb/lermont/critics/eich24/eich24.htm> (검색일: 10.10.2023.)
19. Reid, R. “Lermontov’s Demon: A Question of Identity”, *The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 60, No. 2, 1982.
20. Shaw Joseph Thomas, “Lermontov’s Demon: An eastern tale”, *Bulletin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Slavic and East European Languages*, Vol. 8, No. 3, 1951.

Abstract**A Study on the Main Character of Lermontov's Poem
*The Demon***

Yi, Myoung Hyoun
(Korea University)

The Demon is the masterpiece of the poet Lermontov's life, conceived as a boy and reworked over a period of 10 years. As the manuscript was repeatedly revised, the image of the main character, the Demon, was transformed several times, and ultimately it came to have both human characteristics and a satanic identity. The hero of *The Demon* is clearly an evil, cruel, and cunning soul, the Christian Satan, but on the other hand, he possesses an extraordinary beauty and charm that stimulates the readers' sympathy and fascinates them. The motifs of 'sorrow' and 'exile', which can be said to be the dominant of the Demon's image are related to the human side of the Demon. He expelled from heaven, suffers from longing for his home, loneliness, and boredom. He attempts to be rehabilitated through love with the Georgian girl Tamara, but his wish is thwarted by his fate as the creator of evil and the incarnation of death. As soon as he wins Tamara's love, he unintentionally kills her due to his own destroyer's nature. The tragic ending of the Demon being left alone without hope or love is consistent with Christian doctrine, but on the other hand, leaves a deep resonance on aesthetic and emotional level. The image of the Demon resembles its creator. Lermontov's biographical and literary life, which is intertwined with Caucasus, is reflected in the figure of the Demon who has been expelled from heaven and wanders in Caucasus. The language the Demon speaks resembles the words of a poet. The Demon is the possessor of beauty that is both human and transcendent, and his beauty is, above all, the beauty of the words he

speaks. In his appearance, which is evil and cunning, yet so human and beautiful, readers can discover Russia's unique demonic image.

Key words : Lermontov, Demon, Romatic Poem, Caucasus, Sorrow, Exile, Satan

러시아어 소사 Неужели와 Разве 의미기능 고찰

백 경 희*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의문소사 Неужели와 Разве의 의미기능의 유사성과 변별성을 고찰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두 소사의 의미구조의 특징을 유사성의 큰 틀에서 조명하고 의미적 차이를 부가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사가 화자의 명제에 대한 태도 및 화용적 요소를 비명시적으로 함축하는 까닭에 두 소사의 의미적 차이를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고에서는 각각의 소사가 맥락에서 수행하는 의미적 변별성과 유사성을 다양한 문체의 텍스트에서 충분한 맥락이 제시된 용례와 최소의 맥락이 제시된 용례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유의미한 의미기능을 고찰하였다. «Разве P?» 구문은 해당상황(S)이나 전술명제(P)에 대한 화자의 논증적 반박의 표지로서, «Неужели P?»는 놀랍고 의심스런 명제(P)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좀더 담화의 지속을 지향하는 반응 표지로서 기능한다. 그 외에도 소사가 갖는 양상적 의미의 중첩성과 다의성으로 인해 표층구조에서는 유사한 의미구조로 보이지만 두 의문소사는 상호교체가 불가능한 문체적 맥락의존적 의미를 갖는데, 이들 소사들이 지닌 화용적 측면의 특징적인 양상들을 토대로 다양한 의미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소사, 라즈베, 네우젤리, 논증표지, 반응표지, 담화기능

I. 서론

대화 참여자들이 성공적인 소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화자의 발화의도와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러시아어의 소사는 문장 내에서 논항구조와 의미역을 구성하지 못하는 의존·보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맥

* 충북대학교 러시아언어문화학과 강사, white100ok@hanmail.net

락 속에서 화자의 의도와 명제에 대한 태도, 화·청자의 관계 등 비명시적 정보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담화의 맥락의존적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메타언어적 해석 기제로 기능한다. 담화 속 맥락에서 활성화되는 소사의 다층적 의미는 다른 소사와의 의미적 중첩으로 소사들 간의 의미적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한다. 즉 소사 자체의 다의성과 다른 소사들과의 의미적 유의성은 명제의 진리치를 판단하고 일관된 의미적 상수(константа)를 도출하기 어렵게 만든다.¹⁾ 현대 러시아어의 여러 소사들 중에서 양상소사 *неужели*와 *разве*도 질문-반응(вопрос-реакция)형식의 표층구조로 명제에 대한 ‘놀라움과 의심’의 유의관계 의미기능을 공유한다. 본 연구에서는 *неужели*와 *разве*의 의미구조의 유사성과 의미기능의 변별점을 살펴보고, 전치사-의문소사-양상소사로 전이되는 의미분화 양상과 담화 내의 화용화 단계에서 구별되는 담화기능적 특성에 대해서 조명하겠다.

II. 선행연구

전통문법학자인 에스퍼슨(1993)는 전치사를 불변화사(particle)로 분류하여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다른 자립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로 정의했다²⁾. 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의미가 생성되는 것으로 본다면 전치사가 함의하는 ‘공간적 의미’가 원형적 의미를 이루고, 은유적 확장(metaphorical extention)을 거쳐 ‘시간적 의미’로 추상화된다. 즉 공간적 의미에서 전달되는 전치사의 기본적 의미는 시간적, 추상적, 때로는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다양한 의미로 전달되며, 두 개체 간의 다양한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기능을 수행한다. 양상소사 *разве*와 *неужели*의 어원적 형태적 모체에도 접속사, 부사, 대명사 외에 종종 전치사가 기저 형태소로 자리잡고 있다³⁾. *разве*와 *неужели*의 용법의 유사성과 의미적 차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

1) Николаева(1985:16)는 유의관계 소사로서 И-Даже, Же-Ведь, Вон-Ведь의 용법을 제시하고, 어휘적 반의관계이지만 화용적 유의관계의 소사로 Уже-Еще, Вон-Вот의 용법을 제시한다.

2) Jespersen, O. *Essential of English Grammar*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1933) 69.

3) М. Фасмер(1987:433)에 의하면 Разве는 ‘제외(кроме)’의 의미로 교회슬라브어(развъ)와 고대러시아어(розвъ)에서 나타난다. 인구조어 *orz- (см. роз--, раз-)에서 파생

서에서 다루어졌다⁴⁾. 특히 전통 문법서와 사전에서는 разве와 неужели의 용법의 차이정보다는 의미적 유의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⁵⁾. 이에 대해 아프레산(1980)은 두 용법의 의미적 유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며 [Разве P?]'의 의미구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⁶⁾.

[Разве P?] = ‘До момента речи говорящий считал, что не Р, в момент речи существуют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или высказывания, имплицитующие Р; сомневаясь, что Р, говорящий просит адресата подтвердить или опровергнуть Р’. 발화 이전까지 화자는 ~P라고 생각했으나 발화 시점에서 P를 함의하는 상황(또는 발화)이 발생하자, 화자는 명제(P)를 의심하면서 상대방에게 해당명제(P)를 확인하거나 반박하라고 요청한다.

러시아어 의문소사 разве는 담화 내에서 종종 «Неужели?»와 대비되어 조명되었다.⁷⁾ Белошапкина(1983:57-58)는 «Неужели?»와 «Разве?»가 의미적으로 유의관계에 있으나 화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양상적 의미에서 확인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1a)에서 화자2는 화자1에 의해 전달된 명제(사건, 사실)에 대해 불신과 의심을 표현한다. 푸시킨의 『장외사』의 주인공 아드리안은 밤새 꿈 속에서 자신의 집을 찾아온 망자들의 틈에서 (죽을 날이 얼마남지 않았던) 트뤼히나의 모습을 보았고, 잠에서 깨어난 후 하녀 악

된 어형태(*orзvъ)에서 슬라브조어의 단수 처소격 어형태(*orзvѣ-)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소’를 나타내는 공간의 의미가 점차 추상적 ‘제외’의 의미로 전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Николаева(1997:8)는 의문소사 Неужели의 모체에는 부정소사, 부사, 의문소사, 전치사 등이 있고, 이들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소사로 발전한 것으로 본다(Неужели < не + уже + ли < не + у + же + ли).

- 4) Апресян(1980), Белошапкина(1983), Булыгина&Шмелев(1997), Артанов(2019), Зализняк&Шмелев(2021) 참조.
- 5) 가령 МАС(1984.Т.3:589)에서는 неужели?가 разве와 동의 관계이며 질문외에도 의심과 불신, 놀라움을 나타낼 수 있다면, разве?는 의문문에서 의심과 불신과 놀라움을 나타내고 неужели와 동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놀라움과 의심’의 기본 의미를 공유하는 까닭에 두 소사의 의미적 차이는 맥락 속에서 다양한 예시의 대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6) Ю. Д. Апресян(1980) 51-52.
- 7) Белошапкина(1983) 57-59.

시니아에게 죽은 트류히나의 집에서 기별이 왔는지를 묻는다. 악시니아는 아드리안이 전날의 피로연의 숙취로 밤새 뒤척이다 잠에서 깨자마자 형설 수설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반박한다. 벨로샤프코바(1983)의 논리에 의하면 두 의문소사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서 의미분화가 나타난다. «Разве?»구문은 화자1이 전달하는 명제의 사실성에 대해 ‘불신, 반박’의 양상적 의미를 내포한다면, «Неужели?»구문은 화자1이 기술하는 명제를 사실로 수용하되 이에 대한 ‘불신과 놀라움’을 나타낸다. 예(1a)의 «Разве P?»구문에서 명제(P: Она умерла)의 진리치에 대해서 화자2(악시니아)의 의심이나 불신을 나타낸다면, 예(2)의 «Неужели P?»구문에서 화자는 정보의 진리치에 대한 반박보다는 믿기지 않는 그 명제(P)에 대해서 놀라움에 초점을 둔다. 만약 «Разве?»구문을 «Неужели?»로 교체했을 경우 악시니아의 발화의도는 전혀 달라진다. 예(1b)에서 화자1이 전달하는 정보(트류히나의 죽음)를 화자2는 사실로 받아들이므로 논쟁적 의도는 약화되고 놀라움과 의심의 의미만 강화된다. «Неужели?»구문에서는 전술명제가 화자2에게 전혀 기대치 않은 충격적 사실이며 이에 대한 ‘놀라움’을 나타낼 뿐이다.

(1) А приходили ко мне от покойницы Трюхиной? 그런데 죽은 트류히나네 집에서 사람들이 다녀갔나?

a. Покойницы? Да разве она умерла? (Пушкин, Гробовщик)

죽은 여자요? 그녀가 죽다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b. Покойницы? Да неужели она умерла?

죽은 여자라구요? 그녀가 정말 죽었어요? (죽었다니 충격이네요!)

(2) Сколько вся эта музыка [бриллианты] стоила? — [Воробьянинов] Тысяч семьдесят — семьдесят пять,— Мгу... Теперь, значит, стоит полтораста тысяч.— Неужели так много? — обрадованно спросил Воробьяншшов. (П. Ильф, Е. Петров. Двенадцать стульев) 이 다이아몬드들이 값어치가 얼마나 돼? - 1070 -1075 정도. - 음, 이제는, 1500 정도 나가겠네. - 정말로 그렇게 많이? - 보로비니쉬코프가 들떠서 물었다.

(3) Ах! боже мой! Ужли я здесь опять, В Москве! (Грибоедов. Горе от ума) 오! 하느님! 정말로 내가 이곳, 모스크바에 다시 오다니!

예(2)의 «Неужели P?»구문에서는 화자1의 전술명제(P1: 다이아몬드가

이제 1500정도로 가격이 더 올랐다)가 화자2에 의해서 사실로 수용한 상황에서 명제(P)에 대한 ‘의심과 놀라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3)에서 Неужели의 변이형 Ужли Р? 구문에서도 모스크바에 다시 돌아온 사실(я здесь опять, В Москве)이 사실성의 명제(P)로 수용된 상황에서 그 사건에 대한 화자의 놀라움을 나타내게 된다. 특히 «Разве?»구문을 이끄는 화자2는 해당명제(P: прискучить)에 대한 놀라움과 반박을 넘어서서 명제(P)의 성립불가능성(= 숲이 지겨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을 확인한다(예(4a)). 화자는 명제의 사실성 여부 및 그 성립가능성에 대한 불신과 반박의 표현뿐만 아니라 그와 의견을 달리하는 반대자(оппонент)가 있음을 신호한다. 이처럼 «Разве?»구문은 실질적 또는 잠재적 토론자(화자1 또는 잠재적 이견자)를 상정하고 그의 견해에 맞서는 화자2의 논쟁적 태도, 양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 예(4b)의 «Неужели Р?»는 진술명제(P)의 성립가능성(숲이 지겨워질 수 있음)을 허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놀라움을 나타내므로 비문이 되는 것이다. 예(5)에서 명제(P: 눈물의 존재)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이것을 진리치로 수용했을 때 명제(P)의 발생과 개연성에 대한 화자2의 놀라움을 나타낼 수 있다. 궁극적으로 «Разве Р?»구문은 진술명제(P)의 진리치에 대한 의심과 반박을 나타내고, 진술명제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불신, 즉 명제의 진리조건의 비논리성을 지적한다⁸⁾. 때문에 명제의 진리치 추론이나 예측을 표현하는 문장에서 사용될 수 없다. 반면 «Неужели Р?»는 진술명제의 진리조건을 수용하는 ‘긍정적인’ 태도 덕분에 예측을 표현하는 문장에 사용될 수 있다(예5).

(4) Я люблю лес. Помнишь ли у нас в Егоровском?

난 숲을 사랑해요. 예고롭스키의 우리 숲을 기억하시죠

a. Разве может он когда-нибудь прискучить? (Куприн. Гранатовый браслет)
숲이 언젠가 지겨워진다는 것이 말이되나요? (전혀 말이 안되죠).

b. *Неужели может он когда-нибудь прискучить?

*정말로 언젠가 숲이 지겨워질 수 있을까요? .

(5) Нехлюдов увидел особенный блеск под очками зятя. Неужели это слезы?
— подумал Нехлюдов.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это были слезы оскорбления (Толстой. Воскресение) 네홀류도프는 매부의 안경 아래로 무언가 유난히 반짝이는 것을 보았

8) Белошапкина (1983) 59

다. 정말로 이것이 눈물인가? - 네흘류도프는 생각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은 모욕의 눈물이었다.

«Разве P?»구문에서 화자는 명제의 사실성에 대해 의심하고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반대토론자(оппонент)로서 역할을 상징한다. 반면 «Неужели P?»구문에서 화자는 명제(P)의 사실성을 수용하되 이 상황이 매우 믿기 힘든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의심과 놀라움을 표현한다. 즉, «Разве P?» 지닌 ‘논쟁성’과 ‘반대토론자’의 표지가 «Неужели P?»구문에서는 부재한다. 이처럼 두 소사의 용법은 의미적 차이를 보이므로 상호 교체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두 의문소사의 용법을 주로 19세기 문학작품이나 성서의 구절에서 최소의 맥락만을 제시하였으며, 상호 교체 사용의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특정 구문의 개별 용법들을 제시하지만 두 소사의 의미구조가 그렇게 이분법적이거나 단선적이지 않기에 이에 대한 일관된 공리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현대 러시아어의 구어체 발화영역에서 활성화되는 해당 의문소사들의 의미적 특징이나 화용적 요소를 고려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분화와 양상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소사에는 공통적으로 ‘놀라움과 의심’이 의미장의 기저에 있고,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담화에서의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화용적 반응표지로서 상황과 맥락에서 활성화되는 의미기능을 파악하고 유의미한 의미구조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호 교체가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개별적 용례를 통해서 그 의미구조의 특징들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III. 전술명제 부정의 반박표지 VS 전술명제 수용의 반응표지

불리기나&쉬멜료프(1987)는 разве와 неужели의 의미구조를 대비시켜 대화를 시작하는 화자1과 그에 대해 반응하는 화자2를 상징하고, 두 구문의 의미적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⁹⁾. 두 의문소사의 의미구조를 비교했을 때 우선 «Разве P?»구문은 [화자1의 진술(P)이 있기 전까지 화자2는 ~P라고 생각했다. 화자2는 자신이 알고 있던 기존 사실(~P)와 다른 어떤 사실

9) Булыгина&Шмелев(1997) 270-271.

(P)을 보거나 듣게 된다. 화자2는 화자1에게 P인지 ~P인지 확인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구조를 설정한다. 이와 달리 «Неужели P?»구문은 [화자2는 명제(P)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 어떤 상황들이 화자2로 하여금 P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화자2는 화자1에게 명제(P)를 믿기 어렵다고 말하고, 화자1에게 P인지 ~P인지 확인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구조를 갖는다. 둘 다 진술명제에 대한 ‘놀라움과 의심’을 기저에 두고 있으나, «Разве P?»구문은 화자1이 진술한 명제(P)와 화자2가 사실로 인식하고 있는 정보(~P)의 괴리에 따른 인지적 불일치(когнитивный диссонанс)를 조정 및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화자2의 태도에 중점을 둔다면, «Неужели P?»는 화자1이 진술한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화자2의 수용 태도와 그에 수반되는 감정(놀라움, 공감) 표현에 방점이 있다. 불리기나&쉬멜료프(1997)의 설명에 의거하면 논의되는 상황(обсуждаемая ситуация)을 S라 하고 진술명제(пропозициональное содержание)를 P라고 가정할 때 «Неужели P?»구문에서는 해당 상황(S)과 진술명제(P)는 필요충분조건이다($P=S$). 다시 말해 «Неужели P?»구문에서는 해당상황(S)이 비록 믿기 어렵고 화자가 전혀 기대치 않았던 사건이지만 화자의 진술명제(P)가 해당상황(S)과 일치 및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Разве P?»의 경우 진술명제(P)는 해당상황(S)의 충분조건이다($P \rightarrow S$).¹⁰⁾ «Разве P?»에서 명제(P)는 보조적 역할을 할 뿐, 명제(P)의 사실성(истинность)이 해당상황(S)이 성립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P \rightarrow S$ 의 경우 명제 P가 참이 되기 위해 먼저 명제 S가 참일 필요가 있다. 즉, S는 P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해당상황(S)은 명제(P)를 포함하는 전제적 개념에 가깝고 진술명제(P)는 결론적 개념에 가깝다. 예(6)에서 해당상황(S: 이 사람이 페짜의 아내이다)이 전제로서 참인 경우에 진술명제(P: 페짜는 결혼했다)가 결론으로 추론될 수 있다($P \rightarrow S$). 또한 해당상황(S - Это Петина жена)이 명제 У Пети есть жена(‘페짜는 아

10) Там же (1997) 272. 불리기나&쉬멜료프는 논의되는 상황(обсуждаемая ситуация)을 S라 하고, 명제내용(пропозициональное содержание)이 되는 진술명제를 P라 할 때 «Неужели P?»구문에서는 P가 S에 상응($P=S$)한다고 보았고, «Разве P?»구문에서는 P의 사실성이 해당상황(S)의 필요조건(необходимое условие)이라고 기술한다. 즉 ‘P이면 S이다($P \rightarrow S$)’라는 진리조건을 제시하고 P를 S의 필요조건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충분조건(Sufficient Condition)의 오기라고 판단된다. ‘P이면 S이다($P \rightarrow S$)’라는 조건문을 염두한 것이라면 P는 S의 충분조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내가 있다')를 함의할 때 진리조건이 성립된다. 왜냐하면 명제 P(페썸가 결혼한 사실)가 참이더라도 'Это Петина жена(이 사람이 페썸의 아내다)'가 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6) Это Петина жена. - *Разве* Петя женат?

이분은 페썸의 아내야. - 페썸이 결혼했다고? (결혼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7) Она не курит при отце. - *А разве* она вообще курит?

그녀는 아버지 앞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 - 그녀가 평소 담배를 핀다고요?

(8) Где Авель, брат твой? - *Разве* я сторож брату моему?

너의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 내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예(7)의 «Разве P?»구문은 선행발화에 대한 반응표지로 기능하지만 의문의 발화의도(P: она вообще курит?)와 해당상황(S: Она не курит при отце)에 상응하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고, 대화의 원리와 관계되는 전제(презумция)까지도 의심하고 반박하고 있다. 이것은 화자1과 화자2(청자)가 공통의 전제를 갖는지 여부, 그리고 화자2가 전술명제의 사실성(진리치)를 수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의미적 차이를 보인다. 예(8)에서 화자는 자신의 신념(~P)을 고수하면서 해당상황(S)의 가능성이나 당위성을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논쟁적 성격을 갖는다. 예(8)과 같이 수사의문문(риторический вопрос)의 형식으로 화자의 신념(~P)을 표명하는 «Разве P?»구문의 <수사적 용법>은 해당상황(S)과 전술명제(P)가 최대 맥락으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Неужели P?»구문과의 의미적 유사성이 높아지므로 더욱 맥락적 추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두개의 의문소사들이 최소 맥락이나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비명시적인 함축의미로 인해 의미추론의 모호함을 더욱 초래한다. Скороходов&Хрохордина(2017)의 설명에 따르면 Разве와 Неужели와 의미적 차이는 전자(Разве?)가 반대(возрождение) 및 의심(сомнение)을 강조한다면, 후자(Неужели?)는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정보(невероятн. информация)에 대한 평가(оценка)를 감정적으로 나타낸다.¹¹⁾ 가령 «Разве P?»가 반응표지로 사용되는 구문에서 대화를 주도한 화자1의 선행발화를 P1이라고 할 때, 전술명제(P1)는 화자2가 지닌 신념(지식)과 불일치하기에 화자2는 «Разве

11) Л. Ю. Скороходов, О. В. Хорохордина, *Окно в Россию*. СПб.: Златоуст, 2017. С. 24-25.

P?»구문을 통해 전술명제(P1)에 대해 반대/의심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예(9b)에서는 (화자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딸기 가격이 그렇게 싼 것에 대해서 놀라움과 의심이 강하게 표출되며 전술명제(저가로 딸기를 사다)에 대립되는 화자의 입장(가격이 그렇게 싼 리가 없다)은 변함없이 고수된다. 반면 «Неужели P?»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정보에 대한 감정적인 평가를 나타낸다. 예(9a)에서는 전술명제(저가로 딸기를 사다)가 비록 믿기 힘들 정도로 놀랍고 의심스럽지만 이 상황을 사실로 수용할 정도로 화자의 태도는 비교적 열려 있다. 예(9a)의 «Неужели P?»구문에서 화자2는 화자1의 전술명제(사샤가 동생과 싸운 사실과 생일파티에 오려고 한다는 사실)를 인지하고 (비록 기대와 다른 놀랍고 의심스런 정보이기는 하나) 그 사실성을 수용한 상태이므로, «Неужели P?»구문의 전술명제(P)을 통해서 전술명제(P1: 사샤가 생일 파티에 올 것이다)에 대한 화자의 태도 및 감정적 평가를 나타낸다. 예(11)의 «Разве P?»구문은 화자1의 전술명제(P1: 포트르가 다샤를 진찰하고 약처방을 했다는 사실)가 화자2의 믿음(~P: 포트르는 의사가 아니다)에 상응하지 않기에 화자2는 전술명제(P1)를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고수한 채로 전술명제(P1: 포트르의 의사로서 치료 행위)에 대한 ‘놀라움과 불신 및 반박’을 나타낸다. 궁극적으로 «Разве P?»구문은 화자1과 화자2 사이의 인지적 불일치를 신호한다면, «Неужели P?»구문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감정적(놀라움, 의심) 평가를 나타낸다.

(9) Сегодня клубнику покупала по 150 рублей за кило.

a. Неужели она уже так дешёво стоит? 딸기가 (정말로) 그렇게 싸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

b. Разве она уже так дешёво стоит? 딸기가 (정말로) 그렇게 싸다고? (그럴 리가 없다)

(10) Представляешь, Сашка поссорился с моим братом, а Лариса сказала, что он к нему на день рождения собирается. - Неужели он всё-таки придёт?

생각해봐, 사샤가 내 동생이랑 싸웠는데, 라리사 말로는 사샤가 동생의 생일 파티에 오려고 한 대. - 그가 어쨌든 (정말) 온단 말이지? (믿기 힘들 정도로 놀랍다)

(11) Даша была больна, и Пет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осмотрел её и выписал все нужные лекарства. - Разве он врач? 다샤가 아팠었는데 포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그 애를 진찰하고 필요한 모든 약들을 처방해 주었어. - 그가 (설마) 의사라는 거야? (믿을 수 없다)

로야빈(M. Rojavin)은 두 소사의 의미적 차이를 구분하여, *Неужели*가 놀라움(astonishment), 경탄(wonder)을 나타낸다면, *Разве*는 불신(disbelief), 냉소(skepticism), 의심(doubt)을 나타내고, 둘 다 의문소사로 담화 내의 반응표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맥락을 제시하고 있다(예12-15)¹²⁾. 그러나 *Неужели*와 *Разве* 모두 동일하게 <Really?>로 해석되고 있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재한다. (12)-(13)과 같이 화자1이 주도하는 선행발화로 배치되는 경우에도 맥락의 파악은 모호한 면이 있다. 로야빈의 논리를 따르자면 예(12)의 «*Неужели P?*»경우 ‘놀라움’과 ‘경탄’의 뉘앙스로, 예(13)의 «*Разве P?*»구문을 단순히 ‘불신’과 ‘냉소’의 의미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두 의문소사의 의미적 차이를 하나의 동의어(=Really?)로 처리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14)-(15)와 같이 화자2의 후행발화로서 소사 단독적으로 최소한의 맥락을 제시하는 경우 단순히 ‘놀라움’을 나타내는 반응표지로 설명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12) *Неужел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 игнорировать сложившуюся ситуацию? (= Is the administration really going to continue ignoring the situation at hand?) 당국은 당면한 문제를 정말로 계속해서 외면할 것인가?

(13) *Разве* зарплаты не повысят? (=Are they really not going to increase wages?) 그들은 정말로 월급을 올려주지 않을 것인가?

(14) Она давно здесь не работает. – *Разве?* (= She hasn't worked here for a long time. - Really?!) 그녀는 오랫동안 여기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 정말 그래요?

(15) Он получил предложение в большой компании. – *Неужели?* (= He received an offer from a big firm.- Really?!) 그는 큰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았어요. - 정말요?

일반적으로 «*Неужели P?*»구문은 해당상황(S)에 대한 의심과 놀람을 표현하지만 전술명제(S)에 비교적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Разве P?*»구문에서 화자는 자신의 기존 신념에 배치되는 해당상황(S)의 비논리성을 수용할 수 없기에 반박의 태도를 보인다(예16). 그러나 해당상황(S)의 사실성(개연성)이 명백한 현실태로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경우 화자의 명제(P)에

12) Marina Rojavin (2022) *Russian Syntax for advanced students*.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22) 14-15.

대한 태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A가 우연히 거리에서 B를 만나서 «Разве ты не уехал?»이라고 말했다면, 해당상황(S)은 명백한 사실이고 A의 명제에 대한 태도(~P)를 바꿀 수 있으므로 기존 의미구조에서 ‘의심’이나 ‘반박’의 여지는 사라지고 ‘놀라움’의 의미기능만 남게 되는 것이다¹³⁾. 이러한 경우에 «Разве P?»구문의 ‘놀라움’의 용법은 예(17)의 «Неужели P?»구문의 전형적인 ‘놀라움’의 의미기능과 유사하다. 그러나 «Разве P?»구문에서는 명백한 현실태인 해당상황(S)을 마주하기 전까지 상반된 화자의 신념(~P)을 대조적으로 강조한다면, «Неужели P?»구문은 기대치 않았던 S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놀라움과 의심’의 주관적 감정적 태도에 초점이 있다. 때문에 예(18)의 «Разве P?»구문에서는 화자의 논리적 판단(Я уверен)에 근거한 명제부(диктум)가 활성화되고, 예(19)의 «Неужели P?»구문에서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Я думаю)에 근거한 양상부(модус)가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16) Завтра покажут новый дитектив “Адвокат”. - *Разве* это детектив?
내일 ‘변호사’라는 새로운 추리물을 보여준대. - 그게 추리물이었어? (반박)
- (17) *Неужели* ваш сын умеет читать? Ему только 4 года.
당신 아들이 정말로 책을 읽어요? 겨우 4살인데. (정말 놀랍군요)
- (18) Когда ты вернешь мне словарь? 언제 내게 사전을 돌려 줄거니?
- *Разве* я его тебе не вернул? (= Я уверен в том, что вернул словарь)
- Нет, посмотри дома. Ты, наверно хотел отдать, но забыл.
- (19) Когда ты вернешь мне словарь?
- *Неужели* я тебе его не вернул? (=Я думаю, что отдал, но мог бы забыть)
- Нет.
- Извини, пожалуйста. Завтра принесу.

자길레바(2000)¹⁴⁾의 설명에 의하면 두 의문소사가 모두 의심(сомнение)의 의미기능을 기저에 두고 있으나 예(20)의 «Неужели P?»구문의 양상적 의미기능은 해당상황(S: 기차의 정시 도착, 화자의 이른 귀가)에 대한 ‘의심’에 근거하고 있다. 반면 예(21)의 «Разве P?»구문의 ‘의심’은 화자 자신

13) Булыгина& Шмелев(1997) 272.

14) И. Б. Дягилева. Частицы разве и неужели: контексты употребления // *Мир русского слова*. 2000. № 3. С. 82-83.

의 판단(~P)을 향해 있다. 때문에 «Разве P?»구문에서 화자의 ‘의심’의 방향은 종종 자신에게 전이되어 화자의 선택 및 자신의 판단에 대한 ‘불확신’의 의미기능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Разве + Pinf?]의 진술명제(P)로 부정사(Inf)가 결합될 경우에 특정(종종 부정적) 상황을 벗어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예 22-23). 한편 잘리즈낙&쉬멜료프(2021)의 설명에 의하면 예(24)의 «Разве P?»구문은 화자의 ‘선택적 제한성’을 나타내며, 향후 제외(=за исключением)의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Разве что + Pinf?]로 이행하는 과정, 즉 초기의 전치사에서 의문소사로 기능전이되는 화용화 단계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¹⁵⁾

(20) Когда ты вернулся из Москвы? 너 언제 모스크바에서 돌아왔어?

- Вчера в 8 часов. 어제 8시에 도착했어.
- *Ну уж ли* поезд не опоздал? (= Обычно поезд опоздывает)
- Нет. В 9 я был уже дома. 아니. 9시에는 이미 집에 왔지.

(21) Сегодня хорошая погода. *Разве* за город съездить?

- Давай съездим. Можно поехать в Пушкин.
- 오늘 날씨가 좋네. 교외로 나가보는 게 어떨까?
- 그러자. 푸쉬킨에 가도 되고.

(22) Хочу подняться вверх по Каме, да денег на пароходный билет нет. Пешком *разве* пойти? [Н. И. Гаген-Торн. Memoria] 카마강을 따라 올라가고 싶은데, 여객선 표를 살 돈은 없어. 걸어서 갈까?

(23) Как же это их уложить, чтобы корзина полная была? Землицы *разве* подсыпать? [Самуил Маршак. Двенадцать месяцев] 바구니가 가득 차게 하려면 어떻게 포장을 하지? 흙을 좀 넣어야 할까?

(24) Я не мог ей ничем помочь. *Разве что* взвалить на плечо и внести в Кремль? [А. Е. Рекемчук. Мамонты] 나는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어깨에 짊어지고 크레mlin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거야.

화용적 단계에서 «Разве P?»와 «Ну уж ли P?»는 문두의 선행발화로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놀라움, 의심)를 나타낼 수 있고, 후행 발화로서 진술명제에 대한 반응표지로 사용될 수 있으며, 대화참여자로서 대화를 지

15) Зализняк&Шмелев (2021) 374.

속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실현하기도 한다. 두 소사의 용법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여타 화용적 요인들이 결정한다. 그런데 두 의문소사가 구어체 담화에서 사용되고 최소의 제한된 맥락만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의미적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소사가 화자의 명제에 대한 태도를 비명시적으로 함축하는 까닭에 단지 ‘놀라움과 의심’의 기저 의미로 두 소사의 의미적 차이를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각의 소사가 맥락에서 수행하는 의미적 변별성과 유사성을 실제 담화에서 충분한 맥락이 제시된 용례와 최소의 맥락이 제시된 용례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유의미한 의미구조적 특징들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Разве P?»구문은 해당상황이 화자2의 기대나 예상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신호하거나(예23) 화자1의 선행발화와 일치하지 않는 화자2의 신념을 나타낼 수 있다(예24). 그에 비해 «Неужели P?»는 화자1의 전술명제(P)의 사실성을 화자2가 일정 부분 수용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놀라움이나 의심을 나타낸다(예25-26). 예(27a)의 «Неужели P?»구문에서는 선행발화의 전술명제가 일단 화자에 의해서 수용된 후에 낮은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었을 경우의 ‘놀라움’을 나타내지만 예(27b)의 «Разве P?»구문에서는 그 실현 가능성조차 차단되고 있다. 예(28)에서는 비교적 충분한 맥락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움(=really?)을 함의하는 의미기능외에는 표층구조에서 비명시적 함축의미를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¹⁶⁾. 예(28a)에서 놀라움과 의심의 의미기능은 화자가 해당상황(사장이 올렉을 비난한 사실)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임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함축의미이다. 이에 비해 예(28b)는 전술명제(P: 올렉이 당직이라는 사실)가 화자의 믿음(~P)과 전혀 다른 것에서 발생하는 놀라움과 의심의 의미기능이다.

(23) Камни вдруг посыпались за ними: Это Ася нас догоняла. - Ты разве не спишь? - спросил ее брат, но она, не ответив ему ни слова, пробежала мимо. (И. С. Тургенев). 그들 뒤로 갑자기 돌들이 떨어졌다: 아나가 우리를 쫓아 온 것이다. - 너 자는 거 아니었어? - 형이 그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우리를 지나쳐 달려갔다.

(24) Я не верю Ольге. - Почему ты так говоришь? Разве она может обмануть? - Ты всегда думаешь о людях слишком хорошо.¹⁷⁾ 나는 올가를 믿지

16) 예(28)는 Скороходов & Хорохордина(2017:24)에서 인용.

않아. - 너 왜 그렇게 말해? 그녀가 정말 속일 리가 있겠어? - 너는 항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해.

(25) У меня в ванной трубу прорвало. Уже десять минут, как позвонила в аварийную службу, они всё не едут. - *Неужели* всех соседей зальёт? 우리 욕실에 배수관이 깨졌어. 긴급 보수팀에 전화했는데 아직 아무도 안 오고 있어. - 이웃집으로 정말 물이 샌다는 거야?

(26) Из сейфа пропали ценные бумаги, а ключи был только у Володи. - *Неужели* это он их взял? Нет, он не мог. Ни за что не поверю.¹⁸⁾ 금고에서 자금이 사라졌고, 열쇠는 오직 발로자에게 있었어. - 그가 정말 그것들을 가져갔다는 거야? 아니, 그가 그럴 리 없어. 절대로 믿을 수 없어.

(27) Этот текст очень сложный, а Макс его с листа за пять минут хочет перевести. 이 텍스트는 매우 복잡한데, 막스는 5분 만에 바로 번역하길 원해.

a. *Неужели* ему это удастся. 그게 정말로 가능해? (가능하다면 놀라운 일이다)

b. *Разве* ему это удастся? 그게 정말 가능하겠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28) Слышал, какой скандал шеф закатил Олегу, из-за того что он не пришёл на дежурство? 당직에 오지 않았다고 사장이 올렉한테 얼마나 난리를 피웠는지 들었어?

a. *Неужели* Олег должен был дежурить этой ночью? Мне кажется, по графику была очередь Натальи Петровны. 올렉이 정말 오늘 밤에(도) 당직을 서야 한다고? (= Мы удивлены, что Олег должен был дежурить этой ночью.)

b. *Разве* Олег должен был дежурить этой ночью? Мне кажется, по графику была очередь Натальи Петровны. 정말 올렉이 오늘 밤에 당직이라고? (말이 안 돼) (= Нам кажется, что должен был дежурить кто-то другой, а не Олег)

«Неужели P?»구문은 전형적인 질문-반응표지로서 상대방에게 명제(P)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예29a). 이와 달리 «Разве P?»구문은 문두의 선행발화로서 일종의 부가의문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¹⁹⁾, 이전발화에 대한 화자의 반응 표지라기보다는 상대방이 명제(P)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예29b). 또한 «Разве P?»구문은 해당상황이나 전술 명제에 대한 화자의 논증적 반박의 표지로서 기능한다면, «Неужели P?»는 놀랍고 의심스런 명제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좀더 담화의 지속을 지향하는

17) 예(24)는 Дягилева(2017:82)에서 발췌함.

18) 예문(25-26)는 Скороходов & Хорохордина (2017:25)에서 인용.

19) Зализняк&Шмелев (2021) 227.

긍정적 반응 표지로서 기능한다(예30). «Неужели P?»구문이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감정적 평가(비난) 반응을 나타낸다면 «Разве P?»는 화자의 객관적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평가(놀라움, 불신) 반응을 건인한다(예31). 두 의문소사는 다양한 문체의 텍스트(회곡, 사회평론체)와 구어체 담화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Л. Н. Засорина(1977)의 러시아어 빈도사전에서 Разве (317회)가 Неужели(155회)보다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²⁰⁾ «Разве P?»구문의 용법에는 두 소사가 공유하는 ‘놀라움, 의심’의 기저 의미 외에도 ‘수사적 용법’의 강조 기능, 논증적 ‘반박’ 및 ‘불신’ 의미 기능, 부가의문문의 ‘동의 확인’ 기능, 제한적 선택에서의 ‘불확신’ 등의 의미기능이 부각된다. 반면 «Неужели P?»구문은 화자의 명제에 대한 태도 등 심층구조의 비명시적 양상적 의미가 나타난다.

- (29) a. Неужели правда? (= Is it really true?)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b. Разве не красиво? (= Isn't it beautiful?)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 (30) a. Неужели я тебе еще не показал?
 (= я думал, что показал, но наверное, забыл : 주관적 판단)
 b. Разве я тебе еще не показал? (= я уверен, что показал : 반박)
- (31) a. Неужели ты не могла вызвать врача сегодня? (упрек: 비난)
 b. Разве ты не могла вызвать врача сегодня?
 (удивление, недоверие: 놀라움, 불신)
- (32) a. Неужели вы их читали? (Удивление, Сомнение: 놀라움, 의심)
 b. Разве вы их читали? (Недоверие: 불신)
- (33) a. Разве вы не ездите на машине? (Удивление: 놀라움)
 b. Разве в кино ходим? (Может быть: 불확신)
 c. Разве он двухсерийный? (Удивление, Недоверие: 놀라움, 불신)²¹⁾

20) Дягилева(2017) 84.

21) 예문(29-33)은 Дягилева(2017:85)에서 인용.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의문소사 *Неужели*와 *Разве*의 의미기능의 유사성과 변별성을 고찰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두 소사의 의미구조의 특징을 유사성의 큰 틀에서 조명하고 의미적 차이를 부가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사가 화자의 명제에 대한 태도를 비명시적으로 함축하는 까닭에 단지 ‘놀라움과 의심’의 기저 의미로 두 소사의 의미적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소사가 맥락 내에서 수행하는 의미적 변별성과 유사성을 다양한 문체의 텍스트를 토대로 살펴보고 충분한 맥락이 제시된 용례와 최소의 맥락이 제시된 용례를 비교하여 유의미한 의미기능과 개별적 용법들을 고찰하였다. 소사가 갖는 양상적 의미의 중첩성과 다의성으로 인해 표층구조에서는 유사한 의미구조로 보이지만 실상 두 의문소사는 상호교체가 불가능한 다양한 문체적 맥락의존적 의미기능을 갖는다. 우선 «*Неужели P?*»의 의미구조에는 해당상황(S)이나 전술명제(P)의 사실성 및 명제에 대한 화자의 수용적 태도가 고려되고, «*Разве P?*»구문은 화자1의 전술명제(P)와 화자2의 믿음(~P)의 괴리에서 비롯되는 논쟁적 태도가 반영된다. 즉, «*Разве?*»구문은 화자1이 전달하는 명제의 사실성에 대해 ‘불신, 반박’의 양상적 의미를 내포한다면, «*Неужели?*»구문은 화자1이 기술하는 명제를 사실로 수용하되 이에 대한 ‘의심과 놀라움’을 나타낸다. 두 의문소사가 모두 의심(сомнение)의 의미기능을 기저에 두고 있으나 «*Неужели P?*»구문의 의미기능이 주로 해당상황(S)과 전술명제(P1)에 대한 화자의 ‘수용’에서 비롯된다면, «*Разве P?*»구문의 ‘의심’은 화자1과 화자2의 인지적 불일치(когнитивный диссонанс)에서 비롯된다. 또한 개별적 용법에서 이러한 ‘의심’의 방향이 화자에게 전이되어 자신의 선택 및 판단에 대한 ‘불확신’의 의미기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Разве P?*»구문은 해당상황이나 전술명제에 대한 화자의 논증적 반박의 표지로서, «*Неужели P?*»는 놀랍고 의심스런 명제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좀더 담화의 지속을 지향하는 반응 표지로서 기능한다. «*Неужели P?*»구문이 화자의 명제에 대한 태도 등 심층구조에서 활성화되는 비명시적 양상적 의미가 우세하다면, «*Разве P?*»구문의 용법에는 두 의문소사가 공유하는 ‘놀라움, 의심’의 기저 의미 외에도 화용화 단계에서 ‘수사적 용법’의 강조 기능, 논증

적 ‘반박’ 및 ‘불신’ 의미기능, 부가의문문의 ‘동의 확인’ 기능, 제한적 선택에서의 ‘불확신’ 등 의미기능들이 부가적으로 나타난다. 이 두 조사들은 문장에서의 위치 및 어순과 억양구조 면에서도 차이를 보이며²²⁾ 다양한 의미기능을 수행하는데, 최소 맥락에서 양상소사로서 사용될 때 의문소사로서의 발화의도(질문-반응)는 중립화되어 궁극적으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놀라움)만을 나타내는 양상소사로 기능하기도 한다(Разве так учится? - Неужели так учиться?). 결론적으로 «Неужели P?»와 «Разве P?»는 ‘놀라움과 의심’이 의미구조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지만 맥락 속에서 구별되는 비명시적인 함축의미로 인해 (의미의 왜곡 없이) 상호 교체가 불가능하다. «Разве?»가 주로 ‘의심, 불신’을 지향하고 자신의 관점을 표명하기 위해 상대방을 논쟁으로 초대하는 논증적 ‘반박’의 표지로서 명제부(диктум)가 활성화된다면, «Неужели?»는 감정적(놀라움, 의심, 비난) 표현의 양상부(модус)가 활성화되고 동시에 상대방의 진술명제(P)에 좀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대화를 지속하려는 담화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상소사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의미의 중첩성과 다의성으로 나타나기에 이들의 의미적 불변체를 유형화하여 유의미한 의미구조를 도출한다는 것은 무모한 시도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들 조사들의 의미적 유사성과 개별적 용법의 의미적 차이를 살펴보고 의미구조의 특징적 윤곽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조사들에 대한 심층 연구를 건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양상소사들과 연계하여 향후 의미 있는 후속 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2) Муханов(1982:218)에 의하면 이 두 조사들은 최소의 맥락에서 사용되었을 때 어순과 억양구조에서 윤율적 차이를 보이는데 의문소사로서 «Разве P?»는 억양구조 ИК-3으로 문두(Разве он приехал?)외에 문중(Он разве приехал?), 문미(Он приехал разве?)에 위치할 수 있다. 반면 «Неужели P?»구문은 문두(Неужели ты сдал этот экзамен?)에서 ИК-2를 갖고, 문중(Ты неужели сдал этот экзамен?)에서 ИК-3의 억양구조를 취한다.

참고문헌

1. Апреся Ю. Д. Типы информации для поверхностно-семантического компонента модели “смысли - текст” // *Wiener slawistischer Almanach*, Sonderband 1. 1980.
2. Арутюнова Н. Д. Язык и мир человека. М., 1999.
3. Баранов А. Н., Кобозева И. М. Модальные частицы в ответах на вопрос // *Прагматика и проблемы интенциональности*. М., 1988. - С. 45-69.
4. Баранов А. Н., Плунгян В. А., Рахилина Е. В. *Путеводитель по дискурсивным словам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 1993.
5. Белошапкова, В. А. Равнозначны ли разве и неужели? / В. А. Белошапкова, Е. Б. Степанова // *Русская речь*. – 1983. – № 5. – С. 57–59
6. Булыгина Т. В., Шмелев А. Д. *Языковая концептуализация мира* (на материале русской грамматики) М.: Школа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1997.
7. Великий и могучий: разве и неужели. – URL: <https://yablor.ru/blogs/velikiy-i-moguchiy-razve-i-neujeli/5387975>(Дата обращения: 08.010.2023).
8. Вольф Е. М. *Функциональная семантика оценки*. М., 2002.
9. Дягилева И. Б. Частицы разве и неужели: контексты употребления // *Мир русского слова*. 2000. № 3. С. 81–84.
10. Колесникова С. М. *Русские частицы: Семантика, Грамматика, Функция*. М.: Флинта. 2015.
11. Колокольцева, Т. Н. *Специфические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е единицы диалогической речи* / Т. Н. Колокольцева. – Волгоград: Изд-во Волгоград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001.
12. Муханов И. Л. *Несобственно-вопросительные значения вопросительных по форме предложений*. // РЯЗР, 1982, № 3,4.
13. Николаева Т. М. *Функции частиц в высказывании* (на материале славянских языков). М.: Наука, 1985.

14. Ожегов, С. И. *Словар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70000* / С.И. Ожегов; под ред.
15. Формановская, Н. И. Речевой этикет. *Русско-английские соответствия: Справочник*. 2-е изд., испр. / Н. И. Формановская, С. В. Шевцова. – Москва: Высшая школа, 1992.
16. Ефремова, Т. Ф.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служебных частей реч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около 15000 словарных статей, около 22000 семантических единиц* / Т. Ф. Ефремова. – 2-е изд., испр. – Москва: Астрель: АСТ, 2004. – 815 с.
17. Светлышев Д. С. *Служебные слов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учеб. пособие*. М., 1986.
18. Святогор И. П. Вопросительные частицы в составе вопросительных предложений //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лексики и грамматики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Тула, 1976. С. 58-67.
19. Скороходов, Л. Ю. *Окно в Россию: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как иностранному для продвинутого этапа: в 2 ч. Ч. 2.* – 5-е изд. / Л. Ю. Скороходов, О. В. Хорохордина. – Санкт- Петербург: Златоуст, 2017.
20. 예문 검색: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пу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https://ruscorpora.ru>)
검색일(2023.10 ~ 2024.03)

Abstract**A Study on the Semantic Functions of the Russian
Particles ‘Neudzeli’ and ‘Razve’**

Baek, Kyung He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semantic functions of the interrogative particles ‘Неужели’ and ‘Разве’. Although existing studies have highlighted the features of the semantic structure of the two interrogatives in the framework of their similarities and have additionally addressed their semantic differences,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the two interrogatives in a dichotomous way because the interrogative usually implies the speaker's attitude towards the proposition. In the present study, we examine the semantic distinctiveness and similarity of each pronominal case in context by comparing fully contextualized and minimally contextualized cases in texts of different stylistic varieties and examine their semantic functions. The construction of "Разве P?" functions as a marker of a speaker's argumentative refutation of a circumstantial or tactical proposition, while "Неужели P?" functions as a response marker that aims at further discourse continuation by partially accepting a surprising and doubtful proposition. In addition, due to the overlap and multiplicity of their modal meanings, the two interrogative predicates have various stylistic context-dependent meanings that are not interchangeable, even though they appear to have similar semantic structures on the surface.

Key words : Interrogative Particle, HEUDZELI, RAZVE, Argumentative, Responsive Markers, Discourse Functions

A Cognitive Approach: Informational Status of Boundaries and Non-Boundaries in Russian Word Order

최 하 늘*

국문 초록

어순은 러시아 어학에서 꾸준한 관심을 받았던 주제 중 하나이다. 형태적 격 표지를 가지는 슬라브어 중 하나인 러시아어는 자유로운 어순을 가진다. 러시아어의 어순은 형태적 격표지로 인해 영어와 달리 문법 성분을 표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며, 대신 화용적 기능에 봉사한다. 선행연구들은 러시아어에서 문장의 구성 요소들이 어순에 의해 ‘화제-초점’의 순서에 맞게 배열된다고 기술한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 더해 실제 러시아어 어순 기술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접근법을 제시한다. 이 접근법은 러시아어 어순에 대한 기능적·인지적 접근법을 포함한다. 본 논문은 Prince(1981)의 세분화된 정보 위상을 활용한 러시아어 어순 분석을 통해 러시아어 어순에서의 정보 위상이 비단조적으로 분포한다고 주장한다. 처음과 끝에 현저성을 부여하는 인간 인지로 인해 문장의 양 끝에는 비교적 정보가치가 높은 요소들이 배치되고, 문장의 중간부로 갈수록 정보가치가 낮은 요소들이 배치된다. 이 주장은 러시아어의 자유로운 어순이 문장의 선형구조 내 정보 위상의 단조적인 증가를 반영하도록 구현된다는 기존 연구들의 가정을 보완한다. 필자는 러시아어 어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들의 홍수 속 실제 언어 현상에 가장 가까운 기술과 분석을 향해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 러시아어 어순, 기능적 문장 분석 관점 (FSP), 테마-레마, 담화, 토픽 기능, 선형 구조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박사과정, skytune@snu.ac.kr

** I in advance clarify that this article is a modification of my master's thesis submitted in 2023 Decemb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 Introduction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the word order in Russian serves the pragmatic function of marking theme–rheme relationship. Unlike in English where word order marks grammatical relationship, word order in Russian is not considered a grammatical rule. It is not a solid formal expression where its breaching results in ungrammaticality. However, regular patterns regarding the expression of pragmatic functions are demonstrated in Russian word order. Previous research argues that Russian obeys the general order of theme preceding rheme. The pragmatic function theme, which is ‘given’ information or information the sentence is ‘about,’ precedes ‘new’ or ‘commenting’ information a sentence eventually intends to convey – the rheme. The order of rheme following theme is natural in that we cannot talk about something that we do not know, or is not at the center of the discourse yet.

Apart from the problem of theme preceding rheme, less attention was given to the problem of the binary division of pragmatic function. In the framework of the binary scale of theme–rheme, the value of information increases throughout the linearization, eventually heading to the highest point of information value towards the end of a sentence. Adding on to the findings of previous research, including the binary approach, I will show that information value does not always demonstrate a unidirectional increase throughout the linearization. I will capture this subtle difference that binary distinction could not through a more elaborated scale of information value.

In actual speech, the high cognitive salience¹⁾ of sentence boundaries can overshadow nearby elements and results in the fluctuation of information value throughout linearization structure. The cognitive salience of sentence boundaries is based on one of the very fundamental aspects of human cognition, which is highlighting the beginning and the end. For instance, in

1) I use ‘cognitive salience’ in this article in a broad sense. It is the degree of importance and significance of a referent in human cognition.

the linguistic expression of motion event, together with the goal, the source as its co-argument receives attention and undergo argument realization.

I use the mathematical expression non-monotonic to describe a change of information value in linearization structure. Non-monotonic graph, linear but not integral, reflects the fluctuation of information value heading to the highest point towards the end of a sentence. I will argue that Russian word order in a discourse demonstrates a ‘non-monotonic’ flow of information value.

I chose Putin’s speech and interviews as a text for the analysis. I selected this text because it is an interesting genre where two different styles coexist. It is a well-planned script where the speaker has organized the content of the speech in advance.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conversational and unplanned, in that it includes speaker’s spontaneous interaction with the audience or the interviewer. Putin’s language I analyzed is contemporary formal Russian in style and it is grammatical. It is not a vulgar style²⁾ that occasionally appeared in the early times of the regime. Furthermore, the purpose and discourse context of the speech are relatively clear, a speech of a president in front of the public. I could define the shared knowledge set between interlocutors through common sense.

I am clarifying in advance that my analysis does not have to do with the content and political context regarding the producer of this text. My motivation for analyzing the text came from interesting characteristics of the text as linguistic material with mixed style and the availability of the script and the audio file on Kremlin’s official homepage Prezident Rossiija ‘President of Russia (<https://en.kremlin.ru/>).’³⁾

I will use theme-rheme as a cover term to refer to domains in a sentence that include both old-new and topic-focus components. Since it is implausible to assume a referent for the domain with multiple syntactic

-
- 2) Putin in the early times of his regime often demonstrates this strategy of speech characterized as ‘vulgar’ style (Gorham, 2017). He purposely used low-style words and expressions, exhibited frequently with emotionally marked emphatic word order.
- 3) The word count of the analyzed text totals around 10,000.

components,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use the terminology of topic-focus, which requires a referent for a clause to be about. Thus, I use topic-focus only to refer to a single element with a referent. I also assume that when there is no explicit mention, sentential stress is at the default sentence-final element. Because the audio analysis is not always clear-cut, I accounted comprehensively for the discourse and content of the text to decide the information structure and the placement of sentential stress and verified it with the audio file.

The first section of this article gives an overview of previous studies regarding non-binary approach to information structure, introducing theoretical backgrounds and concepts necessary for the analysis in the next section. The second section demonstrates an analysis closer to Russian word order in actual speech, complementing previous research.

II. Previous studies

With the rise of the cognitive-linguistic approach in the la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ere have been attempts to explain languages in relation to human cognition. Specifically for word order,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can encompass human cognition annotated systematic and structuralist analysis of word order patterns. These approaches include non-binary approaches to information structure, which I will implement in this research.

II.1. Human Knowledge and consciousness

Yokoyama (1986) introduces the concept human ‘knowledge subsets’ (Yokoyama, 1986: 3) to incorporate cognitive reality in her analysis of Russian word order. These mental subsets of interlocutors have four parts: the knowledge set of two interlocutors, A and B, and their subsets, C_a and C_b , which are current concern sets of A and B, respectively. A represents

the speaker, while B is the hear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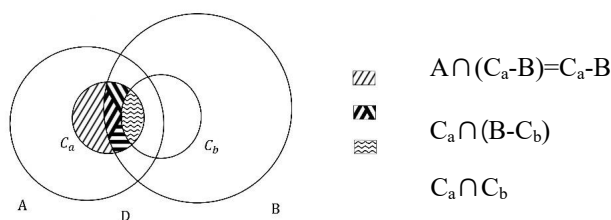
The intersection of A and B, $A \cap B$, is a ‘shared knowledge’ set between interlocutors. The intersection of subsets C_a and C_b , $C_a \cap C_b$, is the ‘shared attention’ set of interlocutors which includes elements under current concern in discourse.⁴⁾ In addition to activated referents, $C_a \cap C_b$ includes basic constituents of discourse — interlocutors, deixis, and $\|P\|$ (predicational/situational information),⁵⁾ referred to by Lambrecht (1994) as constituents of the text-external world. The deixis that the intersection $C_a \cap C_b$ includes is $\{I, YOU, HERE, NOW\}$.

These sets intersect to form six knowledge subsets. Among these knowledge subsets, only subsets $C_a \cap C_b$, $C_a \cap (B - C_b)$, and $A \cap (C_a - B)$ that belong to the speaker’s current attention set are attested. I adapted in (1) the diagram of Yokoyama (1986: 5) to include only subsets that actually appear in discourse (except for the B-A in interrogatives. I will explain below.)

4) This distinction between knowledge and attention is not unfamiliar to cognitive-linguistic approaches to discourse. Lambrecht (1994:93) explains this as follows: “Given the vastness of the knowledge stored in a person’s mind, it is clear that this assumption is not warranted. Knowing something and thinking of something are different mental states. (...) In other words, as Chafe has repeatedly emphasized (1974, 1976, 1987), conveying information in a natural language not only involves KNOWLEDGE but also CONSCIOUSNESS.”

5) “When the speaker does not have propositional knowledge but asks “What happened”, the speaker clearly still has some minimal knowledge about the event, namely that “it”, i.e., the unspecified event, took place. I will call this minimal knowledge predicational knowledge, or $\|P\|$. Predicational knowledge is represented in English by general predicates of an essentially aspectual and temporal nature like “happen”, “be going on”, “do”, “be”, or “become”.” (Yokoyama, 1986: 12)

(1)



According to Yokoyama (1986), the word order in Russian reflects the order of domains: $(B-A) \rightarrow C_a \cap C_b \rightarrow V \rightarrow C_a \cap (B-C_b) \rightarrow A \cap (C_a-B)$. The components align in order from the knowledge under the attention of both the speaker and the hearer ($C_a \cap C_b$); knowledge the hearer knows, but only the speaker is paying attention to ($C_a \cap (B-C_b)$), and finally, the knowledge and current attention exclusive to the speaker ($A \cap (C_a-B)$) comes. The knowledge the speaker expects to be exclusive to the hearer ($B-A$) is exceptional, and it appears only in interrogative sentences.

In a Russian sentence, components generally align from those exclusive to the shared attention set $C_a \cap C_b$ to speaker A's current attention set C_a . This order is natural since interlocutors increase the shared part of their knowledge set from the information they both know or are paying attention to that only the speaker does.

The discourse status of mental representation is not static but dynamic. A referent could be 'demoted' from interlocutors' shared area of current interest $C_a \cap C_b$ to other less activated areas. In example (2), the deictic element *u menja* 'from me' is demoted from $C_a \cap C_b$ to $C_a \cap (B-C_b)$ while another deictic element *ty* 'you,' remains in $C_a \cap C_b$ at the forefront of the sentence.

(2) *ty ukrali u menja den'gi* 'You stole my money'

(Yokoyama, 1986: 222)

Yokoyama's (1986) model can account for another aspect of communication — mistake. Speaker's assessment of hearer's knowledge is not absolute, and speaker often misassesses informational status of a component. When a speaker abruptly imposes an inactive or unknown concept on the $C_a \cap C_b$ at the forefront of the linearization, one possible result is the hearer accepting the cognitive status of mental representation imposed by the speaker through pragmatic accommodation. Or else, the hearer could require a revision or explanation to the speaker. In this case, the acknowledgment of speaker for the misassessment of hearer's knowledge set, and ensuing revision follows.

II.2 The monotonic flow of information value

Although Yokoyama provides an exemplary cognitive account of Russian word order, an unresolved question remains. In Yokoyama's model of $(B-A) \rightarrow C_a \cap C_b \rightarrow V \rightarrow C_a \cap (B-C_b) \rightarrow A \cap (C_a-B)$, where the verb has a transitional character in the middle, the elements align in order from the area that is closer to the shared attention set to the subset of speaker's exclusive attention.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in her model overlaps with the dynamics of Firbas' (1966) Communicative Dynamism (CD), in that there is unidirectional flow of information within linearization.

(3) *Ivan emu dal ego* 'You stole my money'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of Svedstedt (1976) underscores possible fluctuations of information value throughout a sentence in Russian. He shows how prosodically weak pronouns spread throughout the sentence and form troughs of information value, as in (3). In this sentence, pronouns *emu* 'to him' and *ego* 'it' have low information value compared to the proper noun subject and the verb around them.

The limitation of Svedstedt's analysis is that it includes only pronouns

as the subject of analysis. The researcher focuses on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pronouns that are phonologically weak. He especially focuses on how phonologically menial statuses of pronouns pro-/en-cliticize themselves to the verb by comparing the frequency of SVC and SCV orders with pronominal complements. Adding on to Svedstedt, I will delve into cognitive status of clause/sentence middle parts that contain not only pronouns but also lexical NPs.⁶⁾

II.3 Assumed Familiarity (Prince,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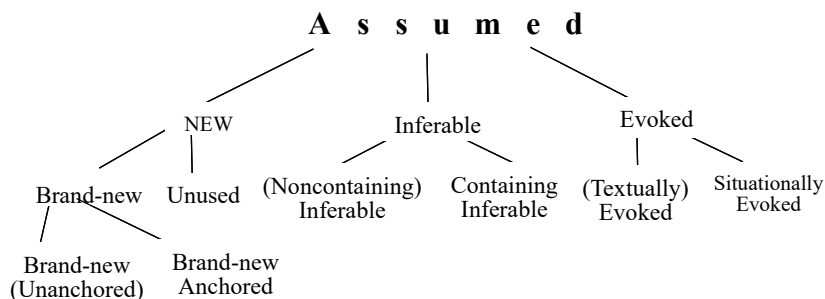
Before starting the analysis, I will briefly introduce the categories that constitute the continuum of informational status that I will use in this chapter. Discourse decides informational status and how referential expressions are interpreted at the moment of the utterance, regardless of the origins of their referents in layers of givenness.⁷⁾ To accoun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ourse dynamics and informational status, Prince (1981) devised an Assumed Familiarity scale, which diversified the before binary categories of informational status. Between labels of binary

6) As Lambrecht (1994: 95) rightly observes, not only pronouns but lexical NPs which are already activated (i.e., closer to the status old) in discourse can be unaccented. The iconic relationship between weak stress and activation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is compatible with cognitive-linguistic analysis in my research that includes lexical NPs.

7) As information packaging is a process in discourse, the term givenness encompasses various grounds of discourse. Lambrecht (1994) analyzes discourse as consisting of two worlds, the 'text-internal' and the 'text-external' world. The text-external world is the physical background of utterance, and text-internal world is linguistic representation of that reality. Prince (1981) refers to these worlds by different terms 'Givenness-Predictability'/'Recoverability' and Ariel (1990) 'Givenness-Physical Context'/'Linguistic Context.' In addition to these two worlds, Prince (1981) and Ariel (1990) each added another concept of 'Givenness-Shared Knowledge' and 'Encyclopedic Knowledge' which are rough parallels to common-sense knowledge about the world.

However, both Prince and Ariel reject classifying the categories of information value based on different levels of givenness. Rather, regardless of a referent's origin in givenness layers, the informational statuses of mental representations are reevaluated within the dynamics of discourse.

categories, old and new, each at the right and left end of the scale, this scale adds an intermediary category ‘inferable’ between them.



(Prince, 1981:237)

The first category at the leftmost side is the ‘brand-new’ element, the entity introduced to discourse for the first time. The brand-new information could anchor to previously given information or remain unanchored. The elements *a bus* and *a guy* in sentences “*I got on a **bus** yesterday, and **the driver** was drunk*” and “*A **guy** I work with says **he** knows your sister*” are brand-new items. However, *a bus* is an unanchored brand-new item, while *a guy I worked with* anchors to the clause *I work with*, which is an evoked element (Prince, 1981: 233-234).

The ‘unused’ status is when a referent is in the knowledge set of interlocutors but has not been activated yet. The concept of a referent has to be recalled from knowledge to consciousness to enter the discourse. The *Noam Chomsky* in “*Noam **Chomsky** went to Penn*” is unused (Prince, 1981: 233-234). The hearer already knows the proper noun *Noam Chomsky* but has to activate the element by mentioning it to use it in discourse. Most proper nouns are unused since a speaker is unlikely to use proper noun for the entity he/she does not know already.

The ‘evoked’ element is an entity that is not only known, but already activated in discourse. Elements are evoked either ‘situationally’ or ‘textually.’ The item can be textually evoked through direct mention of the

item in discourse and situationally evoked through belonging to the basic settings of discourse.

The status ‘inferable’ is when a speaker expects the hearer to infer a concept from the already evoked information. There are two types of inferables — the ‘containing’ and the ‘non-containing.’ Containing inferable elements elicit logical inferences from explicitly evoked information. For instance, deriving an inference from the already mentioned phrase *these eggs* a set-member information, *one of these eggs* is one example of containing-inferable (Prince, 1981:236). Otherwise, it is uncontaining-inferable where cultural or situational factors not directly mentioned in a discourse triggers the inference.

The most frequent example of non-containing inferable is ‘frame’ (Fillmore, 1982) relationship to another evoked item. When talking about dinner last night in a restaurant, for the sentence “You gave too much of a tip to the waiter,” *the waiter* can have a definite article since it is considered inferable within discourse as being part of the frame of the already evoked referent restaurant.

With the similar scale of ‘Assumed Familiarity,’ Lambrecht (1994) divides it into ‘identifiable’ and ‘unidentifiable.’ The category unidentifiable includes brand-new items, and the rest of the scale is labeled identifiable. Unused items are identifiable and inactivated, and inferable items are considered identifiable and accessible. Evoked items (given in Lambrecht, 1994: 109) are activated. However, unlike English, which Lambrecht mainly analyzed, Russian does not have a definiteness marker, which renders the distinction of identifiable-unidentifiable less useful. The scale of givenness in Gundel, et al. (1990; 1993) incorporates various morphological forms that express definiteness/identifiability directly without reference to a separate layer of identifiability (Gundel et al., 1990; 1993).⁸⁾

8) Ariel (1990) devises an accessibility scale where different degrees of activation for mental representations are represented by their morphology. She employs a coarser scale of Low/Intermediate/High Accessibility. Gundel, et.al. (1993) also focuses on the correspondence of different morphological forms to informational statuses in

I will employ the Assumed Familiarity of Prince (1981) for the analysis in next section, since the scale is at a transitory stage from the traditional old-new binary distinction developing towards a fine-grained continuum. This scale will enable to compare a coarse binary division with a more elaborated cognitive approach.

I will consider labels evoked and new as roughly corresponding to the old-new distinction of the past. I assume that inferable information that has an intermediate status can belong to either side, but has distinct value from each end. It is controversial whether these informational statuses could be aligned hierarchically through a single parameter of information value.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distinguishing different informational status of sentence-boundaries and sentence middle components, I assume the higher informational value of new compared to evoked.

III. Demystifying the integrity of theme and rheme

As mentioned above, previous research often assumes unidirectional flow of information in linearization structure. Information value rises throughout the whole sentence as it heads to the sentence-final position. K. Boost (1955)⁹⁾ and D. Bolinger (1952: 1118-1119) in addition to Russian scholar A. Mel'ničuk (1958)¹⁰⁾ support a one-way increase of information value, each employing different terminologies such as tension, point (in a linear modification),¹¹⁾ starting syntagm—basic syntagm (*isxodnaja*

typologically diverse languages.

9) Boost, K. (1955). *Neue Untersuchungen zum Wesen und zur Struktur des deutschen Satzes* (Der Satz als Spannungsfeld), Berlin. (As cited in Adamec, 1966: 19).

10) Mel'ničuk, A.S. (1958). *Porjadok slov i sintagmatičeskoje členenije predložnij v slavjanskix jazykax*. Kiev (As cited in Adamec, 1966: 19).

11) "Though circumstances would distort it more or less, we can, therefore, say that the sentence as a complex semanteme has a pointed structure with hyperbolic-flaring sides: (...) The open end of the horn represents the moment of pre-speaking, followed by the first word and each word in course. (...) But for practical purposes

sintagma-osnovnaja sintagma).

This subsection will show that the flow of information in the actual division of a sentence is often not strictly unidirectional. Although not rigorous, earlier research has noted the limitations of binary distinction, mentioning the low cognitive salience in the middle of linearization. For instance, in Adamec (1966: 21), the theme could have an elaborated and hierarchical division of the primary (*primarnaja*), the secondary (*sekundarnaja*), and even the tertiary (*tertiarnaja*) theme (/basis).¹²⁾ Adamec (1966:21) explains that these different types of themes are hierarchical. In other words, Adamec explains that the division of communicative functions theme-rheme is repeated within a single communicative function theme.

According to Givón (1983: 16), topic is a ‘complex functional domain’ where diverse parameters that relate to topicality decide the “degree of topic accessibility.”¹³⁾ Subsequently, under the same functional category topic, functions with heterogeneous quality coexist. Givón (1988: 248) refers to the more stably established topic as the *secondly topic* with

we may represent it as a point. It follows that towards the broad end of horn will be broader in meaning, those toward the narrow end will be narrower, than the same words would be if their position were reversed.” (Bolinger, 1952: 1119)

- 12) Adamec’s terminology primary and secondary theme are the reverse of Lambrecht’s (1994) version. In Lambrecht, the primary topic is a more longstanding discourse topic, while the secondary topic is a more immediate topic of interest.

Why am I in an up mood? Mostly it’s a sense of relief of having finished a first draft of my thesis and feeling OK at least about the time I spent writing this. The product I feel less good about.

(Lambrecht, 1994: 147)

The *I* which refers to the speaker in (i) is a discourse topic while *The product* is a subject that is a referent of a more immediate interest. I will adhere to Adamec’s (1966) terminologies, since it labels elements by their sequence, conforming better to the goal of this article which is analyzing word order. Givón (1983: 22) also follows the labeling of Adamec.

- 13) The heterogeneity of concepts that decide topic in Givón (1983) is what I mean to cover by using the terminology theme. I used the term topic where I summarized Givón’s (1983) theory since it is a term the researcher used in his research.

‘predictability.’ These topics persist throughout discourse and are placed higher on the topicality scale. Their activation is often assumed even without prior mentioning.

The *secondly topic* is a more global scale topic already firmly established in discourse through repetitive mentioning. They enjoy great topic continuity (Givón, 1983: 27) through their firm status in discourse without decaying. The firm status of the secondly topic within a discourse often leads to their deletion, from which Russian is no exception. For effective communication, there is no need to repeat the already activated element. In example (5), the subject *my* ‘we’ in preceding paragraph is deleted in the next paragraph with the forefronted complement *ètu zadaču* ‘this task.’

(5) *I my dolžny byt’ gotovy k tomu, čtoby v ljuboj moment zaščitit’ našu stranu i ee graždan, umet’ prognozirovat’ situaciju na perspektivu i v sootvetstvii s nej razvivat’ svoj voennyj potencial.*

Dlja dostiženija ètix celej v poslednie gody bylo sdelano nemalo. K 2020 godu o planiruem obnovit’ osnovnye vidy vooruženija na 70 procentov. I ètu zadaču o budem, konečno, rešat’ na osnove dostiženij našego otečestvennogo OPK. Imenno otečestvennaja industrija i naši konstruktorskie centry, v modernizaciju kotoryx sejčas vkladyvajutsja kolossal’nye sredstva, prizvany rešat’ ètu zadaču.

‘And we must be prepared to defend our country and its citizens at any moment, be able to foresee the situation in the long term, and develop our military potential accordingly.

In recent years, much has been done to achieve these goals. By 2020, we plan to renew the primary types of armaments by 70 percent. And we will, of course, solve this task based on the achievements of our domestic defense industry. It is our domestic industry and our design centers, into the modernization of which colossal funds are currently being invested, that is intended to solve this task.’

(2013, 17569)

Interlocutors referred to by the deictic expression *my* 'we' are generally assumed to be the same people throughout the discourse. The information value of the situationally evoked element is low and it does not bother understanding even when it is deleted across paragraphs.

The primary topic is less predictable but instead has more 'importance' (Givón, 1988: 248). It is a less firmly established topic in discourse. While the secondly topic is persistent and develops in discourse anaphorically, the primary topic with importance would develop cataphorically being a ground for the following contents of discourse. Based on this cognitive concept of predictability and importance for topics, Givón suggests a series of rules that can predict word order.

(6) a. Informational predictability and word-order

"More predictable/accessible information will tend to be post-posed ('moved to the right'); less predictable/accessible information will tend to be pre-posed ('moved to the left')."

b. Principle of communicative task urgency:

"A communicative task is more urgent when the information to be communicated is either less predictable or more important."

c. "Attend first to the most urgent task."

(Givón, 1988: 252-276)

According to this rule, the more predictable secondly topic would be post-posed following the principle (6a). In contrast, the less predictable and important primary theme would be pre-posed according to the same principle. The cognitive concept of urgency also demonstrates the same result. The primary topic is classified as more urgent through principle (6b) and should be attended first according to the principle (6c).

(7) Linear ordering, attention, and memory:

"The string-initial position invites the hearer to *pay more attention*, and thus to store and retrieve the information more efficiently."

(Givón, 1988: 276)

Adding onto Givón's deconstruction of the uniform notion of topic, I will suggest a cognitive linguistic understanding that accounts for both peripheries of a sentence. I will level different informational statuses that were under the single term theme and rheme before.

It is unknown whether the qualitatively different information value of theme and rheme is comparable across categories. I will assume here that different information value of elements within a category theme and rheme is comparable, but reserve my judgment for the comparability across categories.¹⁴⁾ The later description for the flow of information as V or W in the article is a metaphor for better understanding. I do not assume the information value of theme and rheme is quantitatively comparable.

III.1 Non-monotonic flow of information value

Information value in linearization structure is far from monotonic. The non-monotonic flow of information value relates to human cognition that assigns particular prominence to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event. Verbal linearization is not an exception to this cognitive trait. To illustrate this characteristic of human cognition, imagine attending a Physics lecture. Unless the lecturer possesses an extraordinary gift of the gab, captivating the audience throughout the lecture, or the audience exhibits exceptional comprehension and enthusiasm, the audience usually remembers only those parts of the lecture that align with their interests or existing background knowledge.

There is, however, an exception to this pattern. Most students are likely to remember the lecture's opening (the topic, i.e., what the lecture is about) and its conclusion (something close to focus), often having less

14) Ariel (1990) uses a single parameter accessibility for the analysis of information packaging. Siloussar (2007: 13) distinguishes two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value by using two parameters of "accessibility" and "salience" for each periphery. Even for Siloussar, these parameters do not completely overlap with a communicative function of topic or focus.

vivid, less salient memories left for the middle part of the lecture. Also, when summarizing a lecture, it is typical to include the topic and its conclusion. In events or rituals, people tend to underline personally meaningful moments together with its beginning and the end.

Similarly, information in the middle of the linearization often loses its significance compared to its peripheries. Each periphery of a sentence usually serves the role of topic-focus that requires cognitive salience by having a clear role in communication. In addition, informational status can also benefit from the cognitive salience of sentence boundaries. Displaying new and cognitively high-costing elements at sentence boundaries is a more effective strategy than displaying cognitively low-costing elements in these cognitively salient positions. Both informational status and topic-focus roles can utilize the cognitive salience of sentence boundary positions.

This fluctuating pattern of cognitive salience resembles the tilted letter V with a trough in the middle. The complex of preverbal elements with different information values occupies the first part of the fluctuating pattern V. This constitutes the right-downward movement of V. Subsequently, the verb (in the SVC configuration) motivates the increase of information value after the secondary theme that occupies the lowest position in V.

The information value of the verb is not only higher than the directly preceding element but even higher than the sentence-initial element. The verb in sentence-middle position is usually new information belonging to rheme. Thus, the V shape of information value distribution is unbalanced, and results in a tilted V form where the level of right periphery is higher than left periphery.

III.2 Theme-complex

In this section, I will explain how diverse informational statuses can divide a single communicative function in a preverbal position into two subparts. The secondary and subsequent themes are separate from the primary theme due to their relatively higher degree of givenness, avoiding

the cognitively salient sentence-initial position. Pronouns typically fill in the second slot following the sentence-initial position since they are inherently old information. Pronouns include anaphors with antecedents and the first and second-person pronouns which are given by nature as deixis. In a discourse, these deixis refer to the members of discourse, the interlocutors.

(8) *No problema, kotoruju Vy upomjanuli, problema PRO, protivoraketnaja oborona **Soedinennyx Štatov**, ona, konečno, javljaetsja segodnja odnoj iz ključevyx, potomu što zatragivaet žiznenno važnye interesy **Rossijskoj Federacii**. Na **ekspertnom urovne dlja vsech ponjatno, što rešenie ètoj problemy v odnostonnem porjadke meždunarodnuju stabil'nost' ne ulučšaet. Èto, po suti, stremlenie narušit' strategičeskij balans.***

‘The problem you mentioned, the issue of the U.S. ballistic missile defense (BMD), is indeed one of the key issues today as it affects the vital interes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t the expert level, it is understood by all that a unilateral solution to this problem does not enhance international stability. Essentially, it is seen as an attempt to disrupt the strategic balance.’

(2012, 16393)

In (8),¹⁵⁾ the *Na ekspertnom urovne* ‘At the expert level’ is a non-containing inferable. There was no prior mention of the distinction between experts and non-experts. Still, its meaning is inferable from the discussion about military strategy, a serious topic that is definitely not novice-friendly.

The element *dlja vsech* ‘for all’ that follows the inferable element is containing inferable. It is part of the logical inference from set-individual relationship referring to *vsech* ‘all’ individual members of the experts from more generic reference to the group that individuals consist, *na ekspertnom urovne*. It is also textually evoked in that it has the same referent with the

15) The example is an excerpt from Vladimir Putin's interview on the TV channel ‘Russia Today.’

preceding primary theme. It has a lower information value than the non-containing inferable *na èkspertnom urovne*. Thus, in example (8), the inferable element, which is higher on the 'Assumed Familiarity' scale, precedes the element with informational status lower on the scale.

This secondary theme need not be a pronoun but could be a lexical NP often with less semantic and prosodic salience. In example (9),¹⁶⁾ the lexical NP *obščenie s gorodom* is not substituted by a pronoun, but the lexical NP is repeated instead. The lexical NP occupies the position of the secondary topic after *Dlja menja* 'for me' and *dlja ljubogo gorožanina* 'for any urban resident.' The status of *dlja ljubogo gorožanina* 'for any urban resident,' is non-containing inferable. It is inferable from *Dlja menja* 'for me,' since the opinion of 'the others' is the counterpart to 'my own' opinion here.

(9) *V.Putin: Vo pervyx, ja dumaju, čto sam vse taki projdus' po ulicam i počuvstvujut atmosferu prazdnika, i ne tol'ko s gostjami, no i so svoimi druž'jami, kotorye žili, živut i budut žit' v Peterburge. Èto vse taki samoe glavnoe. Obščenie s nimi – èto obščenie sobstvenno s gorodom. Dlja menja obščenie s gorodm – èto ne prosto xoždenie po ulicam. Ja dumaju, čto dlja ljubogo gorožanina obščenie s gorodm – èto prežde vsego obščenie s druž'jami, kotorye zdes' živut. Moj kontakt s gorodom prodolžaetsja v takoj forme.*

'Vladimir Putin: Firstly, I think that I will personally walk through the streets and feel the festive atmosphere, not only with guests but also with my friends who have lived, and will continue to live in St. Petersburg. This is still the most important thing. Communicating with them is communicating with the city itself. For me, communicating with the city is not just walking through the streets. I believe that for any urban resident, communicating with the city is primarily interacting with friends who live here. My connection with the city continues in this way.'

(2002, 21638)

16) The excerpt is from the interview with RTR-Saint-Petersburg.

The existence of lexical NPs in the secondary theme position illustrates that en-/ pro-clitization of the pronoun, the morphology itself is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word order change. In (10)¹⁷⁾, the demonstrative pronoun *k ètomu* ‘to it’ is old information evoked textually, referring to *vybor* ‘choice’ mentioned in discourse. *Rossija* ‘Russia’ is also old, but it is situationally evoked since Russian interlocutors are talking about events in their nation throughout the discourse.¹⁸⁾¹⁹⁾

(10) V.Solovev: (...) *Uvažajemyj gospodin Prezident, tol'ko čto vsja strana otmetila Den' zaščitnika Otečestva, a na territorii bratskoj Ukrainy teper' èto sčitaetsja dnem zaxvata Kryma, i Porošenko zjavljaet, čto sdelaet vse vozmožnoe, dlja togo čtoby vernut' Krym. Kakova stadija sejčas **rossijsko-ukrainskix** otnošenij? Prosnemsja li my v odin den', uznav, čto načalas' vojna?*

V.Putin: (...) *Čto kasaetsja gosudarstvennoj prinalležnosti, to ljudi, proživajuščie v Krymu, sdělali **svoj vybor**, k nemu nado odnosit'sja s uvaženiem, **i po drugomu Rossija k etomu, ona odnosit'sja ne možet**. Nadejus', čto i naši partnery i v bližnem, i v dal'nem zarubež'e budut k ètomu odnosit'sja v konečnom itoge tak že, poskol'ku vyssim kriteriem istiny v dannom slučae možet byt' tol'ko mnenie samogo naroda.*

V. Solovyov: (...) Dear Mr. President, the entire country just celebrated Defender of the Fatherland Day. Still, on the territory of our fraternal Ukraine, it is now considered the day of Crimea's annexation, and Poroshenko declares that he will do everything

17) The excerpt is from the interview in 2015 with TV channel VTGRK.

18) It is also textually evoked as the interviewer Solovev directly mentions the referent *rossijsko-ukrainskix* in discourse. In this case, the information value of Russia might be higher than *k etomu* since the contrast between Ukrainians and Russians, as the other countries including Russia cannot intervene in the decision of Ukrainians, is emphasized. In the following part of the sentence after a brief pause, *ona* denoting Russia is repeated, while the complement *k etomu* is deleted. I revised the text file according to the audiofile.

19) *Rossija* having a grammatical role subject might have caused the order to be reversed into ‘situationally evoked—textually evoked,’ overriding information value. In either case, both components are firmly established in discourse than *po drugomu* ‘differently.’

possible to regain Crimea. What is the current stage of Russian-Ukrainian relations? Will we wake up one day to find that a war has started?

(...)

V. Putin: (...) Regarding state ownership, the people living in Crimea have made their choice, and it should be respected. Russia cannot approach it differently. I hope that our partners, both in the near and distant foreign countries, will ultimately treat this the same way because the people's opinion can be the only highest truth in this case.'

(2015, 47730)

The primary theme *po drugomu* 'differently' preceding *Rossija* is inferable information that contrasts alternative attitudes against the due respect for the opinion of Crimean residents. Thus, as a whole, elements in the clause conform to the order inferable—evoked even when the evoked element is lexical NP.

Or else, we could consider *Po drugomu* 'differently' as rheme proper with its governing verb *otnosit'sja*, but fronted by emotional motivation. Even if this is the case, the structure that places the theme between rhemes remains. The structure where both *Rossija* and *k etomu* are surrounded by the rhematic predicative group is evoked. A special emphasis on polarity might have motivated the movement of the rhematic but less important complement to the forefront together with the placement of *ne možet* at the sentence-final position

The deployment of elements in a sentence is not confined to categorial distinction.²⁰ Even when the first two elements of the sentence are both

20) Siloussar (2013: 6), who analyzed informational statuses as gradient also suggests two possible analyses of information structure — gradient and categorial: "Defining accessibility through the focus of attention eventually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gradual in our cognitive systems. (...) In principle there are two ways to do so. First, one or more thresholds can be introduced dividing items into groups like given and new, or active, semi-active and inactive etc. Second, relative accessibility of different items can be encoded: A is more accessible than B, B is more accessible than C etc. A version of this strategy is to mark e.g. the most accessible

given,, their ‘degree’ of oldness can vary.

(11) *Uvažаемые товарищи! Drogie druž'ja!*

*Pozdravljaju veteranov, ličnyj sostav, graždanskij personal Vooružennyx Sil – vse, kto služit, i vse, kto služil v armii i na flote, – s nastupajuščim Dnem zaščitnika Otečestva! **Ètot prazdnik** – ne tol'ko gosudarstvennyj, oficial'nyj, ne tol'ko professional'nyj prazdnik. **On v našej strane po pravu sčitaetsja vsenarodnym.** I otmečajut ego, otdavaja dan' uvaženija tem, kto stoit na straže mirnoj žizni, otstaivaet nacional'nye interesy našej strany.*

‘Dear comrades! Dear friends! I congratulate the veterans, the personnel, and the civilian staff of the Armed Forces - all who serve and have served in the Army and Navy - on the upcoming Defender of the Fatherland Day! This celebration is not only a state or official holiday, not just a professional holiday. It is rightfully considered a nationwide holiday in our country. It is observed by paying tribute to those who stand guard for a peaceful life and defend the national interests of our country.’

(2013, 17569)

In the excerpt from the Defender of the Fatherland Day speech in (11), the element *On* ‘he’ is evoked and refers to *Ètot prazdnik* ‘this holiday’ in discourse, being textually evoked. On the other hand, *v našej strane* ‘in our country’ is situationally evoked. The element *v našej strane* is background information that underlies the whole discourse. Situationally evoked elements are older than textually evoked elements in a sense that they are assumed in the settings of discourse, and also relatively easily evoked through their firm statuses in discourse. Textually evoked elements should be directly mentioned to become one of the elements under attention.

The preverbal complex can have multiple inferable elements. The example in (12) demonstrates that two inferable elements can form a theme-complex.

item.”

(12) *I my dolžny byt' gotovy k tomu, čtoby v ljuboj moment zaščitit' našu stranu i ego graždan, umet' prognozirovat' situaciju na perspektivu i v sootvetstvii s nej razvivat' svoj voennyj potencial.*

Dlja dostiženija ètix celej v poslednie gody bylo sdelano nemalo. K 2020 godu planiruem obnovit' osnovnye vidy vooruženija na 70 procentov.

'And we must be prepared at any moment to defend our country and its citizens, to be able to foresee the situation in the long term and develop our military potential accordingly.

Much has been done in recent years to achieve these goals. By the year 2020, we plan to update the main types of armaments by 70 percent.'

(2013, 17569)

The primary theme *Dlja dostiženija ètix celej* 'to achieve these goals' is an inferable element anchored to the already evoked *ètix celej* 'these goals,' and it is forefronted. The subsequent element *v poslednie gody* 'in recent years' is a non-containing inferable, inferred from the *umet' prognozirovat' situaciju na perspektivu i v sootvetstvii s nej razvivat' svoj voennyj potencial* 'foresee the situation in the long term and develop our military potential' in discourse, that invokes a timeline for the achievement of goals.

The *v poslednie gody* 'in recent years' ceases to develop cataphorically in the next sentence. Not 'in recent years' but 'future goals' of military strategy preshadowed by the primary topic 'to achieve these goals' in the preceding sentence becomes the following content. Both components are inferable, but what develops cataphorically, having more importance in discourse is the preceding primary topic denoting future plans.

In III.2 we saw that preverbal primary and secondary themes demonstrate a continuous decline of information value within the same communicative function theme. A theme is not as homogeneous as often stated; it exhibits a fluctuation of information value.

III.3 Rheme-complex

Previous literature already captured the heterogeneity of information value within a rheme. Bivón (1971) labels the subdivision of informational statuses within a rheme. A rheme can have ‘non-essential new’ and ensuing ‘essential new’ element as its subparts. The non-essential new is often in the middle of the sentence and usually includes a verb, ensued by the essential new element. In addition, there can also be a trough like the old-theme in postverbal domain.

The intrarheme theme mentioned in 3.2.6 draws another V of information flow in the postverbal domain. This V completes a W shape of possible information flow for a sentence as a whole. Timberlake (2004: 449-450) also mentioned that the cognitively less salient elements occupy the sentence-middle part around the verb. The cognitively salient elements usually occupy the peripheries. Timberlake attributes this distribution of information to pro-/en-clitization of elements to the verb due to the weak prosodic value of the informationally less salient elements. I will analyze the same description as a result of cognitive salience of sentence peripheries in linearization.

(13) *Mne kažetsja, čto èto vopros, kotoryj, bez vsjakix somnenij, dolžen byt’ rešen orgkomitetom sovmestno s gorodskimi vlastjami zaranee. I rešen dostatočno èffektivno. Ja imeju v vidu, čto neobxodimo dat’ vozmožnost’ polučit’ udovol’stvie ot ètogo prazdnika I ljudjam, kotorye zdes’ živut, i v to že vrenja pokazat’ gorod gostjam, čtoby oni uvideli čto takoe Peterburg.*

‘I believe this is a question that, without a doubt, should be resolved by the organizing committee jointly with the city authorities in advance. And it should be resolved fairly effectively. I mean, it is necessary to allow people living here to have fun from this celebration and at the same time showcase the city to guests so that they can see what St. Petersburg is like.’

(2002, 21638)

Example (13) has an intrarheme theme that is not a pronoun but a lexical NP. The lexical NP *gorod* ‘the city’ refers to the city of Petersburg that the whole paragraph is about. When repeated in the following clause, the textually evoked element *gorod* ‘city’ referring to *Petersburg* is between the non-essential new/inferable infinitive verb *pokazat’* ‘demonstrate’ and non-essential new information *gostjam* ‘to guests.’ The clause headed by the complementizer *čtoby* ‘so that’ is an essential-new element in the sentence-final position.

Surrounding and ensuing elements can show no difference in their informational status; the intrarheme theme can be employed strategically to avoid elements with low information value occupying the cognitively salient sentence-final position.

(14) a. (...) *no mne prosto ne xočetsja sejvas o nix govorit’ i rasxolaživat’ tex, kto dolžn rešat’ ètu problemu.*

‘But I simply don’t want to talk about them now and discourage those who should solve this problem.’

(2002, 21638)

b. *Èto populjariziruet gorod, èto privlekaet k nemu vnimanie i, bez vsjakix somnenij, idet na pol’zu razvitiju turizma, infrastruktury goroda i t.d.*

‘This popularizes the city, this attracts attention to it, and undoubtedly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ourism, the city’s infrastructure, and so on’

(2002, 21638)

One of the representative examples is when the old element intervenes between conjugating modal verb and following infinitive verb. In (14a), *o nix* ‘about them’ is between the finite verb *xočetsja* ‘want’ and the infinitive *govorit’* ‘to talk.’ It is hard to distinguish the difference in information value between main verb and infinitive verb. Regardless of the difference in the informational status of two elements, textually evoked element *o nix* ‘about them’ has lower value than both of them. The

movement of prepositional phrase to the middle of the sentence avoided placing elements with low information value at the end of the sentence.

Furthermore, as (14b) demonstrates, this pattern appears even where the verb and the object are semantically closely collocated. The postverbal prepositional phrase *k nemu* ‘to it’ is a textually evoked old element that is less likely to be rhematic. It intervenes in the idiomatic predicate group *privlekaet vnimanie* ‘attracts attention’ and becomes an intrarheme-theme.

(15) *Oùen: (...) I pervyj moj vopros budet kasat'sja uže načavševsja sammita ATÈS. Uže skoro vy otpravites' vo Vladivostok.* (...)

*V. Putin: (...) Iznačal'no, kogda ATÈS sozdavalsja, vo glavu ugla byla postavlena cel' liberalizacii mirovoj èkonomiki. I **my namerenyi ètot vopros sdelat' ključevym v xode obsuždenija vo Vladivostoke.***

‘Owen: (...) And my first question will be about the already initiated summit of APEC. You will head to Vladivostok very soon already. (...)

Putin: (...) Initially, when APEC was established, the main goal was to liberalize the global economy. We intend to make this issue a key focus during the discussions in Vladivostok.’

(2012, 16393)

Non-essential new surrounding the intrarheme-theme can develop further with the following essential new element. In (15), the textually evoked *ètot vopros* ‘this issue’ is surrounded by the finite predicative adjective *namereny* ‘intend to’ and the infinitive verb *sdelat'* ‘make.’ The complement following the infinitive verb *sdelat'* ‘make,’ which is *ključevym* ‘a key,’ is the essential new information the speaker intends to convey through the whole sentence.

The sentence-final element *v xode obsuždenija vo Vladivostoke* is situationally evoked, referring to one of the important subjects under discussion. However, it occupies the sentence-final position. Through the pause between the preceding sentence and the prepositional phrase in the

audiofile, it becomes clear that it is an afterthought for confirmation.

I should conclude that the flow of information value in Russian sentence could be non-monotonic in actual speech with consistent fluctuation, drawing V or W. This fluctuation incorporates the fluctuating dynamics of discourse within linearization structure.

VI. Conclusion

I conclude that the value of information throughout the linearization might not adhere to a monotonic flow but may demonstrate a non-monotonic flow in Russian sentences. Drawing a non-monotonic graph, the flow of information value in a sentence demonstrates occasional falls, eventually heading to the highest point of information value towards the end of the linearization. In consequence, a configuration of information flow will demonstrate either V or W shape.

The most serious limitation of this research is the absence of exact definition of theme, and comparability between theme and rheme in terms of information value. Defining pragmatic functions and their comparability is a complex problem, but advanced contemporary approaches including experimental and statistical methodologies might provide a breakthrough. Only after the exact definition of pragmatic functions and 'information value' is clarified will my theory become a solid theory.

I aimed to bring the analysis of Russian word order closer to the cognitive reality of humans that endows salience to sentence initial and final positions. Highlighting the beginning and the end is not only the heritage of language but it is general as much as to be intrinsic to human culture and perception overall. This cognitive trait of human is prevalent in all aspects of human language or even outside language in cultural cognition. As a strategy for effective communication, the hearer-oriented auditory and speaker-oriented praxis express cognitive salience of sentence

boundaries. The free word order of Russian also reflects this cognitive-linguistic tendency, and realizes it in its linearization structure.

참고문헌

일차문헌

- Putin, V.V. (06.10.2002). *Interv' u telekanalu PTP-Sankt-Peterburg i gazete «Ne vskoje vremja»*. President of Russia. URL: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interviews/21638>. (30.10.2023).
- _____. (05.07.2011). *Putin požalel ob obeščanii “močit’ v sortire. Lenta.ru*. URL: <https://lenta.ru/news/2011/07/15/vsortire/>. (18.11.2023).
- _____. (02.28.2013). *Koncert po slučaju Dnja Zaščitnika Otečestva* (Concert for the Day of Defender of the Fatherland). President of Russia. URL: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speeches/17569>. (30.10.2023).
- _____. (09.06.2012). *Interv' u telekanalu Russia Today* (Interview with TV channe Russia Today). President of Russia. URL: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interviews/16393>. (30.10.2023).
- _____. (02.23.2015). *Interv' u VGTRK* (Interview VGTRK). President of Russia. URL: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interviews/47730>. (30.10.2023).

이차문헌

1. Adamec, P. (1966). *Porjadok slov v sovremennom russkom jazyke* (Word Order in Contemporary Russian). Akademia Nakl. Československé akademie věd.
2. Ariel, M. (1990). *Accessing Noun-phrase Antecedents*. London and NY: Routledge.
3. Bivon, R. (1971). *Element Order. Studies in the Modern Russia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 Bolinger, D.L. "Linear Modification." PMLAAX, LXII.
5. Givon, T. (1983)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n introduction." In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 quantitative cross-language study.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vol. III. _____. (1988) "The pragmatics of word order: Predictability, importance and attention." In

- Studies in Syntactic Typology*, ed. by M. Hammond, E.A. Moravcsik J. Wirth. Amsterdam: John Benjamins, 243–284.
6. Gundel, Nancy Hedberg, and Ron Zacharski. (1990). “Givenness, Implicature, and the Form of Referring Expressions. Proceedings of the Six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442-453.
 7. _____ (1993). “Cognitive Status and the Form of Referring Expressions in Discourse.” *Language*, Jun. 1993, Vol. 69, No.2 (Jun., 1993). 274-307.
 8. Fillmore, C. (1982) “Frame semantics.” In Linguistics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Hanshin Pub. Co. 111-138.
 9. Firbas, J. (1966b). “Non-Thematic Subjects in Contemporary English.” *Travaux linguistiques de Prague*. Edited by Josef Vachek. University, Al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Vol. I-II.
 10. Lambrecht, K.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 Prince, E. (1981) *Toward a Taxonomy of Given-New Information*. P. Cole (ed.), *Radical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223–254.
 12. Siloussar, N (2007). “Grammar and Information Structure: A study with reference to Russian.” Doctoral dissertation, Utercht Institute of Linguistics.
 13. _____ (2013). “Grammar and Information structure: A novel view on Russian data.” Ms., Utrecht Institute of Linguistics and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14. Svedstedt, D. (1976). *Position of Objective Personal Pronouns: A Study of Word Order in Modern Russian*. Stockholm: Univ.: Almqvist & Wiksell.
 15. Timberlake, A. (2004). *A Reference Grammar of Russia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6. Yokoyama, O. (1986). *Discourse and Word Order* (Pragmatics & Beyond CS 6). John and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bstract**A Cognitive Approach: The Informational Status of
Boundaries and Non-Boundaries in Russian Word Order**

Choi, Ha Neu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oblem of word order has been one of the longstanding topics in Russian linguistics. With a rich case marking system, Russian has relatively free word order compared to English. The seemingly free word order, however, is not unfettered but is constrained on the level of discourse-functional pragmatics.

In addition to summarizing previous studies, I will argue that information in linearization structure exhibits a non-monotonic flow of value in Russian. I focused on the relative cognitive salience of sentence peripheries and how they overshadow the middle of a sentence. This approach complements previous research that captures the monotonic increase of information value in the linear order. I aimed to analyze Russian word order on both hearer-oriented auditory and speaker-oriented praxis levels.

Key words : Russian Word Order,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FSP), Theme-Rheme, Discourse, Function, Linearization Structure

러시아어 SJA 동사구문 논항구조와 사건 구조 연구: 비대격동사구문과 SJA 동사구문을 중심으로*

하 주 애*

국문 초록

제귀 동사(reflexive verb)로 불리는 러시아어 SJA 동사는 기저 동사에 후치접미사(postfix) *-sja/s'*를 첨가함으로써 다양한 의미와 논항 실현을 보인다. SJA 동사를 다룬 선행 연구들에서는 타동사를 기저 동사로 취하는 경우를 주로 다루고 자동사를 기저 동사로 삼는 SJA 동사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자동사 가운데 비대격 동사와 그에서 파생된 SJA 동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사건 구조에서 후치접미사 SJA가 첨가되는 조건과 SJA의 기능을 살펴본다.

Levin and Rappaport Hovav(1995, 2005)와 Rappaport Hovav and Levin(1998, 2001)이 제안한 연결 이론(linking theory)인 ‘사건의 복잡성’(event complexity) 이론을 바탕으로 기저 동사가 타동사인 SJA 동사구문을 분석했을 때, SJA는 기저 동사가 표상하는 사건이 복합 구조인 경우 추가되며 전체 사건 가운데 하나의 하위 사건(sub-event)를 제거하거나 어휘적 결속을 막는 기능을 한다. 한편, 기저 동사가 비대격 동사인 경우에는 SJA의 기능은 동일하지만, 기저 동사가 복합 사건을 표상한다는 조건 외에도, 의미적 차원의 조건들이 덧붙는다. 먼저 동사의 어휘 의미에 따라 SJA의 허용도는 달라진다. 그리하여 시각적 자극, 색채를 뜻하는 기저 동사 경우 SJA 허용도가 높은 데 반해 후각이나 청각적 자극, 처소나 상태 변화를 뜻하는 기저 동사인 경우 SJA 첨가가 어렵다. 또한 허용되는 주어가 지닌 성질에 따라 SJA 첨가가 제한되기도 한다. 주어가 근원으로 인지되지 않는 개체인 경우 SJA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제어 : 러시아어, 제귀 동사, 사건 구조, 논항 구조, 비대격 동사, SJA 동사

* 서울대 박사과정, hajuac@snu.ac.kr

** 이 논문은 하주애, 「러시아어 SJA 동사구문 사건 구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2020)을 부분 발췌하여 작성한 논문임을 밝힌다.

I. 서론

재귀 동사(reflexive verbs, возвратные глаголы)라 불리는 후치접미사(postfix) -*sja/s'*(이하 SJA)가 첨가된 SJA 동사를 다루는 선행 연구들은 크게 SJA 동사가 지닌 의미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과 SJA의 문법적 기능 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로 나뉜다. SJA 동사의 의미를 주목한 연구들은 다시 SJA 동사의 여러 의미들을 기술하고 나열하는 의미기술적 접근과 방사범주의 의미망을 제시하여 의미의 구조를 제시하는 인지언어학적 접근으로 양분하여 볼 수 있다.

Vinogradov(1972)와 *Russkaja grammatika*(1980)에서는 SJA 동사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Vinogradov(1972)는 SJA 동사의 의미로 총 15가지가 제시한다.¹⁾ 한편 Janko-Trinickaja(1962)는 기저 동사(basic verb)를 타동사와 자동사로 분류하고 SJA가 첨가되었을 때의 동사 의미들을 제시한다.

이 연구들은 SJA 동사가 지닐 수 있는 방대한 의미를 파악하게 한다는

1) Vinogradov(1972:494-501)가 제시한 SJA 동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a. 순수 재귀적 의미(собственно-возвратное значение) e.g. *мыться, встаться*
- b. 중간 재귀적 의미(средне-возвратное значение) e.g. *возвращаться,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 c. 일반 재귀적 의미(обще-возвратное значение) e.g. *сердиться, радоваться*
- d. 피동 재귀적 의미(страдательно-возвратное значение) e.g. *румяниться, нестись*
- e. 상호 재귀적 의미(взаимо-возвратное значение) e.g. *бороться, биться*
- f. 간접 재귀적 의미(косвенно-возвратное значение) e.g. *строиться, прибраться*
- g. 부수 재귀적 의미(побочно-возвратное значение) e.g. *держаться (за перила), взяться (за дело)*
- h. 중간 피동 재귀적 의미(средне-пассивно-возвратное значение) e.g. *припомниться, представляться*
- i. 목적어가 없는 질적 피동 의미(качественно-пассивно-безобъектное значение) e.g. *выдигаться, гнутья*
- j. 목적어가 없는 능동적 의미(активно-безобъектное значение) e.g. *кусаться, бодаться*
- k. 강화의 부수 재귀적 의미(интенсивно-побочно-возвратное значение) e.g. *звониться, стучаться*
- l. 외적 자질의 피동적 발현 의미(значение пассивного обнаружения внешнего признака) e.g. *белеться, стареться*
- m. 간접적 결과 재귀 의미(косвенно-результативно-возвратное значение) e.g. *належаться, вылежаться*
- n. 상호 운동 의미(взаимо-моторное значение) e.g. *разбежаться, сойтись*
- o. 무인칭 강화적 의미(безлично-интенсивное значение) e.g. *хотеться, работатья*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SJA 동사의 의미를 가르는 기준이 일관적으로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가령, Vinogradov(1972)가 제시한 목록을 보면 태(voice), 구문(construction), 화용적 요인(pragmatic factor) 등이 동사 분류의 기준으로 취급되지만 모든 의미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Janko-Trinickaja(1962)는 기저 동사를 분류하는 기준을 논항 구조로 삼는데 반해, 파생된 SJA 동사는 의미에 따라 분류한다는 점에서 기준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또한, 이 연구들에서는 방대한 의미가 위계가 없이 나열되어 있어 중심 의미(prototypical meaning)와 주변 의미(peripheral meaning)를 파악하기 힘들다.

인지언어학적 접근에서는 SJA 동사가 지니는 여러 의미들을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로 가르고 이를 방사 범주(radial category)를 이루는 의미망으로 제시하여 의미 기술적 방식이 지닌 체계성 문제를 해소한다. Kemmer(1993)는 SJA를 타동성을 감소시켜 태를 전환하는 기제로 정의하고, 중간태(middle voice)를 중심 의미로 제시한다. Janda(1993)는 SJA 동사의 의미들을 의미자질 [on-the-self], [by-the-self], [controlled-by-the-self]을 활용하여 세 층위로 나눈다. 마지막으로, Ahn(2006)은 피동 의미(passive meaning)를 제외한 SJA 동사 의미를 바탕으로 방사 범주를 이룬다고 본다. 그는 중심 의미로 채귀(proper reflexive)를, 주변 의미로 중간(middle reflexive), 수신자(receiver SJA), 상호(reciprocal reflexive)를 제시한다. 또한, Ahn(2006)은 격의 의미를 중심으로 SJA의 의미를 재분류하는데, 여러 문법 요소들의 개입으로 획득된 의미를 SJA 동사 구문 의미와 구별함으로써 의미기술적 접근 방식이 가진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다.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취하는 연구들이 원형 범주화 이론에 근거하여 SJA 동사가 획득할 수 있는 의미들의 망을 그려내는 데 주목했다면, “하나의 형태, 하나의 의미”(one form, one meaning)를 주장하는 구조주의적 원리를 바탕으로 SJA 동사에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SJA의 기능을 탐구하는 연구들도 있다. SJA가 지니는 단일한 불변 의미를 밝혀서 SJA 동사의 여러 의미들을 관통하는 공통성과 더불어 그 의미를 가르는 매개변인(parameters)을 규명하여 SJA 동사를 체계화를 하는 것이 이 관점을 취하는 연구들의 궁극적 목표로 하겠다.

이 연구들은 대개 논항 실현에서 SJA의 기능을 도출한다(Jakobson 1932,

1957, Babby and Brecht 1975, Guhl 2010, Levine and Jones 1996, Fermann *et al.* 2010, Jones and Levine 2010). 먼저, Jakonson(1932)은 SJA 동사는 유표적 태를 표시하는데, 여기에서 SJA는 유표적 태를 신호함으로써 “서사 사건(narrated event)의 참여자를 제한”한다고 정의한다(Jakonson 1957:51). Babby(1975)와 Babby and Brecht(1975)는 지배결속이론을 통해 SJA 동사를 분석한다. 이들은 내부 논항(internal argument)의 자리가 비어 있음을 표시하는 문법소로 SJA를 정의한다. 이들은 외부 논항(external argument)이 삭제·강등되고 내부 논항이 주어로 인식되는 통사 구조와 내부 논항이 삭제·강등되어 주어만 실현되는 통사 구조를 나누어 보는데, 전자의 경우 중간문(middles), 반사동문(anticausatives), 피동문(passives)이, 후자의 경우 재귀문(reflexives), 상호문(reciprocals), 반피동문(antipassives)이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구조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연구들이 지닌 문제점은 SJA 동사의 기저 동사가 이항 동사(two-place verb)만을 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항 동사와 달리 일항 동사(one-place verb)의 경우 논항 교체 분석이 어렵고 기저 동사와 SJA 동사의 논항이 지니는 의미역들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SJA의 기능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일항 동사에서 파생된 SJA 동사에 대한 분석은 불가피한 것이라 하겠다.

기저 동사가 일항 동사 중 비능격 동사(uncargative verbs)일 때 보다 비대격 동사(unaccusative verbs)일 때 더 문제시된다. 비대격 동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비대격 동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SJA의 허용도가 낮아 분석할 언어 자료가 자체가 적음을 하나의 원인으로 들 수 있고, SJA 첨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주격 주어가 그대로 유지되어 실현되며 논항이 지니는 의미역 또한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또 다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기저 동사가 일항 동사, 특히 비대격 동사인 경우 기존 연구처럼 논항 구조와 의미역만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분석 방식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비대격 동사와 그에서 파생된 SJA 동사를 사건 구조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논항 실현이 동사의 어휘 의미에 근간한 사건 구조와 긴밀하며, 논항 구조보다는 사건 구조가 다양한 구문의 의미를 다루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II에서는 이론적 틀로 삼을 ‘사건의 복잡성’(Event Complexity) 이론을 소개한다. 이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III에서는 기저 동사인 타동사일 때 사건 구조적인 차원에서 SJA의 첨가의 전제 조건 및 기능을 잠정적으로 도출하고, IV에서는 비대격 동사 구문과 그에서 파생된 SJA 동사 구문을 분석하여 사건 구조의 차원에서 SJA의 기능을 살피고 그 조건을 살필 것이다.

II. 사건의 복잡성 이론

연결 이론(Linking Theory)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어휘 의미와 통사 구조의 대응 관계를 다룬다. 연결 이론의 한 갈래로, Levin and Rappaport Hovav(1995, 2005), Rappaport Hovav and Levin(1998, 2001)은 ‘사건의 복잡성’ 이론을 제안하고 있다.

‘사건의 복잡성’ 이론은 술어가 지시하는 사건이나 사의 내부적인 시간적 특성, 즉 상적 특성(aspectual character)에 주목한다. 이 이론에서는 Vendler(1959)가 제안한 상태(state), 행위(activity), 완성(accomplishment), 달성(achievement)의 네 가지 상적 부류에 따라 사건 유형이 나뉜다.

이러한 상적 접근은 의미역에 의존하여 의미 구조와 통사 구조의 사상을 설명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의미역에 기반한 연결 이론은 일반화된 의미역 목록과 위계를 상정하는 데 있어 학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 가령, Fillmore(1971)는 행위주(agent), 반행위주(counter-agent), 목적어(object), 결과(result), 도구(instrument), 근원(source), 목표(goal), 경험주(experiencer)를 의미역으로 상정하지만, van Valin(1990)은 행위주, 영향주(effector), 경험주, 처소(location), 대상역(theme), 피동주(patient)를 의미역으로 제시하는데 그 위계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이는 의미역 목록과 위계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단일한 의미역이 지위가 다른 논항에 사상되기도 한다. (1)에서 예시된 영어 심리 동사(psych verbs) *fear*와 *frighten*은 외부적 원인인 ‘천둥’에 의해 경험주 ‘그’가 두려움을 겪게 된 상황을 묘사하는 데 쓰인다는 점에서 유사한 어휘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경험주인 ‘그’는 (1a)에서 주어로,

(1b)에서는 경험주 ‘그’ 목적어로 사상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Grimshaw(1990)은 유의어 관계에 있는 술어일지라도 상적 부류에 따라 의미역과 논항의 사상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안한다.

- (1) a. He fears the thunder.
 ‘그는 천둥을 두려워한다.’
 b. The thunder frightened him.
 ‘천둥은 그를 놀라게 했다.’

상적 부류를 고려하는 사건의 복잡성 이론에서는 논항이 지니는 의미역과 위계를 규정하는 것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술어의 상적 부류에 따라 사건 구조가 결정되고 사건 구조 내에서 사건의 참여자인 의미적 논항은 위치를 부여받는다. 또한, 사건 구조상의 내의 위치에 따라 의미적 논항들 간의 위계가 결정된다. 이러한 위계는 문장 표면 구조에서 논항에 사상됨으로써 반영된다.

사건 구조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일 사건(simple event)은 전이(transition) 지점을 포함하지 않고 동질적인 하나의 하위 사건(sub-event)으로 구성되는 반면, 복합 사건(complex event)은 전이 지점을 포함하여 질적으로 다른 둘 이상의 하위 사건을 포함한다. 인과적 관계에 주목한다면 복합 사건은 원인이 되는 사건(causing event)과 결과 사건(caused event)으로 구성된 복합 구조로 표상된다(남승호 2004:79).

사건의 복잡성 이론에서는 사건을 어떻게 표상하는가. 사건의 복잡성 이론에서는 한 사건을 기초 술어(primitive predicate)와 상수(constant, root)로 구성된 사건 구조 형판(event structure template)이 제시된다. 기초 술어란 여러 동사에 되풀이되 나타나는 제한된 수의 술어로, 사건의 기본 구조를 정의하고 필수적인 의미적 논항을 결정한다. 상수는 동사의 고유적 성질을 나타내며, 사건 의미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중괄호로 표기하여 기초 술어와 병기하여 표기된다. 사건의 복잡성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술어 분해 구조는 의미 구조를 정교하게 표현하면서, 논항들이 실현되는 통사 구조와 상관성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다(김효진 2017:69).

Levin and Rappaport Hovav(1995, 2005), Rappaport Hovav and

Levin(1998, 2001)은 Vendler의 상적 부류에 따라 (2)와 같이 다섯 가지 유형의 사건 구조 형판을 제시한다.

(2) 사건 구조 형판(Event Structure Template)

- a. 상태 사건: [x STATE]
- b. 행동 사건: [x ACT<manner>]
- c. 달성 사건: [BECOME [x STATE]]
- d. 완성 사건: [x CAUSE [BECOME [y STATE]]]
- e. 완성 사건: [[x ACT<manner>] CAUSE [BECOME [y STATE]]]

(Rappaport Hovav and Levin 1998:12)

(2)에서 예시한 사건 구조 형판에서 기초 술어로 STATE, ACT, BECOME, CAUSE가 제시된다. 이 가운데 STATE는 상태성, ACT는 역동성, CAUSE는 사동성, BECOME은 기동성을 뜻하는데, CAUSE와 BECOME을 포함하는 사건은 복합 사건을 표상하게 된다.

사건의 복합성 이론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덧붙여, 사건의 증대 가능성과 논항 사상 관계를 설명한다.

(3) 형판 증대 조건(Template Augmentation Condition)

Event structure templates may be freely augmented up to other possible templates in the basic inventory of event structure templates.

‘사건 구조 형판은 사건 구조 형판의 기본 목록에서 다른 가능한 형판으로 확장될 수 있다.’

(Rappaport Hovav and Levin 1998:17, (25))

(4) 각 하위 사건 당 논항 조건(Argument per Subevent Condition)

There must be at least one argument XP in the syntax per sub-event in the event structure.

‘사건 구조에서 각 하위 사건마다 통사상에는 적어도 하나의 논항 XP가 존재 한다.’

(Rappaport Hovav and Levin 2001:779, (36))

이 조건들은 사건의 복잡성 이론을 활용에 있어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사건 유형은 기반하는 상적 부류가 확장됨에 따라 증대될 수 있다. (3)의 형판 증대 조건에 따르면, 사건은 완성 사건의 범위 내에서만 확장될 수 있는데, 이는 Vendler의 상적 구분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상적 부류는 더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Comrie(1976:42)와 van Valin(2005:34)은 의미 자질 [상태성(static)], [동태성(dynamic)], [종결성(end point)], [순간성(punctual)]을 바탕으로, Vendler의 제안보다 더 다양한 상적 부류를 제안한다. 이 제안을 수용하면, 동사의 상(aktionsart)에 따라 사건 유형은 변형 또는 증대될 여지가 있다.²⁾

둘째, 사건 구조 내의 하위 사건과 통사 구조상의 논항 사이의 대응 관계는 1:1로 일치하지 않는다. (4)의 각 하위 사건 당 논항 조건에 따르면, 하위 사건과 논항의 사상 관계는 비대칭적일 수 있다. 즉, 하나의 논항이 여러 하위 사건과 대응될 수 있다. 이는 일항 동사일지라도 복합 사건을 표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하주에(2020:30-31, (18))에서는 van Valin(2005)가 제안한 상적 부류를 바탕으로 하여 열 가지의 사건 구조 형판을 제시한다.

- a. 상태: [x STATE]
e.g. *The boy is afraid.* ‘소년은 두려워 한다.’
- b. 사동적 상태: [x CAUSE [y STATE]]
e.g. *He hold the door open.* ‘그는 문이 열려있도록 잡고 있었다.’
- c. 달성: [BECOME-punc. [x STATE]]
e.g. *The balloon popped.* ‘풍선이 터졌다.’
- d. 사동적 달성: [x CAUSE [BECOME-punc. [y STATE]]]
e.g. *The cat popped the balloon.* ‘고양이가 풍선을 터뜨렸다.’
- e. 완수: [BECOME-grad. [y STATE]]
e.g. *The ice melted.* ‘얼음이 녹았다.’
- f. 사동적 완수: [x CAUSE [BECOME-grad. [y STATE]]]
e.g. *The hot water melted the ice.* ‘온수가 얼음을 녹였다.’
- g. 행동: [x ACT<manner>]
e.g. *The soldiers marched in the park.* ‘군인들이 공원에서 행진했다.’
- h. 사동적 행동: [x CAUSE [y ACT<manner>]]
e.g. *The sergeant marched the soldiers in the park.* ‘병장이 군인들을 공원에서 행진 시켰다.’
- i. 행동적 완수: [x ACT<manner>] BECOME-grad. [(x) STATE]]
e.g. *The soldiers marched to the park.* ‘군인들이 공원으로 행진했다.’
- j. 사동 행동적 완수: [x CAUSE [[y ACT<manner>] BECOME-grad. [(y) STATE]]]
e.g. *The sergeant marched the soldiers to the park.* ‘병장이 군인들을 공원으로 행진시켰다.’

아래에서는 이 시사점들을 고려해 사건의 복합성 이론으로 타동구문과 그로부터 파생된 SJA 동사구문의 사건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SJA의 조건과 기능에 대해 추론해 볼 것이다.

III. 타동구문의 사건 구조에서 SJA

이 장에서는 타동구문과 그에서 파생된 SJA 동사구문의 사건 구조를 분석하여 사건 구조에서의 SJA의 기능을 살펴려 한다.

타동사 *открыть* ‘열다’는 주체가 여는 행위를 하는 사건(원인 사건)과 그로 인해 대상이 열리게 되는 사건(결과 사건)으로 이루어진 복합 사건을 표상하며, 그 사건 구조를 (5)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사건 구조에서 원인 사건에 관여한 주체 *x*는 주어에, 결과 사건에 관여한 대상 *y*는 목적어에 사상된다. *Иван открыл окно*을 예로 들면, 사건 구조상의 논항 *x*은 *Иван*에, *y*는 *окно*에 대응된다.

(5) *открыть* [x CAUSE [BECOME [y STATE<открыть>]]]

x → *Иван*, *y* → *окно*로 사상.

: *Иван открыл окно.*

‘이반은 창을 열었다.’

SJA가 첨가된 *открыться*는 중간문(middles)에서 쓰인다. 중간문은 저절로 발생한 사태로 해석되어 *дождь внезапно кончился* ‘비가 갑자기 그쳤다’나 *зима приближается* ‘겨울이 다가온다’에서처럼 원인이나 행위자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자연현상에 대해 표현할 때 자주 쓰인다. 중간문은 행위주성 검증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중간문에서는 행위주나 원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행위주의 존재를 전제하는 부사어 *специально* ‘의도적으로’나 *нарочно* ‘일부러’와 양립이 불가하다. (6)에서 보이듯 *открыться* 문장은 *специально* ‘의도적으로’와의 양립이 불가하기에 중간문이라 볼 수 있다.

(6) *Дверь открылась (*специально).*

‘문은 (*일부러) 열렸다.’

사건 구조에서 행위주는 CAUSE를 동반한 x 논항으로 표현 가능하다. 이점을 고려할 때 *открыться*의 사건 구조는 (7)처럼 표상된다. (5)에서 제시된 *открыть*의 사건 구조와 비교하면, *открыться*의 사건 구조는 SJA를 통해 [x CAUSE]로 표상되는 원인 사건과 그에 관계된 의미적 논항 x 제거되며(실선으로 표시), 의미적 논항 y만이 남아 *окно*와 어휘적으로 결속된다.

(7) *открыться* [x-CAUSE [BECOME [y STATE<открыть>]]]
 x 부재 → 사상불가, y → *окно*로 사상.
 : Окно открылся.
 ‘창이 (저절로) 열렸다.’

이처럼 SJA가 동사의 어휘 의미에 따른 사건 구조에서 원인 사건에 관여하면 중간문을 비롯하여 피동문, 반사동문을 실현시킬 수 있다. 다만 피동문과 반사동문의 경우 원인 사건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전제되며 어휘적 결속만을 이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간문과 차이를 보인다.

한편, SJA는 원인 사건뿐만 아니라 결과 사건에 관여할 수 있다. 반피동문으로 예시할 수 있는데, 반피동문은 주어로 제시된 개체가 지닌 행위적 습성을 묘사하는 뜻을 지닌다.

반피동문의 사건 구조를 *кусаться* ‘물곤 하다’를 통해 설명하겠다. 기저 동사 *кусать* ‘물다’와 비교했을 때, *кусаться*는 주어는 무는 속성이 있는 개체이다. *кусаться* 구문에서 물리는 대상은 불특정한 일반화된 개체로 개별성이 낮아 논항으로 실현되지는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남는다.

이를 반영할 때, *кусать*와 *кусаться*의 사건 구조는 (8)로 표상된다. (8b) 반피동문에서의 SJA는 결과 사건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 표면 논항과 어휘적 결속을 저해하는 기능을 한다. 결과적으로 결과 사건은 함축 의미로서만 남아있게 된다(점선으로 표시).

(8) a. *кусать* [x CAUSE [BECOME [y STATE<кусать>]]]

$x \rightarrow \text{эта собака}, y \rightarrow \text{людей}$ 로 사상.

: Эта собака кусает людей.

‘이 개는 사람을 문다.’

b. *кусаться* [x CAUSE {BECOME [y STATE <кусать>}]]

$x \rightarrow \text{эта собака}$ 로 사상.

: Эта собака кусается.

‘이 개는 물어대는 습성이 있다.’

한편 기저 동사가 타동사더라도 사건이 복합 구조를 이루지 않는 경우 SJA 첨가는 제한된다. 타동사 *игнорировать* ‘무시하다’를 예시할 수 있다. Jones and Levine(2010)은 *игнорировать*는 주어 개체가 목적어 개체의 상태 변화를 야기하지 않으므로 상적으로 상태라 분석한다. 상태 동사는 사건 구조적으로 기초 술어 STATE로 표현되는 단순 구조를 지니는데 이를 사건 구조 형판으로 제시하면 (9)와 같다.

(9) *игнорировать* [x STATE <игнорировать> y]

$x \rightarrow \text{Иван}, y \rightarrow \text{её}$ 로 사상.

: Иван игнорировал её.

‘이반은 그녀를 무시했다.’

(9)의 두 논항 x 와 y 는 서로 다른 지위를 지닌다. x 와 y 모두 상수 *игнорировать*에 의해 요구되는 참여자이지만, 이 중 x 만이 기초 술어 STATE로 규정되는 사건에서 요구되는 구조적 논항이다.³⁾ 이를 반영하기 위해 y 는 밑줄로 표시된다. 결과적으로 두 논항이 하나의 사건에 관련되므

3) 상수의 참여자와 구조적 논항을 논하며, Rappaport Hovav and Levin(1997)은 상수의 참여자이면서 구조적 논항이 아닌 경우 그 논항의 지위가 수의적이라고 언급한다. 영어 *sweep*가 예시되는데, *He swept the floor*에서 *sweep*의 주어 *he*는 행동 사건의 구조적 논항 x 로 제시되며 필수 논항으로 실현되지만, 상수의 참여자 이기만 한 목적어 *the floor*는 수의 논항으로 실현되어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연 상수의 참여자가 수의 논항에만 사상되는지에 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수의 논항의 실현에 대한 조건은 영어의 양용동사(*labile verbs*)의 논항 실현을 설명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양용동사의 수가 적은 러시아어의 논항 실현을 설명하기 어렵다. 가령, *игнорировать*는 상태 동사이지만, 동사의 목적어 생략은 불가하다.

로 타동사라 할지라도 단순 사건을 표상하는 경우 SJA는 제한된다.

타동사를 기저 동사로 가지는 SJA 동사구문의 사건 구조를 분석을 통해 SJA에 대한 두 가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SJA는 기저 동사가 복합 사건을 표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둘째, 사건 구조상에서 SJA는 하위 사건에 관여하여 사건을 제거하거나 어휘적 논항이 문법적 논항으로 연결되는 것, 즉 어휘적 결속을 막는다. 아래에서는 비대격 동사를 기저 동사를 가지는 SJA 동사구문의 사건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IV. 비대격동사구문과 SJA 동사구문의 사건 구조

Permultter(1978)은 비대격 가설(unaccusative hypothesis)을 통해 비대격 동사로 쓰이는 동사들의 의미 부류를 제시한다. 이 부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의미 자질이 도출된다. 먼저 비대격 동사는 [의도(volition)]의 자질을 결여한다(van Valin 1990). [의도] 자질은 비능격 동사(uncargative verbs)와 비대격 동사를 변별하는 주된 기준으로, 단일한 동사라도 [의도]의 자질에서 양의 유효값을 지니면 비능격 동사로, 음의 유효값을 지니면 비대격 동사로 분류된다. (10)에서 *плавать* ‘수영하다’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плавать*는 의도를 갖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아이를 주체가 상정되는 해석 (10a)에서는 비능격 동사로, 의도성을 지닌 주체가 없는 해석(10b)에서는 비대격 동사로 간주된다.

(10) a. В бассейне никакой ребёнок не плавает.

‘수영장에는 어떤 아이도 수영하고 있지 않다.’

b. В бассейне никакого ребёнка не плавает.

‘수영장에는 어떠한 아이도 물에 떠 있지 않다.’

(Pesetsky 1982:45; 이은순 1999:237 (34-35)에서 재인용)

비대격 동사는 [전이]나 [종결]로도 설명된다(Pustejovsky 1991, van Hout 2004). 대개 비대격 동사의 논항은 어떠한 위치나 상태의 변화를 겪는 개체로, 대상역(theme)이나 피의체(patient)를 의미역으로 지닌다. 위치나 상태

의 변화는 그를 유발하는 원인의 존재를 전제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비대격 동사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들 간의 전이를 전제한다. 이때 비대격 동사의 논항은 사건의 종결 지점으로 기능한다(Tenny 1994).

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비대격 동사의 사건 구조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하겠다. 첫째, 비대격 동사는 의미적 논항 x가 능동적으로 행위를 이행하는 행동 사건을 표상할 수 없다. 둘째, 비대격 동사는 [전이]나 [종결]을 전제하므로, 기초 술어 CAUSE나 BECOME을 포함한 복합 사건을 표상하거나 전제할 수 있다. 특히, 후자는 비대격 동사에도 SJA 첨가가 될 수 있을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복합 사건을 전제함에도, 타동사의 경우와 달리 비대격 동사에 SJA가 첨가되는 예시는 적다. 첫 번째 이유로, 기저 동사가 되는 맨형태(bare) 비대격 동사의 수가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Perlmutter(1978)가 제시한 의미 부류를 바탕으로 이은순(1999)은 러시아어 비대격 동사 목록을 제시한다.⁴⁾ 그러나 이 목록들에는 문법적 기제를 통해 결합가(valance)가 감소하여 비대격 동사·화'된 동사들이 다수 포함되는데, 이러한 동사를 제하면 맨형태 비대격 동사는 존재·발생·소속의 의미 부류, 빛·소리·냄새 등 감각적 자극 의미 부류, 상태·위치 변화에 대한 의미를 지닌 부류에 속하는 동사로 한정되어 수가 줄어 든다. 둘째로, 비대격 동사는 복합 사건을 전제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단순 사건만 표상할 수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겠지만, 비대격 동사가 존재·발생·소속의 의미 지닌 경우, 그 자체로는 상태(state) 사건을 묘사하므로 단순 사건을 뜻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유의어 일지라도 동사의 논항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SJA의 허용도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비대격 동사의 경우 어휘의미적 특성이 SJA 첨가의 또 다른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미적 특성이 SJA 허용의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4) 이은순(1999)에서 제시된 러시아어 비대격 동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a. 상태·위치 변화: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подняться, расти, падать, умирать*
- b. 출현: *появиться*
- c. 국면: *продолжаться, начаться, кончиться*
- d. 기저 동사의 의미 강화: *белеться, зеленеться*
- e. 결과 의미: *остаться*
- f. 존재·발생·소속: *существовать, произойти*
- g. 빛·소리·냄새 등의 감각적 자극: *блестеть, шуметь*

아래에서는 비대격 동사가 지니는 의미 부류에 따라 SJA 첨가 가능성을 살펴보려 한다. 살펴볼 의미 부류는 네 가지로, 존재·발생·소속 의미 부류, 감각적 자극 의미 부류, 색채 의미 부류, 처소·상태 변화 의미 부류로 나뉜다.

IV.1. 존재·발생·소속 의미 부류

존재·발생·소속을 뜻하는 비대격 동사의 경우 SJA의 첨가는 제한된다. 이와 같은 동사로 *существовать* ‘존재하다’, *произойти* ‘발생하다’를 들 수 있다. 이는 사건 구조적인 차원에서 간단히 설명된다. 존재, 발생, 소속을 뜻하는 동사들은 상태를 어휘상으로 지니며 단순 사건을 표상한다. 그런데 III에서 다루었듯 SJA의 첨가는 복합 사건을 전제 조건으로 가지므로, 결과적으로 SJA 첨가가 제한된다.

VI.2. 감각적 자극 관련 의미 부류

감각적 자극 관련 동사 부류는 SJA 허용가능성에 따라 소리·냄새 등 청각, 후각 관련 동사와 빛 등의 시각 관련 동사로 양분된다. 이 중 청각과 후각 자극에 대한 동사 *шуметь* ‘떠들썩거리다’, *пахнуть* ‘냄새가 나다’, *грохотать* ‘사방으로 울리다’, *звякать* ‘딸그락거리다’, *потихнуть* ‘고요해지다’, *прецать* ‘톡톡 소리를 내다’는 SJA 첨가가 불가하다. 반면에 빛 따위의 시각적 자극에 대한 동사들은 상대적으로 SJA 허용도가 높다. 그러나 시각적 자극을 뜻하는 모든 비대격 동사가 SJA 첨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блестеть*는 SJA 첨가가 불가하다.

먼저, *блестеть*의 유의어지만 SJA 첨가를 허용하는 *светить*와 비교하여 보겠다. *светить* ‘빛나다’, ‘비추다’는 비대격 동사로, *луна* ‘달’, *солнце* ‘태양’처럼 주로 광원(光原)으로 인지되는 개체를 주어로 허용한다(11a). SJA 첨가는 논항 구조나 동사의 어휘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지만, 허용되는 주어의 범위를 변화시킨다. *светить*와 달리 *светиться* ‘빛나다’, ‘빛나 보이다’는 ‘달’(태양)을 주어로 삼을 수 없고(11c), 본유적으로 빛을 방출하지 않는 개체(11b, *лицо*)만을 주어로 허용한다.

- (11) a. Луна светила ярко.
 ‘달은 밝게 빛났다.’
 b. Лицо светилося от радости.
 ‘얼굴이 기쁨에 빛나 보였다.’
 c. *Луна светилась.
 ‘달이 빛났다/빛나 보였다.’

허용되는 주어 개체의 성질에 있어 *блестеть*는 *светить*보다는 *свеститься*에 근접해 보인다. *блестеть*의 주어도 *звезды* ‘별’, *алмаз* ‘금강석’, *золото* ‘금’, *глаза* ‘눈’ 등 다른 대상을 비출 수 있는 에너지를 내재하지 않은 개체들이기 때문이다.

주어가 지닌 속성의 차이는 *светить*와 *блестеть*가 포함하는 동사 접미사 (verbal suffix)에도 반영된다. *свестить*가 접미사 *-i-*로 파생된다면 *блестеть*는 *-ej-*로 파생된다. 이 두 접미사에 관해 Isačenko(1960)는 러시아어 동사 접미사 *-i-*를 취하는 동사의 주어는 어떠한 사건을 야기한 주체인 데 반해, *-ej-*를 취하는 동사의 주어는 어떤 특징을 지니거나 상태에 처해 있는 대상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Sperling(1996:159)에 의하면 접미사 *-ej-*는 동사의 기동적 의미도 표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светить*는 빛으로 다른 개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체를 주어로 취하는 사동성을 지닌 동사이고, *блестеть*는 빛을 방출한다기보다 오히려 빛을 수용하는 개체를 주어로 취하는 상태 동사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사건 구조적으로 분석할 때 *блестеть*에 SJA 첨가가 불가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блестеть*는 상태성을 지닌 동사로 그로써 표현 가능한 사건은 기초 술어 STATE로 대표되는 상태 사건, 곧 단순 구조의 사건이다. 앞서 타동사 *игнорировать*나 존재·발생·소속의 의미 부류의 사건 구조 분석에서 단순 구조의 상태 사건에는 SJA 첨가가 불가함을 밝혔는데, 동일한 이유로 *блестеть*에는 SJA가 불허된다.

*свестить-свеститься*의 사건 구조는 (1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светить*는 기본적으로 사동 사건을 표상한다. 그러나 *x*로서 원인 사건은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데 반해 결과 사건은 함의될 뿐이다(점 취소선 표시). 반면 *светиться*는 상태 사건을 표상한다. *светить*의 사건과 비교했을 때

SJA 첨가로 인해 기초 술어 CAUSE를 포함한 원인 사건은 완전히 제거된다(실선 표시). 또한 *светиться*의 사건에는 관찰자를 뜻하는 논항 W가 사건 외부에 추가되어 ‘보이다’의 해석이 획득된다. W는 외현적 논항과 어휘적 결속을 이루지는 않지만, 아래에서 설명할 색채 동사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비가시적 논항 영(null, ∅)과 연결된다고 상정할 수 있다.⁵⁾

- (12) a. *светить* [x CAUSE {STATE<~~свести~~>}]

x → *луна*로 사상.

: Луна светила ярко.

‘달이 밝게 빛났다.’

- b. *светиться* (W) + [~~x~~ CAUSE [y STATE<светить>]]

W → ∅, y → *лицо*로 사상. 단, W는 관찰자.

: Лицо светилось от радости.

‘얼굴이 기쁨에 빛나 보였다.’

*светить-светиться*의 경우처럼 *дымить* ‘연기 나다’와 *дымиться* ‘(증기나 김이) 나다’도 주어가 지니는 성질에서 차이를 보인다. *дымить*의 주어는 연기를 방출하는 근원으로 볼 수 있는 데 반해, *дымиться*의 주어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13a)에서 보이듯 *дымить*의 주어 *печь* ‘난로’는 연기를 방출하는 근원으로 볼 수 있지만, (13b) *дымиться*의 주어 *туман* ‘안개’은 연기를 방출하는 근원이라기보다는 산출물이다.

- (13) a. *печь дымит*.

‘난로가 연기 난다.’

- b. *Туман дымится*.

‘안개가 끼어 있다.’

5) W가 사상되는 영 논항은 무인칭문(impersonals)에서 상정되는 영 논항과 다르다. 무인칭문에서의 영 논항은 CAUSE를 수반한 원인 사건의 필수 논항 x로서 제시된다. 반면에 W와 관련된 영 논항은 사건을 목도한 관찰자 혹은 그러한 사건을 겪는 경험주로, 행위의 이행과 관계된 사건 구조 내부 논항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닌 사건 외부의 추가적인 논항으로 제시된다.

이를 고려하여 표상된 *дымить*와 *дымиться*의 사건 구조는 (14)와 같다.

- (14) a. *дымить* [x CAUSE {STATE <<дымить>>}]
 x → *печь*로 사상.
 : Печь дымит.
 ‘난로에서 연기가 난다.’
 b. *дымиться* (W) + [x-CAUSE [y STATE <дымиться>]]
 W → ∅, y → *туман*으로 사상. 단, W는 관찰자.
 : Туман дымится.
 ‘안개가 끼어 있다.’

*дымить*의 사건에서 연기 산출의 근원 *печь*는 주어로 사상된다. 반면 *дымиться*의 사건에서 원인 사건 참여자 x와 그와 관련된 원인 사건은 SJA 첨가로 인해 제거되고(실선 표시), 산출물을 뜻하는 참여자 y만 주어 *туман*에 사상된다. *светиться* 사건에서처럼 *дымиться* 사건에서도 관찰자 W가 사건 외부에 추가되지만, 이 논항은 ∅에 사상되어 문장에서 제시되지 않고, 동사의 어휘 의미에만 영향을 미친다.

한편, 이 의미 부류에 속하면서 SJA 첨가가 허용되는 *светлеть* ‘밝아지다’는 다른 사건 구조를 지닌다. *светлеть*는 무인칭문(15a)으로 쓰여 어둡 상태에서 밝음 상태로의 물리적 변화 변화를 뜻하거나, 인칭문(15b)으로 쓰여 주체가 명료해진다는 심리적 상태 변화를 뜻할 수 있다. *светлеть*가 표상하는 사건은 상태 변화, 즉 기동 (혹은 탈성) 사건이다.

- (15) a. На дворе светлеет.
 ‘마당이 밝아온다.’
 b. Ум светлеет.
 ‘정신이 맑아진다.’
 c. На горе светлется береза.
 ‘산에서 자작나무가 빛나 보인다.’

반면 *светлеться* ‘빛나 보이다’는 빛나는 ‘상태’의 주체가 관찰자에 의

해 보여짐을 뜻한다(15c). Vinogradov(1972:499)는 *светлеть*와 비교할 때 *светлеться*의 의미에는 상태 변화 시작의 의미가 약화되고 사건의 과정적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고 언급하는데, 이를 통해서도 *светлеться*가 상태 사건을 표상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했을 때 *светлеть*와 *светлеться*의 사건 구조는 (16)과 같다.

- (16) a. *светлеть* [BECOME-punc. [x STATE-comp.<светлеть>]]
 x → *край земли*로 사상.
 : Тихо край земли светлеет.
 ‘지면의 가장자리가 고요히 밝아온다.’
 b. *светлеться* (W) + [BECOME-punc. [x STATE-comp.<светлеть>]]
 W → ∅, x → *береза*로 사상. 단, W는 관찰자.
 : На горе светлется береза.
 ‘산에서 자작나무가 빛나 보인다.’

(16)에서 기초 술어 BECOME과 STATE는 각각 BECOME-punc(tual).과 STATE-comp(arative).로 명세된다. BECOME-punc.은 상태의 변화가 순간적임을 포착하기 위해 명세되며, STATE-comp.는 이전의 상태를 척도 삼아 그와 비교했을 때 조도의 정도가 더 밝아졌음을 반영한다. STATE-comp.를 반영한 달성 동사를 Dowty(1979)는 정도 달성 동사(degree achievement verbs)로 부른다.

이 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감각적 자극에 관한 의미를 지닌 동사 부류는 시각적 자극과 관련된 경우에만 SJA 첨가가 허용된다. 그러나 주어가 그러한 사건을 유발하는 성질을 지닐 때, 사건 구조적으로 보아 기초 술어 CAUSE가 상정 가능한 경우 SJA 첨가가 허용된다.

IV.3. 색채 동사 부류

색채 동사는 색채 형용사에서 동사적 접미사 *-ej-*를 통해 파생된 비대격 동사로, 이 부류의 동사들은 대체로 SJA 첨가를 허용한다. SJA 첨가를 허용한 동사들로 *белеть* ‘회어지다’, *зеленеть* ‘푸르러지다’, *краснеть* ‘붉어

지다’, *темнеть* ‘어두워지다’, *чернеть* ‘검어지다’ 따위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белеть*를 대표로 색채 동사를 살펴보겠다. (17a-b)에서 예시되듯 *белеть*의 뜻은 SJA가 첨가됨으로써 ‘희게 보이다’라는 뜻으로 바뀐다. *белеться*에서 획득된 의미 ‘보이다’는 IV.2.에서 다른 동사 부류에서처럼 사건 구조에서 추가된 관찰자의 W로 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Israeli 1997).

- (17) a. Парус белел.
 ‘돛이 희어졌다.’
 b. Парус белелся.
 ‘돛이 하얗게 보였다.’

*белеть*와 *белеться*의 사건 구조인 (18)은 (16)에서 제시한 *светлеть-светлеться*의 사건 구조와 유사하다. *белеть*의 사건에서 상태 변화는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기초 술어 BECOME-punc.과 STATE-comp.가 포함된 사건 구조가 표상된다. 한편, *белеться*는 변화의 의미는 없이 결과적인 상태만을 뜻하며, 영 논항으로 제시되는 관찰자는 그러한 상태를 관찰하고 묘사한다. 따라서 *белеться*의 사건에 기초 술어 BECOME-punc.와 관련된 하위 사건은 부재하다(18b에서 실선으로 표시).

- (18) a. *белеть* [BECOME-punc. [x STATE-comp.<белеть>]]
 x → *все*로 사상.
 : По ночам все белело, появлялся иней.
 ‘밤마다 모든 것이 하얗게 되었고, 서리가 내렸다.’
 b. *белеться* (W) + [BECOME-punc. [x STATE-comp.<белеть>]]
 W → ∅, x → *что-то*로 사상. 단, W는 관찰자.
 : Что-то там уже белется.
 ‘저기 벌써 무언가 희게 보여.’

IV.4. 상태 및 처소 변화 동사 부류

상태 변화를 뜻하는 동사 중 *стареть* ‘늙다’ 또한 SJA 첨가를 허용한다. 그러나 *умереть(умирать)* ‘죽다’, *пасть(падать)* ‘떨어지다’를 비롯해

대개의 상태나 처소 변화를 뜻하는 동사들에는 SJA 첨가가 불가하다. 허용도의 차이는 기초 술어 BECOME과 STATE의 유형에 따른다.

먼저, SJA 허용을 하는 *стареть*는 형용사 *старый* ‘늙은’, ‘낡은’에서 동사적 접미사 *-ej-*를 통해 파생되어 늙어가는 상태의 변화를 뜻하는 동사이다. *стареться*는 기저 동사 *стареть*와 동사의 어휘 의미에서도 주어가 지니는 의미역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страеть*가 변화 과정에, *стареться*는 결과 상태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a)에서 *стареть*는 시간의 경과를 뜻하는 *бегут* ‘달리다’와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мы* ‘우리는’의 늙음의 경과, 즉 상태 변화를 뜻한다. 반면에 (19b)의 *стареться*는 특정 시점에서의 상태를 뜻하는 형용사 단어미 형태와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발화 시점에서 *жена* ‘마누라’가 늙었다는, (고정적) 상태를 표현하는데 쓰인다.

(19) a. Да, бегут года, мы стареемся все.

‘그래, 시간은 달려가고 있고, 우리 모두는 늙어가고 있어.’

b. Жена стареется, а ты полон жизни.

‘마누라는 늙어 버렸고, 넌 살만큼 살았지.’

(Gerritsen 1990:76, (86))

*стареть*와 *стареться*의 사건 구조는 (20)처럼 표상된다. 늙음은 기준은 상대적이므로, 두 동사의 결과 사건은 기초 술어 STATE-comp.를 포함한다. 또한 *стареть*의 상태 변화는 (한 시점이 아닌) 특정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BEOCME-grad(ual).로 명세된다.⁶⁾ *стареться*의 사건은 결과적인 상태 사건만을 표상하므로, SJA는 *стареть*에 첨가되어 기초 술어 BECOME-grad.를 포함한 하위 사건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20b에서 실선 표시).

(20) a. *стареть* [BECOME-grad. [x STATE-comp.<стареть>]]

x → *мы*로 사상.

6) BECOME-grad.에 할애되는 상태 변화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은 BECOME-punc.에 할애되는 시간과 비교했을 때 더 분명히 드러난다.

: (...) бегут года, мы стареемся все.

‘(...) 매년 시간은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전부 늙어
가고 있어.’

b. *стареться* [BECOME-grad. [x STATE-comp.<стареть>]]

x → жена로 사상.

: жена стареется, а ты полон жизни.

‘마누라는 늙어 버렸고, 넌 살만큼 살았어.’

하지만 대부분의 처소나 상태 변화를 뜻하는 비대격 동사들에는 SJA 첨가가 불가하다. *умереть(умирать)*는 문법적 상(grammatical aspect)에 관계없이 SJA 첨가는 불가하다(21b에서 **умереться*, 22b에서 **умираться*).

(21) a. Он умер.

‘그는 죽었다.’

b. *Он умерся.

(의도한 의미) ‘그는 죽었다.’

(22) a. Он умер.

‘그는 죽었다.’

b. *Он умерлся.

(의도한 의미) ‘그는 죽었다.’

*умереть(умирать)*는 ‘죽음’을 기점으로 질적으로 다른 두 상태가 대비되는 달성 동사에 해당한다.⁷⁾ *умереть(умирать)*의 달성 사건은 *белеть*나 *стареть*의 그것과는 구별된다. *умереть(умирать)*와 *белеть*는 모두 상태의 질적 변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стареть*와 구별된다. 그리고 *умереть(умирать)*의 경우 ‘죽음’이라는 결과 상태에 도달하는 경우 더 이상 상태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белеть*와도 다르다. 사건 구조적으로 *умереть(умирать)*는 (기초 술어 BECOME으로 묘사되는) 변화

7) 불완료상 *умирать*의 경우 ‘죽음’이라는 종결점으로서의 지향을 뜻하며 ‘죽어가다’로 해석되어 완성 동사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동사의 기본적인 어휘의미를 고려할 때, 순간적으로 상태 전이가 일어난 달성 동사로 봄이 더 타당하다.

시간의 점진성이나 (기초 술어 STATE로 묘사되는) 상태의 단계성을 책정할 수 없는 전형적인 달성 사건을 표상하기 때문에 SJA가 첨가될 수 없다.

*умереть(умирать)*는 (23)처럼 동일한 사건 구조로 표현된다.

- (23) a. *умереть* [BECOME-punc. [x STATE<умирать>]]

x → он으로 사상.

: Он умер.

‘그는 죽었다.’

- b. *умирать* [BECOME-punc. [x STATE<умирать>]]

x → он으로 사상.

: Он умирал.

‘그는 죽었다.’ (또는 ‘그는 죽어가고 있었다.’)

또 다른 비대격 동사 *пасть(падать)* ‘떨어지다’에도 SJA 첨가가 불가하다(24b).

- (24) a. Листья пали с дерева.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진다.’

- b. *Листья падались с дерева.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져 있다.’

*пасть(падать)*는 주어 논항이 원(原)처소에서 떨어져 나가는 기점을 중심으로 처소 변화의 발생을 책정하는 달성 동사이다. *пасть(падать)*가 상태 변화의 중도적 과정이 포함된 완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은 (25a-b)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다’ 구를 덧붙여 결과 상태만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결과 상태만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은 상태 변화 시점과 종결 시점이 일치함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 (25) a. *Снег падал, но не упал.

(의도한 의미) ‘눈이 내리기 시작했으나, 완전히 내리지는 않았다.’

- b. *Листья падали, но не упали.

(의도한 의미)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나, 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пасть(падать)*가 표상하는 달성 사건은 (26)과 같다.

- (26) a. *пасть* [BECOME-punc. [x STATE <падать>]]
 x → *листья*로 사상.
 : Листья пали с дерева.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졌다.’
- b. *падать* [BECOME-punc. [x STATE <падать>]]
 x → *листья*로 사상.
 : Листья падали с дерева.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졌다.’

*умереть(умирать)*와 마찬가지로 *пасть(падать)* 또한 전형적인 달성 사건을 표상한다. 상태 전이의 순간성은 기초 술어 BECOME-punc.으로 묘사된다. 또한, *пасть(падать)*의 결과 상태는 원처소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만을 뜻하지, 원처소에서 표면까지 도달하는 과정과 그 단계적 상태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пасть(падать)*의 결과 상태는 기초 술어 STATE로 제시된다. 결과적으로 달성 사건 *пасть(падать)*에는 SJA 첨가가 불가하다.

IV.4의 내용을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상태 혹은 처소 변화를 뜻하는 전형적인 달성 동사에는 SJA 첨가는 불가하다. 이는 *умереть(умирать)*, *пасть(падать)*를 통해 예시된다. 한편 *стареть*는 상태 변화를 뜻하여 달성 사건을 표상하지만, 변화의 과정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기초 술어 BECOME-grad.로 표상)에서 전형적인 달성 사건과 구별되므로 SJA 첨가가 허용된다.

V. 결론

사건의 복잡성 이론을 이론적 틀로 삼아 러시아어 비대격 동사와 그로부터 파생된 SJA 동사를 분석했다. 먼저, 기저 동사가 타동사인 경우를 분석

하여 SJA의 첨가 조건과 그 기능에 대한 중도적 결론을 내렸다. 사건 구조 측면에서 SJA는 기저 동사가 복합 사건을 표상할 때 추가될 수 있으며, 하나의 하위 사건을 제거하거나 표면적 논항과 어휘적 결속을 저해하는 기능을 하였다.

비대격 동사 구문의 경우에도 SJA의 기능은 유지되지만, 의미적인 조건이 추가된다. 첫째로, 동사의 어휘 의미에 따른 제약이 나타난다. 비대격 동사의 의미 부류 가운데 시각적 자극과 관련된 동사, 색채 동사는 복합 사건을 표상하는 경우 SJA 첨가가 허용되었다. 이와 달리, 비대격 동사가 존재·발생·소속을 뜻하거나, 청각·후각적 자극을 뜻하는 경우 SJA 첨가가 불가능했다. 한편, 상태·처소 변화를 뜻하는 동사 부류에는 SJA 첨가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

둘째로, 허용되는 주어의 자질에 따라 SJA 첨가의 가능성이 달라진다. 이 조건은 시각적 자극 동사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허용되는 주어가 빛 등의 원천으로 인식되는 경우 SJA 첨가가 허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SJA 첨가는 불가능했다. 이를 사건 구조적으로 해석하면, 기초 술어 CAUSE에 수반되는 의미적 논항이 표면 논항으로 실현되는 경우 SJA가 첨가된다고 하겠다.

셋째로, 기초 술어 BECOME과 STATE를 포함한 전형적인 달성 사건을 표상하는 동사의 경우 SJA 첨가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처소나 상태 변화의 과정이 긴 시간 간격으로 일어난다고 인식되어 기초 술어로 BECOME-grad.를 포함하거나 결과 상태가 고정적이지 않고 가변적이어서 기초 술어 STATE-comp.를 포함하는 사건을 표상하는 경우에는 SJA 첨가가 허용되었다. 상태 변화 동사인 *старе́ть*의 경우로 예시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형섭, 「러시아어 무인칭 구문(impersonal constructions)의 통사적 구조에 대한 재고찰: A Minimalist Approach」, 『노어노문학』, 22(4), 2010.
2. _____, 「러시아어 타동사의 자동사화에 대한 고찰: SJA 재귀 동사를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50, 2015.
3. _____, 「러시아어 반수동(antipassive) 구문에 대한 소고: SJA 동사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32(4), 2017.
4. 김효진, 「한국어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합성 유형: 'V-어 가다/오다', 'V-어 주다'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5. 남승호,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상적 의미」, 『인문논총』, 52, 2004.
6. _____,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7. 유학수, 「현대 러시아어 재귀동사 구문 연구: 기저동사와의 의미적 상관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30(1), 2018.
8. 송은지, 「러시아어 SJA동사 상호구문(reciprocal construction) 연구」, 『슬라브학보』, 24(2), 2009.
9. 이기웅, 「러시아어 재귀 동사의 논항 구조」, 『러시아연구』, 27(1), 2017.
10. 이영준, 「자동사 파생 과정에서 의미 변화 연구: 한국어와 러시아어 비교」, 『한국어 의미학』, 34, 2011.
11. 하주애, 「러시아어 SJA 동사구문 사건 구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12. Виноградов, В. В., *Русский язык в научном освещении. Том. 1*, М., 1972/2001.
13. Исаченко, А. В.,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стро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сопоставлении с словацким. Морфология. Ч. 2*, Братислава, 1960.
14. Мельчук, И. А., “О синтаксическом нуле”, *Типология пассив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диатезы и залоги*, Л., 1974.

15.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М., 1980.
16. Падучева, Е. В., *Семант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Семантика времени и вид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М., 1980.
17. _____, "Каузативный глагол и декаузатив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Русский язык в научном освещении*. №1, М., 2001.
18. Янко-Триницкая, Н. А., "Возвратные глаголы включенного возвратного объекта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Известия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Отделение литературы и языка*, 20(4), 1961.
19. _____, *Возвратные глаголы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М., 1962.
20. Anderson, S. R., "On the Role of Deep Structure in Semantic Interpretation," *Foundations of Language*, 7(3), 1971.
21. _____, "Comments on the Paper by Wasow," *Formal syntax*, New York, 1977.
22. Ahn, Hyug, "Semantic Network of the REFLEXIVE SJA Construction in Russian," 『러시아연구』, 17(2), 2006.
23. _____, "The semantics of intensiveness in the SJA circumfix in Russian," *The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53(4), 2009.
24. Babby, L. H., "A transformational analysis of transitive -SJA verbs in Russian," *Lingua*, 25(3-4), 1975.
25. _____, and R. D. Brecht, "The Syntax of Voice in Russian," *Language*, 51(2), 1975.
26. Comrie, Bernard, *Aspect: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New York, 1976.
27. Croft, William, "Possible Verbs and the Structure of Events," *Meanings and Prototypes: Studies in Linguistic Categorization*, London, New York, 1990.
28. _____, *Syntactic Categories and Grammatical Relations: the cognitive organization of information*, Chicago IL., 1991.
29. _____, "The Semantics of Subjecthood," *Subjecthood and Subjectivity: The Status of the Subject in Linguistic Theory*, Paris, 1994.

30. _____, "Event Structure in Argument Linking," in Miriam Butt, and Wilgelm Geuder(eds.), *The Projection of Arguments: Lexical and Compositional Factors*, Stanford, CA, 1998.
31. Davidson, Donald, "The logical form of action sentences," in N. Rescher(ed.), *The Logic of Decision and Action*, Pittsburgh PA:, 1967.
32. Dowty, D. R., "Toward a semantic analysis of verb aspect and the English 'imperfective' progressive," *Linguistics and Philosophy*, 1(1), 1977.
33. _____,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1979.
34. _____,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3), 1991.
35. Fehrmann, D., U. Junghanns, and D. Lenertová, "Two reflexive markers in Slavic," *Russian Linguistics*, 34(3), 2010.
36. Fillmore, C. J., "The Case for Case," in E. Bach and R. T. Harms(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New York, 1968.
37. Gerritsen, Nelleke, *Russian reflexive verbs: in search of unity in diversity*, Amsterdam, Atlanta, 1990.
38. Grimshaw, Jane,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A, 1990.
39. Guhl, Marcel, "Towards a syntactic analysis of Russian -sja," *Russian Linguistics*, 34(3), 2010.
40. Hay, Jennifer, Christopher Kennedy, and Beth Levin, "Scalar Structure Underlies Telicity in Degree Achievement," *Semantic and Linguistic Theory*, 9, 1999.
41. van Hout, Angeliek, "Unaccusativity as Telicity Checking," in Artemis Alexiadou, E. Anagnostopoulou, and M. Everaert(eds.), *The Unaccusativity Puzzle: Explorations of the syntax-Lexicon Interface*, Oxford, New York, 2004.
42. Israeli, Alina, *Semantics and Pragmatics of the "Reflexive" Verbs in Russian*, Munich, 1997.
43. Jackendoff, R. S.,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 1972.
44. _____, *Semantic Structures*, Cambridge MA, 1990.

45. Jakobson, Roman, "Structure of the Russian Verb," in Linda R. Waugh *et al.*(Eds.)(1984), *Russian and Slavic Grammar*, Berlin, New York, Amsterdam, 1932.
46. _____, "Contribution to the General Theory of Case: General Meanings of the Russian Cases," in Linda R. Waugh *et al.*(Eds.)(1984), *Russian and Slavic Grammar*, Berlin, New York, Amsterdam, 1936/1971.
47. _____, "Shifters, Verbal Categories, and the Russian Verb," in Linda R. Waugh *et al.*(Eds.)(1984), *Russian and Slavic Grammar*, Berlin, New York, Amsterdam, 1957.
48. Janda, A. Laura, "Cognitive Linguistics as a Continuation of the Jakobsonian Tradition: The Semantics of Russian and Czech Reflexives," in Robert A. Maguire, and Alan Timberlake(eds.), *American contributions to the eleventh international congress of Slavists*, Columbus, Ohio, 1993.
49. Jones, Charles, and James Levine, "Conditions on the Formation of Middles in Russian," *Journal of Slavic Linguistics*, 18(2), 2010.
50. Kemmer, Suzanne, *Middle voice*, Amsterdam, Philadelphia, 1993.
51. Kiss, Tibor, and Artemis Alexiadou, *Syntax-Theory and Analysis: An International Handbook*, Berlin, Munich, Boston, 2015.
52. Langacker, R. W.,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CA, 1987.
53. _____, *Concept, Image, and Symbol*, Berlin, 1990.
54. _____,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2: Descriptive Application*, Stanford CA, 1991.
55. _____, "Clause Structure in Cognitive Grammar," *Studi Italiani di Linguistica Teorica e Applicata*, 22, 1993.
56. Levine, James, and Charles Jones, "Agent, Purpose, and Russian Middles," *Journal of Slavic Linguistics*, 4(1), 1996.
57. Perlmutter, D. M., "Impersonal Passives and the Unaccusative Hypothesis,"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38, 1978.
58. Pustejovsky, James, "The syntax of event structure," *Cognition*, 41, 1991.

59. _____,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MA, 1995.
60. _____, "Lexical semantics," in M. Aloni, and P. Dekker(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Formal Semantics*, Cambridge MA, 2016.
61. Rappaport Hovav, Malka, and Beth Levin, "Building verb meanings," in M. Butt, and W. Geuder(eds.)(1998), *The Projection of Arguments: Lexical and Compositional Factors*, Stanford CA: CSLI, 1998.
62. _____, "Event Structure Account of English Resultatives," *Language*, 77(4), 2001.
63. Say, Sergei, "Antipassive sja-verbs in Russian: Between inflection and derivation," in W. U. Dressler *et al.*(Eds.), *Morphology and its demarcations*, Amsterdam; Philadelphia, 2005.
64. Sperling, Annie Joly, "The Semantic Markings of Russian Verbal Suffixes," in Edna Andrews and Yishai Tobin(eds.), *Toward calculus of meaing: Studies in markedness, distinctive features and deixis*, Amsterdam; Philadelphia, 1996.
65. Tenny, Carol, *Aspectual Roles and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Dordrecht; Boston, 1994.
66. van Valin, R. D., "Generalized Semantic Roles and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in F. Corblin, C. Dobrovie-Sorin, and J.-M. Marandin(eds.), *Empirical Issues in Formal Syntax and Semantics 2*, The Hague, 1999.
67. _____, "Generalized Semantic Roles and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in F. Corblin, C. Dobrovie-Sorin, and J.-M. Marandin(eds.), *Empirical Issues in Formal Syntax and Semantics 2*, The Hague, 2005.
68. Vendler, Zeno, "Verbs and Times," *The Philosophical Review*, 66(2), 1957.

Abstract

**On Argument Structures and Event Structures
of Russian SJA Verb Constructions:
Unaccusative Verb Constructions and SJA Verb
Constructions**

Ha, Ju A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Russian, verbs with postfix *-sja/s'* (below, SJA verbs), known as *reflexive verbs*, demonstrate diverse meanings and argument realizations. Previous studies on SJA verbs have predominantly focused on those derived from transitive verbs, with little attention given to SJA verbs derived from intransitive base verbs. This paper specifically investigates particularly unaccusative verbs, intransitive verbs, and SJA verbs derived from them and examin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postfix SJA is added and its functions within event structures.

Based on the 'Event Complexity' theory, Linking Theory proposed by Levin and Rappaport Hovav (1995, 2005) and Rappaport Hovav and Levin (1998, 2001), we analyze the SJA verb constructions derived from transitive verbs as base verbs firstly. Here, SJA is added when the event represented by the base verb has a complex structure, and serves to eliminate a sub-event or prevent lexical binding. On the other hand, when the base verb is unaccusative verbs, SJA functions consistently, but additional semantic conditions are required. Acceptability of SJA varies depending on the lexical meaning of the verbs; verbs denoting visual stimuli or color terms tend to have a higher acceptability for SJA addition, whereas it is more challenging to add SJA to unaccusative verbs signifying olfactory or auditory stimuli, or changes in location or state. Moreov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also restrict the addition of SJA; if the subject is not perceived as a source, SJA is not allowed.

Key words : Russian Language, Reflexive Verb, Event Structure,
Argument Structure, Unaccusative Verb, SJA Verb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규정

제정 2016. 11. 3. 규정 제206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러시아와 유라시아 지역 사회와 문화 연구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한국과 해당 지역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러시아·유라시아 지역 문화와 사회 전반에 관한 연구와 조사활동
2. 연구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정리
3.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세미나 및 공개강연회의 개최
4. 연구논문집 및 연구자료집의 간행
5. 학술도서의 번역 및 출판
6. 국제적인 학술교류
7. 특수연구 계획에 대한 연구비 보조
8.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를 위원회를 둔다.

제4조(구성)

-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과 부소장 1인을 둔다.

- ②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부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는 소장을 보좌한다.
- ④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소장과 부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등)

- 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겸임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 ③ 박사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전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⑤ 객원연구원은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⑥ 보조연구원은 연구소 사업에 참여하는 석사,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및 회의)

-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
2. 예산 및 결산
3. 규정의 개정
4.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학술위원회

제8조(구성 및 회의)

- ① 연구소의 학술 관련 기획 및 국내외 교류를 담당하기 위해 학술위원회를 둔다.
- ② 학술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학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심의사항) 학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내외 학술 네트워크 구축
2. 출판, 저술 지원, 학술대회 개최
3. 교과목 관련 사항
4. 기타 연구소 학술활동과 관련된 사항

제5장 편집위원회

제10조(구성 및 회의)

- ① 연구소 정기 학술지의 기획, 편집,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본교 및 타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 ④ 편집간사는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연구자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 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편집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편집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되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6장 재정

제11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학교보조금, 각종연구비,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제7장 보칙

제13조(운영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규정 제206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년 1월 26일 개정 및 보완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편집규정

제정 2019.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의 학술지인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의 편집 및 논문의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게재내용)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논문
2. 비평논문, 논단
3. 서평, 서평논문
4. 기타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3조(학술지의 발행) 학술지의 간행은 연 2회로 한다. 발행일은 4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제4조(투고)

1. 다른 출판부에 이미 발표된 글은 본 학술지에 게재될 수 없다. 단 외국논문의 경우 원게재지를 명기하고 게재할 수 있다.
2. 투고논문의 세부 지침은 별도의 투고지침에 따르며 투고지침의 제·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5조(저자의 표시)

1. 저자의 영문이름과 소속을 명시한다.
2.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별 공헌도에 따라 나열하고 소속을 명시한다.

제6조(편집위원회)

1. 학술지의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7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편집위원은 국내외 전문연구자 중에서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임무)

1. 편집위원회는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형식·분야·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를 한다.
2. 2차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논문의 최종적인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해당분야 전문 학자 3인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한다.
3.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사기준)

1. 각 심사위원들은 투고논문들에 대해 창의성, 완성도, 시의성, 투고 규정의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판정에 근거하여 최종 심사 결과를 필자들에게 통보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보고서를 300자 이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분류하여 판정한다. 4단계 심사 분류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게재 가	내용과 형식에 있어 논문의 필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단순 오타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정 후 게재	내용과 형식에 있어 논지전개에는 무리가 없으나 부분적인 재고나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해 이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견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수정사항을 요약하여 수정한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출한 논문과 수정사항서는 편집위원회가 검토·확인하여 게재한다.
수정 후 재심	논문의 기본방향과 논지전개에 무리가 있어 근본적인 재고나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호에 게재할 수 없으며, 재심은 다음 호로 이월되며 투고자는 이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재투고된 수정 논문은 재심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 불가	논문의 내용과 형식이 학술논문의 기본적인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거나 본 학회지의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5. 심사위원의 3인의 심사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아래 표를 따른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판정
가	가	가	게재 가
가	가	수정	수정 후 게재
가	가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불가	재심
불가	불가	가	게재 불가
불가	불가	불가	게재 불가
불가	불가	수정	게재 불가

제10조(판정)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논문의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제11조(이의제기) 투고자는 논문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시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논문심사서, 이의제기문을 검토하고 재심할 수 있다.

제12조 판권 및 저작권 양도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에 발표되는 논문의 판권 및 디지털 정보 권한을 포함하는 모든 소유권은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가 갖는다.

제1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투고지침

제정 2019. 03

1.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투고지침은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편집 규정 제4조에 근거한다.
2. 투고에 관한 일반사항
 - 1) <한글97> 이상의 버전 또는 <MS Word 2003> 이상의 버전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 3) 투고는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ires-journal.or.kr) 또는 편집위원회 전자우편(iresknu@gmail.com)으로 논문 파일을 첨부하여 보낸다.
 - 4) 논문 작성 언어는 한국어나 영어 또는 러시아어로 한다.
 - 5) 투고 논문은 아래의 형식을 갖추야 한다.
 - (1) 논문 제목
 - (2) 저자 이름
 - ① 저자의 소속과 전자우편 주소는 논문 1쪽에 * 각주로 표기한다.
 - ② 공동연구 논문일 경우 주저자를 제일 앞에 명기한다.
 - (3) 국문 초록(300자 내외)과 주제어(5-6개 내외)
 - (4) 본문
 - (5) 참고문헌
 - (6) 영문초록(200단어 내외)과 주제어(Key word, 5-6개 내외)
 - (7) 서평은 각주를 포함하여 원고지 30매 내외로 한다.
 - (8) 학술지 발행은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로 하며, 원고 마감일은 3월 31일과 9월 30일로 한다.
3. 원고작성 시 유의사항
 - 1) 참고문헌: “MLA ” 양식을 따른다.(최근 8판)

(1) 참고문헌은 단행본→논문, 국내서→국외서(러시아→서구)순으로 배열하고, 알파벳순으로 작성한다.

(2) 국내서와 중국·일본 자료의 경우 단행본은 쌍격쇠(『』)로 표시하고, 논문과 편명의 경우는 홑격쇠(「」)로 표시한다.

러시아어 포함 서구자료의 경우, 단행본은 서명만 이탤릭 활자로 표시하고, 논문의 경우에는 겹따옴표(“ ”)로 표시한다. 석·박사 학위논문은 ‘논문’으로 간주다.

(3) 참고문헌 목록은 다음 예시에 따라 작성한다.

① 단행본

저자명(번역자명), 『서명』 판수, 출판지: 출판사, 발행연도.

예) 도스토예프스키(이대우 옮김),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상)』, 열린책들, 2009.

Мальцев Ю. Бунин: 1870-1953, Посев, 1994.

②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행기관, 발행년도.

예) 이강은, 「막심 고리키 초기 단편의 “당당한 인간 재고」,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4, 2013.

Емеренко И. “к вопросу о женском идеале в эстетике А. Чехова”, *Славянские языки в свете культуры*, М. 2006.

③ 인터넷(한글 논문일 경우 ‘Дата обращение’를 ‘검색일’로 변경)

예) «Корё Сарам» - записки о корейцах. URL:

<https://koryo-saram.ru/category/literature>.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2.10.2019.

2) 인용

(1) 사료(자료)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원문을 병기할 수 있다.

(2) 긴 인용문은 본문 위 아래로 한 줄을 띄우고 구분이 되도록 제시한다. 인용문의 글자크기는 본문보다 한 포인트 줄이고, 왼쪽 여백도 한 칸 들여쓰기로 한다.

(3) 간단한 인용문을 문장 내에 인용할 경우 겹따옴표(“ ”)로 처리한다.

겹따옴표(“ ”)로 묶여진 인용문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

(4) 인용문의 출처는 각주로 처리한다.

(5) 직접인용은 쪽수만 명기하고, 간접인용은 반드시 ‘참조’를 붙인다. 재 인용의 경우는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6) 본문 내 용어의 강조는 홑따옴표(‘ ’)를 사용한다.

3) 각주

(1) 각주의 번호는 논문 전편을 통해 일련번호로 매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주 문헌 표기의 순서와 부호는 참고문헌 규정 (1), (2)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3) 각주는 다음 예시에 따라 작성한다.

① 단행본

저자명(번역자명), 『서명』 판수 (출판지: 출판사, 발행연도), 쪽수.

예) 도스토예프스키(이대우 옮김),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상)』 (열린책들, 2009), 237쪽.

Мальцев Ю. Бунин: 1870-1953 (Посев, 1994), С. 328.

②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행기관, 발행연도), 쪽수.

예) 이강은, 「막심 고리키 초기 단편의 “당당한 인간” 재고,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4 (2013), 217쪽.

Емеренко И. “к вопросу о женском идеале в эстетике А. Чехова”, *Славянские языки в свете культуры* (М., 2006), С. 323.

③ 각주를 달고자 하는 문장 뒤 [] 표시 안에 참고문헌 번호 및 쪽수 표시도 공히 허용한다.

예) [7, С. 26]

④ 인터넷(한글 논문일 경우 ‘дата обращения’를 ‘검색일’로 변경)

예) «Корё Сарам» - записки о корейцах. URL:

<https://koryo-saram.ru/category/literature>(дата обращения: 12.10.2019).

(4) 각주에서, 앞에서 언급한 동일한 자료를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생략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① 동양서

저자명, 앞의 논문(앞의 책), 발행연도, 쪽수

예) 도스토예프스키(이대우 옮김), 앞의 책, 2009, 237쪽.

② 서양서

Ibid, op, cit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표와 그림

표와 그림은 <표 1>, <표 2> ... <그림 1>, <그림 2>... 순으로 제시한다.

5) 본문의 글자모양과 문단모양은 다음과 같다.

- (1) 편집 용지: 사용자 정의로 폭 168mm, 길이 240mm로 정의한다. 용지 여백은 위쪽 22mm, 아래쪽 20mm, 머리말 15mm, 꼬리말 0mm, 왼쪽 26mm, 오른쪽 26mm, 제본 0mm으로 한다.
- (2) 본문과 요약문: 한국어는 대표-휴먼명조(크기 10, 장평 95%), 러시아어와 영어는 기호-Times New Roman(크기 10, 장평 100%), 줄 간격 165%, 들여쓰기 10pt.
- (3) 인용문: 한국어는 대표-휴먼명조(크기 9.5, 장평 95%), 러시아어와 영어는 기호-Times New Roman(크기 9.5, 장평 100%), 줄 간격 140%, 좌우여백 26pt, 들여쓰기 10pt.
- (4) 참고문헌: 한글은 대표-휴먼명조(크기 10, 장평 95%), 러시아어와 영어는 기호-Times New Roman(크기 10, 장평 100%), 줄 간격 165%.
- (5) 각주: 한글은 대표-휴먼명조 (크기 9, 장평 100%), 러시아어와 영어는 기호-Times New Roman(크기 9, 장평 100%), 줄 간격 130%, 좌우여백 0pt, 첫 줄 내어쓰기 15pt. 각주 번호는 괄호(예:1), 2), 3)...)로 표시.
- (6) 페이지 표시는 하지 않는다.
- (7) 제목

논문제목: 한글은 대표-휴먼명조, 러시아어와 영어는 기호-Times New Roman, 크기 13, 장평 95%, 자간 0%, 중앙정렬

소제목: 한글은 대표-휴먼명조, 러시아어와 영어는 기호-Times New Roman, 크기 10, 장평 95%, 자간 0%, 중앙정렬

ТРЕБОВАНИЯ РЕДАКЦИИ / ФОРМАТ СТАТЬИ

1. Воз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корейский, английские и славянские языки для написания статьи.
2. Объем статьи более или менее 15 страниц по установленному формату.
3. Внизу первой страницы следует указать имя автора, место работы, адрес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в примечании с знаком *)
4. При соавторстве следует указать имя первого автора, потом второго,... и. т. д.
5. Ссылка приводится внизу на каждой странице (не в конце статьи)
6. Статья должна быть набрана в программе 'MS-WORD'
- ① Шрифт: Times New Roman
- ② Размер шрифта в тексте 10, размер шрифта в цитате текста и в примечании 9.
- ③ См. экземпляр - формат статьи по требованиям редакции.
7. К статье должны быть предложены резюме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объем резюме до 1 страниц, куда входят название статьи и имя автора, и место работы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в скобках. См. экземпляр) и пять ключевых слов на англи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8. Статьи должны высланы в редакцию журнала института iresknu@gmail.com
9. Журнал издается 2 раза в год, 30-го апреля и 31-го октября.
Статьи принимаются в любое время. Однако следует иметь в виду, что 31-го марта и 30-го сентября заканчивается срок подачи статьи для выпуска журнала.

ЛИТЕРАТУРА

1. Вся литература, использованная в тексте статьи, должна быть приведена в списке в конце статьи.
2. Список литературы должны быть выстроены по алфавитному порядку имен авторов.
3. Список литературы составляется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автор, название литературы, издательство. год издания.

Например:

① Монография

Мальцев Ю. *Бунин: 1870-1953*, Посев, 1994.

② Журнал,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Емеренко И. “К вопросу о женском идеале в эстетике А. Чехова”, *Славянские языки в свете культуры*, М. 2006.

③ Интернет, Сайты.

«Корё Сарам» - записки о корейцах. URL:
<https://koryo-saram.ru/category/literature>.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2.10.2019.

④ Ссылки - (приводятся примечания внизу на каждой странице с
очередными номерами по арабской цифре)

- 1) Монография: Мальцев Ю. *Бунин: 1870-1953* (Посев, 1994), С.328.
- 2)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или журнал: Емеренко И. “к вопросу о женском идеале в эстетике А.Чехова”, *Славянские языки в свете культуры* (М., 2006), С.323.
- 3) Сайты в интернете: «Корё Сарам» - записки о корейцах. URL:
<https://koryo-saram.ru/category/literature>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2.10.2019).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소 내의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거한다.

제4조 용어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함)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혹은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와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5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본 연구소 편집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4) 예비조사는 연구지원 부서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1. 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편집위원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8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1. 본 조사는 연구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칭함)를 구성하여야 한다.
- 2.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3. 조사위원회가 제 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 1. 조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며,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및 임명한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 2.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

켜서는 아니 된다.

3.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칭함)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
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4조 판정

1. 조사위원회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5조 결과에 대한 조치 및 기록의 공개

1. 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에 대해서는 e저널을 포함하여 본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이를 본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 한편, 해당 논문 투고자의 소속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도 통보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 부정행위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술지 투고를 금지한다.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1.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1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제11호

인쇄일: 2024년 4월 26일

발행일: 2024년 4월 30일

발행인: 김정일

편집인: 김민아

발행처: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소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인쇄처: 도서출판 책과세계
